

ART BUSAN MONTHLY

예술부산

2023·12
VOL.222



우수콘텐츠잡지
2023



사단법인 부산예술문화단체총연합회

2023 지역사회 공연예술 공헌사업 - 부산여자대학교 사제동행(師弟同行) 프로젝트 VI



Busan Women's College

Department of Children's Art Dance

춤-바라보다

지역사회 공연예술 공헌사업 부산여자대학교 사제동행(師弟同行)

사제동행(師弟同行) 프로젝트 VI '춤-바라보다'는 부산여자대학교의 스승과 제자, 선배와 후배가

'춤'이라는 하나의 목표를 향해 정진하는 프로그램으로 이 시대 춤 문화를 선도하고 새로운 창작산실로서 거듭나고자 기획되었다.

2023년 12월 14일(목) 오후 7:30 부산시민회관 대극장

주최 |  부산여자대학교

주관 | 부산여자대학교 혁신지원사업단, 부산여자대학교 아동예술무용과, BWC 댄스컴퍼니, 김해성무용단

문의 | 부산여자대학교 아동예술무용과 051-850-3261 bwcdance@naver.com



부산예총 60주년

특별선물
이벤트 준비완료



부산예술회관 기획

굿바이 2023 송년



12월 11일 (월) / 12월 14일 (목) 19시
부산예술회관 공연장

12월 11일 (월)
와락심포니
아트프로젝트 울로
부산국악협회가야금연주단
미어 브라스 앙상블
빈체로 댄스스포츠
동백유랑단

12월 14일 (목)
예술집단 백미(白眉)
부산아이디 발레단
한국춤프로젝트 가마
팟 댄스 프로젝트
NS BAND

주최 부산예술회관  부산예술문화단체총연합회

주관 부산예술회관 (사)부산예술문화단체총연합회 (사)대한무용협회 부산시지회 부산연극협회 부산연예예술인협회

문의 부산예술회관 051) 631-1377 www.bsart.or.kr



ART BUSAN MONTHLY VOL.222

2023 DECEMBER 12

CONTENTS

권두칼럼

06 석당박물관 단상 _ 이해우

예서제서

- 08 제61회 부산예술제
해외자매도시 미술교류전&부산미술대작전
제24회 부산실버가요제
- 12 부산예술회관 문화가 있는 날
- 젊은 예술 날라리와 쟁이 '토선생, 행차하신다' _ 정지영
- 14 제49회 부산미술대전 개최
- 16 2023 부산건축가회 추계 건축탐방 - 삶에 스며든 건축을 찾아_하경옥
- 20 2023 6대광역시 제주특별자치도 문학교류제를 다녀와서 _ 정희경
- 24 부산시립미술관 - 과거는 자신이 즐거리를 갖고 있음을 드러낸다
- 26 제40회 부산일보 사진동우회 회원전
- 28 제32회 부산 대학무용 커뮤니티 예술축제 _ 함수경
- 30 고정화 피아노 독주회 _ 김윤선
- 32 제25회 부산독립영화제 스케치 _ 김민우
- 34 사제동행(師弟同行) 프로젝트VI '춤-바라보다'
- 35 리차드 윌트컴 장군 조형물 건립



2023호점몽(蝴蝶夢)_Oil on canvas

표지 _ 이세훈

내가 만든 박수가 꿈을 꾸게 되고 꿈속에서 한 마리 나비가 된다. 박수가 꿈꾸는 호접몽은 자연과 하나가 되는 물아일체(物我一體)이다. 캔버스의 풍경은 박수가 나비로 날아다니는 배경이 된다. 박수의 어법한 상은 몽상가의 초상이고 나의 분신이다. 옆에 두고 '아이 박수야' 라고 불러줘어도 조용히 듣고 있는 박수 시리즈는 현시대를 살아가는 보통 사람들의 초상이다. 약간은 부족하고 어리숙한 이들과 공감하며 소통하고 함께 두박두박 걸어가자는 나 자신에게 보내는 격려이다. _작업노트 2023. 9.



포토에세이

36 차간호의 사람들 _ 나금주

열린마당

- 40 부산, 에세이로 피다 - 커피 이야기를 듣다 _ 김정화
- 44 부산시티발레단을 말하다
공연은 발레단의 존재 이유이며 관객과의 약속 _ 박현주
지역 발레단의 활발한 활동을 기대하며 _ 김장미
부산시티발레단에서 발레리나의 꿈을 키우다 _ 박지은

인물포커스

48 화가 이금선 _ 이지윤

예인탐방

50 목공예가 오구환 _ 진수아

예술가열전 215

52 사진작가 이상대 _ 노옥분

손으로 쓴 문학

56 문헌바람고개 _ 주순보

들여다보기

- 58 미술/ 유진재 <영원한 관계> _ 김종기
- 62 문학/ 문경희의 『하얀, 빈티지』 _ 고경서(경숙)
- 64 문학/ 선용 동심시집 『아니랄까 봐』 _ 박일

기획특집

66 부산청년오케스트라 좌담회 _ 이효민

기획연재

- 72 음악으로 본 세상이야기Ⅷ - 부산, 오페라를 품다 _ 정두환
- 76 발레가 있는 무대Ⅵ - 발레, 런웨이를 걷다 _ 노영재
- 80 예총·전시·공연 뉴스
- 86 신간 안내
- 87 메세나 광장 & 정기구독회원 모집

2023년 12월 통권 222 <http://www.artpusan.or.kr>

1997년 10월 15일 정기간행물 등록(2011년 8월 31일 변경등록번호 부산라-01255)

발행일_ 2023년 11월 24일 발행처_ 사단법인 부산예술문화단체총연합회 주소_ 부산광역시 남구 용소로 78 부산예술회관

전화_ 051)612-1372 팩스_ 051)631-1378 이메일_ artbusan1997@naver.com

발행인 겸 편집인_ 오수연 편집고문_ 이봉두(건축가회), 김인숙(국악협회), 김갑용(무용협회), 이석래(문인협회), 박태원(미술협회), 강종관(사진작가협회),

이정남(연극협회), 안규성(연예예술인협회), 서영조(영화인협회), 권성은(음악협회)

편집장_ 정지영 편집기자_ 이효민 객원기자_ 이지윤 디자인_ 두손컴 제호_ 김중문

※ 본지는 부산광역시로부터 발간비 지원을 받습니다. 본지에 게재된 내용은 부산예총의 의사와 다를 수 있습니다.



석당박물관 단상

글_ 이해우 동아대학교 총장

아침저녁으로 불어오는 바람이 차갑습니다. 그래도 낮에는 제법 따뜻한 햇살이 비추어 바쁜 일과 중 잠시 짬을 내어 석당박물관 앞을 거닐어 봅니다. 동아대학교 석당박물관은 부민캠퍼스 내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오랜 역사를 자랑하는 동아대학교의 석당박물관은 고려대학교 박물관, 이화여자대학교 박물관과 더불어 국내 3대 대학 박물관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외부인들은 잘 모르는 경우가 많은데, 석당박물관 뒤편에는 미술관 건물이 연결되어 박물관과 미술관이 서로 공존하고 있습니다. 전통적 문화유산과 현대적 미술품을 한 곳에서 감상할 수 있는 문화공간인 것이지요.

석당박물관 1층으로 들어서 미술관 앞을 지나려니 작년 이맘때 석당미술관에서 열렸던 '오냥자 채색화전'이 떠오르는군요. 오냥자 화백은 홍익대 동양화과 출신으로 1988년부터 25년 동안 동아대학교 미술학과 교수를 지낸 분입니

다. 국전에서 특선 4회 및 입선 11회의 영예를 안은 한국 화단의 거장입니다. 고 천경자 화백의 수제자이기도 한 이 분은 꽃과 새를 소재로 한 화조화를 많이 그리셨습니다. 깊이 축적된 채색화의 아름다움을 잘 나타내어 보는 이들에게 깊은 감동을 주었습니다. 그림 속 꽃에서는 향기가 나는 듯 하며, 아름다운 자태를 뽐내고 있는 새와 나비들은 곧 그림에서 나와 하늘 위로 날아오를 것만 같습니다.

오냥자 화백은 전시된 작품 중 판매된 전액을 학교에 기부하기로 결정하여 화제가 되었습니다. "살아 있는 동안 작품 활동을 계속하여 다시 기증하고, 오냥자 그림은 부산 동아대에 가야 볼 수 있다는 책임감을 갖고 계속 작업하겠다"고 말씀하셔서 참석자들을 숙연하게 하였습니다. 자신의 인생을 학교 발전을 위해 기부하신 헌신은 이날 행사에 참여한 많은 학교 관계자에게 깊은 울림을 주었습니다. "인생

의 가장 중요한 시절, 뜨겁게 가르치고 작업했던 곳에 인생을 두고 싶다”고 하셨던 오남자 화백의 말씀은 아직도 여운으로 남아있습니다.

발길을 옮겨 석당박물관 2층으로 향합니다. 동아대학교의 석당박물관은 6.25 전쟁 당시 우리나라의 임시수도 정부 청사 건물로 사용된 만큼 오랜 역사와 전통을 자랑합니다. 또한 국보와 보물 등 중요한 문화재를 많이 소장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역사적 가치를 인정받아 석당박물관은 '부산 임시수도 정부 청사'라는 이름으로 국가등록문화재 제41호로 지정되기도 하였습니다.

박물관 이곳저곳을 둘러봅니다. 국보인 '동궐도'는 석당박물관의 대표적인 소장품입니다. 동궐이라고 묶여 불리던 창덕궁과 창경궁의 전각과 궁궐 전경을 조감도식으로 그린 궁궐 그림입니다. 화려하고 장엄했던 조선 후기 궁궐의 모습을 장대한 규모와 정교한 묘사로 표현하여 동아시아를 대표하는 궁궐 그림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그 외의 그림으로는 화조화, 인물화, 산수화 등 많은 작품이 전시되어 있습니다. 그 중 특히 눈에 띄는 것은 왕이 선왕과 왕비 무덤에 가는 행차를 그린 능행도입니다. 능행도는 왕이 능행할 때 반열의 차례를 그림이나 글자로 설명해 놓은 일종의 도식이라 할 수 있습니다. 안중근 의사가 이토 히로부미를 처단하고 중국 뤄순 감옥에서 순국하기 전에 쓴 유묵과 헤이그 만국평화회의에 참석한 이준 열사의 글 등도 눈에 들어옵니다.

총장으로서 외빈이 방문하시면 종종 석당박물관을 안내해 오곤 했는데, 걸음을 옮길 때마다 아직 자세히 살피지 못한 새로운 소장품들이 발견됩니다. 그도 그럴 것이, 동아대학교 석당박물관 안에는 국보 2점, 보물 132점을 비롯하여,

국가민속문화재, 국가등록문화재, 유형문화재, 문화재자료, 발굴문화재 등 약 2만 3천 점에 달하는 방대한 소장품들이 전시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과거와 현재가 공존하는 석당박물관을 거닐며, 석당박물관의 미래 모습을 머릿속으로 잠시 그려보았습니다. 동아대학교 석당박물관은 지금껏 체계적인 연구와 전시, 교육프로그램 개발 등을 해오고 있습니다. 특히 동아대학교는 1987년 전국 대학교 중 3번째로 고고미술사학과를 개설하여, 문화유산 전문 인재를 양성해 꾸준히 배출해 왔습니다. 이제는 디지털 시대에 맞추어 석당박물관의 소장품들을 활용하여 지역사회와 연계하고 지역소멸을 막을 콘텐츠로 개발해야겠다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잠시 돌아본 석당박물관 안에서는 한국적이고 전통적이며 지역적인 것들이 넘쳐나고 있었습니다. 가장 한국적인 것이 가장 세계적인 것이라는 말이 있듯이, 한국의 판소리가 2003년 유네스코 인류 구전 및 무형유산 걸작에 선정되었고, 비빔밥 등이 한식의 세계화를 이끌고 있습니다. 한국적인 것들로 가득한 석당박물관이 장차 세계적인 문화유산이 될 수 있으리라 기대합니다. 동아대학교의 석당박물관이 부산지역 예술인을 위한 문화 활동을 포용하면서, 문화적인 전통을 이어 나가는 지역사회의 중요한 밑거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더 나아가 동아대학교가 석당박물관을 통해 국가균형발전의 중심으로 지역대학의 역할을 감당하고 지역발전을 선도할 수 있게 되기를 희망합니다.

해외자매도시 미술교류전& 부산미술대작전

2023. 10. 23. ~ 2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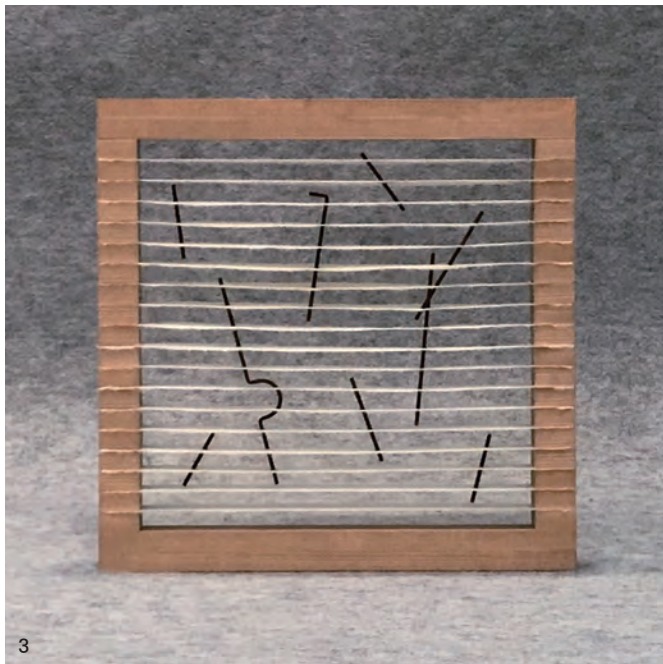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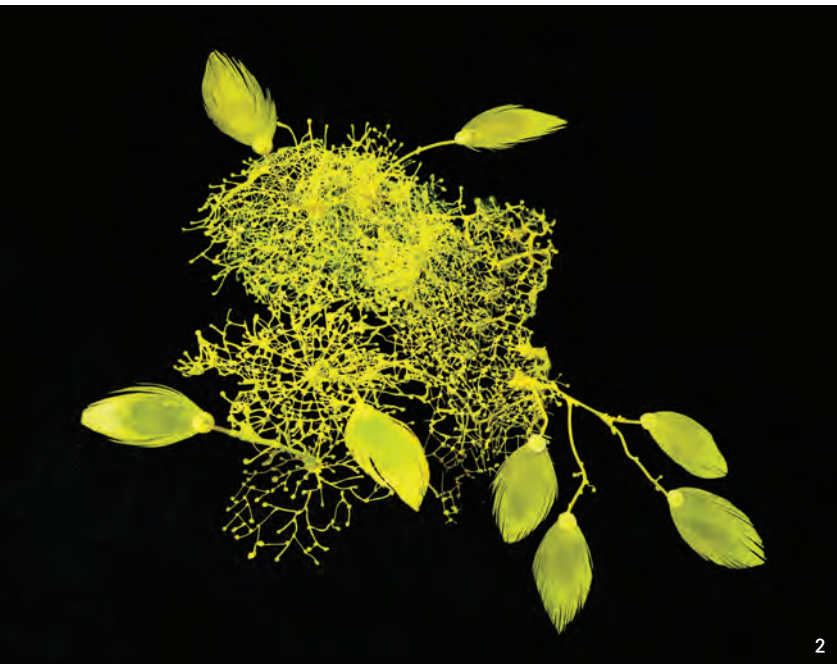
부산시청 전시실

부산미술협회(회장 박태원)는 제61회 부산예술제에서 해외자매도시 미술교류전&부산미술대작전을 열었다. 국제화 시대에 부응하는 미술교류 행사로 해외자매도시 미술교류전은 작가들의 정보교류와 네트워킹의 시간, 부산미술대작전은 지역민들에게 평소에 보기 드문 대형작품을 감상할 기회가 되었다.

올해는 10월 23일 개막식을 열어 많은 국내외 내빈 및 참여 작가들이 참석해 자리를 빛냈으며 부산에서 활발히 활동하는 작가 23명, 중국 18명, 일본 5명으로 총 46명의 작가를 초대하여 한국화, 서양화, 공예, 수채화, 서예, 문인화, 판화 등 다양한 장르의 작품 총 50여 점을 전시했다. 부산에서 참여한 작가들은 평면 100호에서 50호까지, 입체는 세 변의 합이 450cm 이내를 기준으로 한 대작들을 출품해 전시장을 가득 채웠다.



1



국내의 여러 장르의 수준 높은 작품들과 부산미술 대작들을 한자리에서 선보인 이번 전시는 지역의 경계를 넘어 부산과 일본, 중국 등 해외 자매도시 작가들이 작품을 통해 서로 소통하고 교류하며 동시대 미술의 경향을 파악하고 정보를 공유하는 화합의 장이 됐으며, 부산미술의 영역을 확장해 부산이 국제적 문화도시로 성장하기 위한 발판을 마련하는데 한몫했다.

/ 편집실

- 1 이민한_관물청심-폭포2 2022, 130×162cm, 장지에 수묵 담채, 2022
- 2 문지영_Flying Spores 23#5, 50×50×(d)25, TPU, PLA, Phosphorescent paint, 2023
- 3 구리타 토오루_float #5, 386×390×(d)5mm, japanese paper, steel wire, rust, wood, 2017
- 4 황사_leap into the light_162×112cm, 한지에 채색, 2019

제24회 부산실버가요제

2023. 10. 29. 오후 3시

부산예술회관 공연장

경연대회의 흥수라 해도 부족함이 없는 요즘이지만 노년층을 위한 무대는 극히 적다. 부산실버가요제는 노년층의 정서를 이해하고 그들의 삶을 풍요롭게 만드는 꿈의 무대다. 어느새 24회째를 맞아 어엿한 '성년' 가요제가 됐다.

올해는 여성 5명, 남성 11명으로 총 16명이 본선 무대에 올랐다. 부산광역시 16개 구·군 만 65세 이상 실버 세대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가요제답게 예선을 통과한 출전자들의 실력은 남달랐다. 사회를 맡은 가수 정현아는 가창에 앞서 출전자들의 선곡 이유, 출전 배경 등을 말해주었는데 관객들은 고개를 끄덕이며 그들의 노래에 더욱 집중할 수 있었다. 긴장 탓에 도입부에 실수한 참가자에게 격려의 박수를 보내게 하는 등 경연에 사회자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게 했다.

2000년 제1회 실버가요제 개최 당시의 슬로건 '노년을 즐겁게'처럼 인생의 의미를 추억의 노래에서 찾는 출전자들의 한 곡 한 곡은 모두



소중했고, 세월이 빚어낸 목소리에는 가사를 곱씹게 하는 깊이가 느껴졌다. 문득 그들의 어린 날과 젊은 날은 어땠을까, 얼마나 많은 사랑과 이별, 고난을 헤치고 지금 이 무대 위에서 있을까를 생각하게 하는 건 역시 '노래의 힘'이다.

가수 한경주가 「태종대」 「날 좀 보소」, 가수 차성연이 「눈물의 술」 「님이여」, 가수 라수빈이 「야생화」 「트로트일번지」 등 열 명이 넘는 초대 가수의 무대도 이어졌다.

심사위원 4인(김무영(작사가) 노명호(가수위원회 위원장) 김익현(작곡가) 김상호(작곡가)의 심사를 통해 수상자가 발표될 때마다 아낌없는 박수가 쏟아졌다. 특별상 배인석·김맹곤 씨, 인기상 양희우·서금화 씨, 장려상 정장진·문종호 씨에 이어 동상은 「아버지의 강」을 부른 박애숙 씨가, 은상은 「정녕」을 부른 장기원 씨가, 금상은 「아름다운 이별」을 부른 김영운 씨가 받았다. 부산예총 회장 상장 및 가수인증서와 상금 100만 원을 받는 대상의 주인공은 「가을타는 여자」를 부른 박숙희 씨였다.

부산연예예술인협회 안규성 회장은 가수로서 신곡 「위하여」를 부른 뒤 “부산 어르신들에게 ‘효자’가 되고 싶다”고 실버가요제의 의미를 밝혔다. 현장을 찾은 관객 중에는 “매년 실버가요제를 보러 온다”는 경우가 꽤 많았다. 실버 세대에게 삶의 즐거움을 주는 부산실버가요제의 번창을 빌어본다.

/ 편집실

1 대상 박숙희
2 금상 김영운
3 은상 장기원



부산예술회관 문화가 있는 날 젊은 예술 날라리와 쟁이 '토선생, 행차하신다'

2023. 10. 25. 부산예술회관 공연장

퓨전국악이라는 말이 더 이상 낯설지 않다. 퓨전국악에 대해 국어사전은 '국악기와 양악기를 모두 사용하여 연주하는 전통 음악' 또는 '국악과 양악을 섞어 새롭게 만든 음악'으로 뜻을 풀이를 하고 있다. 부산에도 젊은 국악도를 중심으로 퓨전국악을 연주하는 밴드가 구성돼 활동이 활발하다. 창작곡이나 전통국악을 편곡해 밴드만의 컬러를 드러내는 다양한 음악을 선보인다.

부산예술회관 10월 문화가 있는 날에 [젊은 예술 날라리와 쟁이]^(이하 날라리와 쟁이)가 무대에 섰다. 날라리와 쟁이는 '음악을 마음껏 주무른다, 날린다'와 '음악쟁이들'이라는 의미를 담았다. 국악과 클래식 그리고 실용음악의 장르를 넘나들며 새로움을 추구하고 동시에 국악이 가진 다채로움을 날라리와 쟁이스럽게 표현하며 활동하고 있다. 이번 공연은 '토선생, 행차하신다'로 <별주부전>을 날라리와 쟁이만의 색깔로 재해석했다. 중독성 있는 노랫말과 리듬, 모던록과 판소리의 절묘한 만남으로 공연 내내 유쾌함을 선사했다.

첫 곡은 별주부가 바다에서 세상 밖으로 나오며 토선생을 찾는 과정을 그린 <토선생 못봤소?>다. 용왕의 병을 고치기 위해 무작정 육지로 나온 별주부는 토선생이 누구지도 모르면서 '토선생 못봤소?'를 외치며 찾아 헤맨다. 두 번째 곡은 토선생이 출현했다는 소식을 들은 별주부가 만나러 가는 내용인 <토선생, 행차하신다>이다. 만



파정식지곡 '취타'를 편곡한 것으로 피리와 태평소 연주가 특히 눈길을 끌었다. 아쟁 소리 위로 들리는 피리와 태평소 소리에 두 악기가 이렇게나 아름다운 연주를 들려줄 수 있었나 싶어 새삼 귀를 종긋해서 집중했다.

이산저산 토선생을 찾으러 다녔던 별주부가 토선생이 있는 곳에 도착해 보니 많은 동물이 악기를 연주하고 있다. 토선생이 누구인지 모르는 별주부는 동물들에게 말을 걸어본다. 무대에서는 별주부가 된 소리꾼이 '혹시 토끼예요?'라고 물으면 피리, 베이스, 신시사이저, 드럼 등 악사들이 자신의 악기로 개성을 뽐내는 연주를 들려주고, 아쟁 연주자가 동요 「산토끼」를 들려주며 답을 대신한다. 어떻게든 토끼를 데려가야 하는 별주부는 '나와 용궁 가서 부귀영화를 누리자'며 피고 토선생은 '싫다, 이놈아!' 하며 들은 척도 하지 않는다. 둘의 밀당을 재밌게 그린 〈난감하네〉와 관현악 버전으로 편곡한 날라리와 쟁이의 창작곡 〈벧놀이블루스〉로 관객들도 함께 즐길 수 있도록 했다.

눈치 빠른 토선생을 데리고 용궁으로 가는 게 쉽지 않은 별주부의 신세한탄은 '인생에서 꽃과 같이 아름답고 행복 한 시간의 의미'라는 〈아름다운 숲〉으로 표현했다. 민요 〈태평가〉를 편곡해 피리가 선율을 이끌고 아쟁이 뒤를 이으며 신시사이저와 드럼 타악 등이 풍성함을 더했다. 별주부를 피해 도망가는 토선생은 〈Run with me〉와 〈환호작약〉으로 들었다. 〈환호작약〉은 별주부를 피해 도망에 성공한 토선생이 기뻐서 크게 소리를 치며 날뛰는 의미다. 부산무형문화재 제16호 박대성류 아쟁산조 중 자진모리를 바탕으로 재구성한 곡이다.

마지막 곡은 토선생을 찾으러 다닌 별주부와 뜻하지 않은 곤경을 치러야 했던 토선생, 아픈 용왕도 일상의 아름다움을 깨우친다는 내용의 〈FunFun〉이다. 4/4박자 리듬에 국

악 선율이 더해져 하루를 마무리하기에 좋은 곡으로 와닿았다. 요즘 누구보다 힐링이 필요한 관객에게 평범한 일상이 얼마나 소중한지 일깨워 주는 듯했다.

유시은(소리) 권다정(아쟁) 김혜지(피리·태평소) 최예찬(신시사이저) 김영훈 배지훈(타악) 최형석(베이스)으로 구성된 날라리와 쟁이는 〈홀로 아리랑〉을 앙코르에 대한 화답으로 연주하며 마지막 인사를 했다.

전통과 역사는 하루아침에 만들어지는 게 아닌 만큼 이를 현재에 되살리고 보다 나은 미래를 위해 발전시켜 나가는 것이 지금 여기를 사는 젊은 세대의 역할이기도 하다. 날라리와 쟁이의 이번 공연은 한국 음악이 지닌 전통의 멋과 현재 그리고 미래로 나아가기 위한 새로운 시도의 국악 공연도 사람들과 함께 흥겨울 수 있음을 보여주었다. 지역에서 활동하는 젊은 국악도들에게 힘찬 격려의 박수를 더해본다.

글_정지영





제49회 부산미술대전 개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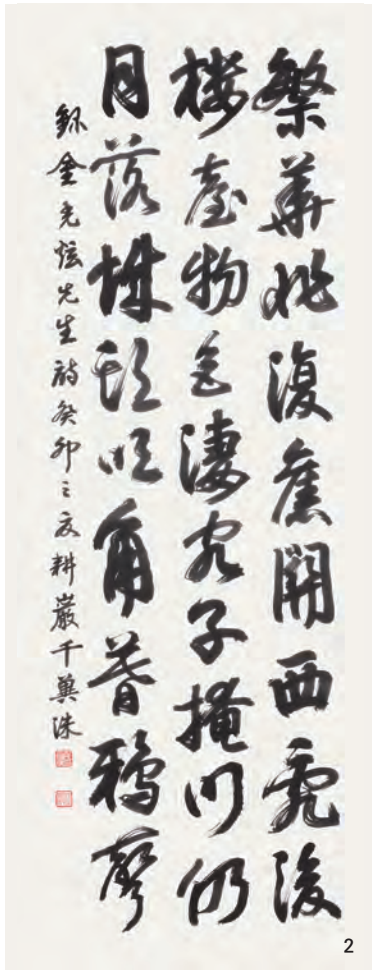
2023. 11. 13. ~ 12. 2. 부산문화회관 부산시청 부산시민회관 전시실

부산광역시(시장 박형준)와 부산미술협회(회장 박태원)가 주최하는 제 49회 부산미술대전의 수상작 전시가 11월 13일부터 12월 2일 까지 열린다. 부산미술대전은 1975년 '부산 미전'이라는 명칭으로 처음 개최된 이래(1983년 부산미술대전으로 개칭) 재능 있는 신진 작가의 등용문 역할을 하고 있다.

부산미술대전은 한국화 서양화(구상, 비구상) 판화 조각 수채화 민화·불화 공예 디자인 서예 문인화 학술·평론 영상·설치

등 12개 분야로 나눠 공모한다. 올해는 1,293점이 출품했고 720점이 입상했다.

통합대상의 영예는 이금선 작가의 「만선의 하모니」(서양화 구상)가 차지했다. 권달술 심사위원장은 “공중에 그려진 수많은 작은 멸치들과 어망, 그리고 그 사이로 부상하는 물방울들, 그 뒤로 다소간 흐릿하게 그려진 작업하는 어부들의 모습”을 “어떤 색깔도 가미하지 않은 채 가는 펜으로만 그린 대작”이라며 독창적인 기법과 표현력을 높이 평가했다.



1 통합대상 서양화(구상) 이금선_만선의 하모니
 2 서예 대상 천기수_김광현 선생시
 3 문인화 대상 정옥연_목국
 4 디자인 대상 김재익_미래부산을 위한 화려한 날개짓



부문별 대상은 디자인 김재익의 「미래부산을 위한 화려한 날개짓」, 서예 천기수 「김광현 선생 시」, 문인화 정옥연 「목국」이 받았고 공예 부문은 대상작이 없다. 부문별 우수상은 한국화 이지훈, 서양화(구상) 박정호, 수채화 이종배, 민화 차유미, 공예 안병해 장성근 이근규 김창주, 디자인 김기덕 노영서, 서예 박숙진 이동철, 문인화 김수에 허윤정 작가가 각각 받았다.

부산문화회관 전시실에서는 서양화(구상) 및 조각 부문 전시가 11월 13일부터 18일까지, 서예 부문 전시가 11월 21일에서 25일까지, 문인화 부문 전시가 11월 28일부터 12월 2일까지 열린다. 부산시청 2층 전시실에서는 한국화 및 서양화(비구상) 부문 전시가 11월 13일에서 18일까지, 공예 및 판화 및 수채화 부문 전시가 11월 20일에서 25일까지, 민화·불화 부문 전시가 11월 27일에서 12월 2일까지 열린다. 부산시민회관 전시실에서는 디자인 및 영상·설치 부문 전시가 11월 21일에서 25일까지 진행된다.

시상식은 개막식과 함께 11월 17일 오후 3시 부산문화회관에서 열렸다.

문의_051)632-2400 / 편집실

2023 부산건축가회
추계 건축탐방
**삶에 스며든
건축을 찾아**





그릿비 서생점

11월 11일, 파란 하늘과 햇살이 좋은 가을날, 부산건축가회 회원들과 가족들이 '2023 추계 건축탐방'을 다녀왔다. '부산건축가회 건축탐방'은 매년 봄·가을 좋은 건축물과 건축을 품은 지역의 속살을 들여다보며 함께 느끼고 오는 자리이다. 이번 여정의 주제는 '울산지역 내 우수건축물 탐방'으로 최근 몇 년간 울산건축상을 수상한 작품들을 대상으로 했다.

우리 사는 곳 부산과 그리 멀지 않은 곳이라 수영요트경기장에서 출발한 버스는 탐방을 준비한 이봉두 회장의 간략한 인사와 강영자 건축문화위원장의 탐방에 대한 설명을 들으며 잠시 차창 밖 풍경에 눈길을 주는 사이 첫 탐방지인 큰나무놀이터에 도착하였다.

기존 초등학교 부지를 활용한 큰나무놀이터에는 어린이들이 자유롭게 뛰어놀고 체험할 수 있는 다양한 실내외 공간이 마련되어 있었다. 공간을 돌아보기 전 초등학교에서 큰나무놀이터로 바뀌는 과정의 이야기를 샌드아트로 볼 때 잔잔한 감동이 마음을 스쳐갔다. 그 여운 탓인지, 어린이들을 위한 많은 배려와 고민이 곳곳에 묻어있음을 느낄 수 있었다.

발길을 옮긴 곳은 산속의 고즈넉함이 묻어있는 왕방마을에 도자기를 만들고 전시하는 공간(지금도 건물 옆에 도자기를 굽는 가마가 있다)에 있는 왕방요라는 카페다. 설계자인 정웅식 건축가의 설계와 시공 과정에 대한 설명은 건축을 더 깊게 이해하게 했다. 산속에 있지만 노출콘크리트와 외부 자연공간을 거스르지 않는 디자인으로 특히 외부 전면부 바닥에 만든 수*공간과 벽이 주는 느낌, 건물 내부에서 바라보는 바깥 풍경이 편안했다. 가족들이 직접 시공에까지 참여했다는 이야기를 듣고 보니 조금은 투박해 보이는 마감도 오히려 자연스럽게 느껴졌고, 나무로 직접 만든 테이블과 가구들이 이쁘면서도 편안하게 와닿았다. 도예 작가이기도 한 건축주가 꿈꿨던 공간인 만큼 크지 않은 규모임에도 전시와 카페라는 기능이 잘 담겨 있는 듯했다. 멋진 건축에 더해진 커피향도 잊을 수 없는 탐방의 추억이다.

다음 탐방지는 울산도서관이다. 요즘은 큰 도서관뿐만 아니라 작은 도서관들도 이용자들의 요구를 잘 담아낸다. 하지만 울산도서관은 규모나 내용 면에서 이런 도서관이라면 자주 올 수 있게 울산에 살고 싶다는 생각이 들 정도였다. 다량의 장서와 편안한 열람이 가능한 넉넉한 공간들이 다양한 연령과 이용객들의 요구에 충분



히 답해주는 도서관이었다. 안정감 있는 각도로 연결된 돌림계단과 투명 엘리베이터를 이용한 수직 이동과 스텝을 활용한 공간계획이 재미있게 되어 있었다. 대공간 열람실에는 닫히지 않는 벽을 세우면서도 액자 형태의 비움을 통해 공간의 구획과 또다른 연결을 만들어주고, 측벽의 깊은 창을 통해 채광을 끌어들이며 자연이 만들어내는 다채로운 하늘색자를 도서관 벽에 걸어주었다. 자유 열람 테이블에 놓인 작은 스탠드와 부드러운 천장 조명은 책 속으로 빠져들기에 충분한 만큼 편안했다.

건축 탐방도 식후경!

점심 메뉴는 비빔밥. 육회가 들어있는 전통 비빔밥부터 울산이라면 역시 빼놓을 수 없을 고래 비빔밥까지, 종류가 다양했다. 늦그릇에 먹음직스럽게 담겨온 비빔밥을 속속 비벼 입속으로 가져갔는데 어우러진 맛



속에 재료 하나하나 본연의 맛과 신선함이 충분히 느껴졌다. 한 톨 밥알도 남김없이 깨끗이 해치우고 원기회복해서 다시 이동했다.

식사를 마치고 찾아간 곳은 문화재로 지정된 동헌과 객사를 풍경으로 두고 있는 울산시립미술관이다. 설계자인 안용대 건축가가 탐방을 위해 시간을 내주었다.

울산시립미술관은 현대건축물임에도 과하지 않은 디자인으로 주변의 문화적 배경을 잘 받아 안았다. 지형을 충분히 활용하여 미술관 관람 동선이 유기적으로 잘 구성되어 있었고 최상층에는 외부 공간과 아이들의 체험 공간까지 잘 갖춰져 있었다. 3개 층의 전시장에는 각기 다른 그림, 조형, 설치미술, 미디어아트 등 다양한 장르의 작품들이 전시되어 있었다. '삶의 풍경:오늘도 안녕하세요'라는 제목의 1층 전시가 유난히 마음에 들었다. 큐레이터의 친절한 설명을 들으며 전시 작품을 감상하는데 잠들어 있던 예술적 감성 세포들이 깨어나는 듯했다.

미술관을 나와 바로 옆에 있는 동헌과 객사 건물도 같이 둘러보았다. 객사 입구 쪽에는 얼마 전 울산 중구에서 만들어 지금은 울산 전역을 대표하는 '울산 큰애기' 캐릭터가 자리 잡고 있었고, 미술관 뒤편 객사 마당에는 마칩 행사가 열리고 있어 사람들로 북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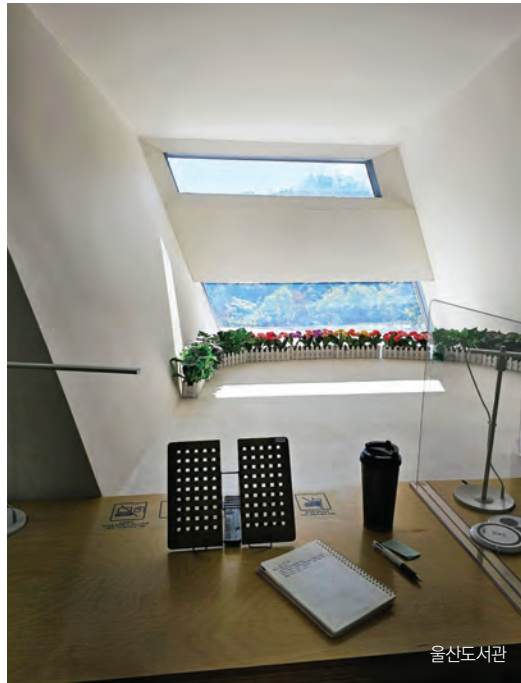


였다. 전체 인원은 아니지만 탐방 식구들 중 행사에 빠져 그 신명을 함께했던 분도 있다.

울산시립미술관 자체 디자인도 외부로의 연결과 전통과 현대의 공존을 위해 노력했다. 그러나 무엇보다 공공 건축물과 주변 주민들이 함께 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하고 과거와 현재의 건축이 잘 어우러질 수 있는 위치였다. 그런 노력을 담은 계획이어서 미술관과 주변이 더 좋은 공간으로 삶에 스며들 수 있었던 거 같다.

버스는 멋진 동해, 울산 바닷가 쪽으로 30분 정도 이동해 젊은 건축가 이기철이 설계한 그릿비 서생점(투 트라이앵글)에 도착했다. 카페 내부는 앞에 펼쳐진 동해가 온전히 카페 안으로 들어와 있다. 카페에 앉아 바다를 바라보고 있으니 실감나는 바다 영상을 상영하는 영화관이 된 듯하다. 두 개의 커다란 삼각형으로 만든 공간은 1층부터 옥상까지 자칫 예각이 만들어 낼 수 있는 공간 활용의 불합리성을 전혀 느낄 수 없는 마법을 보여준다. 건축물의 콘셉트에 맞춰 맞춤 제작한 세모 모양의 테이블, 의자도 그릿비 서생점만의 뚜렷한 개성을 만들어내는 데 큰 역할을 하고 있다.

어느새 시간이 깊어 노을이 지나 싶었는데 금세 어둑어둑해졌고 아쉬운 마음을 추스르고 다시 버스에 몸을 싣고 부산으로 돌아



왔다. 짧은 여정은 단체톡방에 올린 사진으로 하루를 되감기해 보는 포토제닉상 선정으로 이어졌다.

완벽한 가을날이었다!

쌀쌀한 바람으로 어깨가 살짝 움츠러드는 기운이었지만 건축을 사랑하는 이들과 함께했던 흥흥함을 느낄 수 있는 시간이었다. 산업도시라고만 생각했던 울산이지만 돌아본 건축물과 공간, 함께했던 사람들을 통해 사람 냄새, 따뜻한 느낌을 듬뿍 받을 수 있는 일정이었다. 멀지 않은 날 시간을 내서 나지막한 산세와 남해와 다른 느낌의 동해가 있고 사람, 시간, 건축이 잘 어우러진 울산을 다시 한번 더 찬찬히 둘러보고 싶다.

글_하경옥 상지엔지니어링건축사사무소 사업기획본부장



삶의 의미로서의 문학
**2023 6대광역시·제주특별자치도
문학교류제를 다녀와서**



김포시의 서울특별시 편입이 연일 화자되고 있다. 더불어 김해와 양산을 부산에 편입하고자 하는 '메가시티 부산'에 대한 논의도 확산되고 있다. 문학에 있어서 '지역'의 의미는 무엇일까? 문학이 가진 보편성은 각 지역의 특수성을 어떻게 반영하고 있을까? KTX 등 교통 수단의 발달로 전국이 일일생활권이 되었고, 인터넷 등 각종 매체로 인해 실시간으로 소통하는 시대에 각 지역의 특성은 문학의 보편성에

어떻게 기여하고 있는 것일까? 이런 질문들이 꼬리를 문다.

10여 년 만에 부산광역시문인협회의 주관으로 열린 문학 교류제는 같은 테두리를 형성하고 있는 지역의 문인들이 모여서 작품으로 교류하고 '삶의 의미로서의 문학'을 생각해 보는 자리였다. 지역의 문학적 특수성보다는 문학의 보편성에 더욱 방점이 찍힌 자리이다. 11월 15일 수요일 2시 30분, 호메르스호텔에서 열린 개회식에는 부산을 비롯한 6대광역시와 제주특별자치도, 그리고 문학의 종가宗家격인 한국문인협회에서 활동하고 있는 문인들이 모였다.

먼 곳에서 온 문인들을 환영한다는 이석래 부산광역시문인협회 회장의 개회사, "모든 국민이 문학을 사랑하도록 적극 지원하겠다"는 오수연 부산예술문화단체총연합회 회장의 환영사와 축사가 먼저 광안리 바다를 연다.

'바다'가 '바다'라는 이름을 갖게 된 것은 / 이것저것 가리지 않고 다 '받아' 주기 때문이다 / / '괜찮다' / 그 말 한마디로 / 어머니 바다가 되었다

- 문무학(대구) 「바다」 전문

문무학 시조시인의 시조 「바다」를 언급한 심후섭 대구문인협회장의 인사말은 광안리 바다를 더욱 출렁이게 했다. 사투리가 넉출 거리며 서로 다른 억양으로 자신을 소개하는 모습에 문학교류제의 특색이 한껏 발휘되었다.

이번 문학교류제의 두 축은 심포지엄과 시화전이다. 논제에 대한 토론과 작품 전시는 글 쓰는 우리 작가에게 문학적 삶에 대한 깊은 생각을 갖게 한다.

'작가의 두 여행, 글의 길과 길의 글'이란 제목으로 발제에 나선 박양근 교수는 작가의 길에는 '독서와 여행' 두 개가 자리하고 있다고 하며 '작가성'에 초점을 맞추어 발표했다.

"작가는 어떤 사람이어야 할까. 쓰는 작업에 앞서 신이 창조한 삼라만상을 읽을 수 있는, 프랑스 시인 랭보가 말한 건

자_{見者}이고 현자들이 쓴 책을 읽어내는 독자_{讀者}여야 한다. 읽고 생각하고 쓴다는 3다_多의 원리는 생소한 것이 아니다. 자연에 담긴 신의 섭리와 본질을 읽고 인간의 존재성과 상관지어 해독할 때 비로소 현재적 필경사가 된다. 독서는 창작을 위한 준비단계인 여행이고 입서_{入書}의 끝이 출서_{出書}이므로 결국 영혼을 찾는 여행자가 되는 것이다. 그것도 펜과 노트를, 현대식으로 말하면 스마트폰이라는 필경 도구를 갖고 길을 나서는 것이다. 왜 많은 여행자가 낯설고 험한 곳을 마다하지 않고 순례하고 탐험했든가를, 왜 밤새워 책의 세계를 탐닉했는가의 경험을 배워야 한다. 소위 책이라는 활자의 숲속 여행자이고 자연의 언어를 탐색하는 여행자라는 신분을 되찾는 게 필요하다.”

“가서 찾아보고 읽고 적어라”를 강조한 박양근 교수는 “AI”에 대한 염려를 “이 난장판의 세상에서 그래도 진정한 작가는 우리들”이라며 “change or chance” 즉 변화를 기회로 삼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신곡』 『성경』 『데카메론』 『돈키호테』 『일리아드』 『파우스트』 등 풍부한 자료에 대한 해석이 논지를 든든하게 받치는 발제이다. 배기환(부산) 좌장의 주도로 이선근(광주), 심후섭(대구), 엄현옥(인천) 작가의 토론과 객석에서의 질의, 응답 또한 열기를 더했다.

김호운 한국문인협회 회장의 기조강연은 ‘한국문학의 통섭과 그 역할’이다.

“장르의 벽을 넘어 문학을 통섭해야 합니다. 그리하여야 문학을 총화로 이해하고 사랑하게 됩니다. 문학을 존중하고 문인을 존경할 때 독자들도 문학을 사랑합니다. 문학을 자기 장르의 좁은 울타리에 가두지 말고 그 벽을 허물고 통섭의 광장으로 나아가갈 때 더 많은 독자가 우리 문학을 사랑할 것입니다.”



문학적인 통섭을 위해 창작자는 동시에 독자가 되어야 하며 독서를 통해 외연을 넓혀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리고 한국문인협회 수장답게 몇 가지 현실적인 방안을 제시했다. 우선 문학 생태계를 바꾸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노래방에서는 노래 한 곡만 불러도 작사자와 작곡가에게 저작료가 지급되는 현실인데 작가의 창작물도 보호받아야 한다는 것이다. 학교나 공공도서관에서 책이 대출될 때 공공대출료가 작가에게 지급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물론 상한선을 두고 그 이상의 금액은 복지기금 등으로 전환하는 방안까지도 고려하고 있다고 했다. 이것은 국가가 우리의 문학을 제값을 주고 사가도록 하며 창작을 잘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데 기여할 수 있다고 한다.

또한 문학의 통섭을 위해 웹진을 발간하여 필진의 발표수를 늘리고 한국문인협회 방송국을 개원하여 문학의 중앙집권화를 막고 일반 독자를 확보한다는 청사진을 제시했다. ‘베른 조약’에 의거하면 저작권은 자연인만이 가질 수 있으므로 AI를 너무 두려워할 필요도, 확대해석할 필요도 없으며 문명을 효용 있게 사용해야 한다고 했다. “문인이 존경받는 사회를 만들겠다”는 이사장의 다짐이 미더운 강연이다.

다음날 16일 심포지엄은 임종찬 교수의 ‘삶의 의미로서의 문학’으로 이어졌다.

“로고스적 사고로 사회를 선도하려는 글쓰기”, “자신의 결핍을 보충 혹은 나은 방향으로의 완성을 향한 글쓰기”, “사회의 모순을 직시하고 이를 고발하려는 글쓰기” 등으로 자



기주장을 글쓰기로 실현한 철학자들을 소개하면서 임종찬 교수는 다음과 같이 결론을 맺는다.

“인간이 예술을 상대할 수밖에 없는 정신적 기저가 있고, 이것의 실천으로써 공동체적 선의 추구, 또는 합목적인 보다 나은 이상세계의 추구를 위해 문학 활동을 한다고 할 수 있다. 문학은 인간 삶의 결정체이면서 인간 삶을 위한 보강제라는 말을 할 수 있게 된다.”

결국 작품을 완성하는 사람은 작가가 아니라 독자이며 지금 완성한 작품의 감상은 내일이면 다른 작품으로 완성된다고 한다. 내부에 잠복하고 있는 이상세계를 현실의 꿈으로 치환하고자 하는 것은 비단 예술인만의 몫은 아니라고 해석했다. 인간 누구에게나 그의 삶에 열려 있는 것이 예술이고 문학이라는 확대 해석이 가능하다.

김영호(부산) 좌장과 박현오(대전), 장세련(울산), 양전형(제주) 작가의 토론은 ‘문학은 왜 존재하는가?’라는 물음에 더 깊이 들어가는 계기가 되었고 객석의 뜨거운 질의, 응답은 작가 스스로 문학이 무엇인가를 질문하고 대답하는 시간이었다.

시낭송, 축가, 입춤은 문학교류의 장을 더욱 설레게 했고 하모니카, 톱, 색소폰, 팬플루트 연주는 분위기를 고조시켰다. 예술이 하나 되는 순간이다.

반백 년이 훨씬 지난 지금까지도 / 압박봉대를 풀지 못한
영령들이 / 이명처럼 들려오는 포성 소리를 들으며 / 녹슨

군번줄을 이리저리 흔들고 있다

- 배기환(부산) 「유엔평화공원」 부분

심포지엄이 끝나고 유엔기념공원에 들러 현화하고 송도를 거쳐 다대포에 다다랐다. 이번 문학교류제는 부산 다대포고 우니생태길에 전시된 시화전부터 시작되었다. 172편의 시화가 역새와 함께 흔들려 파도를 타고 있다.

나는 한 마리 말을 키우고 살지 / 날마다 갈기를 쓰다듬고
눈 맞추며 / 순하게 기르려고 해 / 맑은 눈을 꿈뻛이며 잘 웃
는 말 / 말을 타고 달릴 때 조심하는 건 가속도 / 칼날처럼
스치지 않기를 뒷발질하지 않기를 / 누군가를 태워 줄 땐 즐
겁고 기쁘게 / 몽클하도록 진정성을 넣어 / 난, 매일 기도해
/ 내 말이 제멋대로 날뛰지 않기를

- 정경해(인천) 「말」 전문

“몽클하도록 진정성을 넣”은 우리의 말이 독자에게 다가감동이 되고 우리 삶의 의미가 되길 기도한다. 헤어져 돌아오는 길 가을비가 내린다. 말과 글이 우리 가슴에 축축이 젖는다.

글_정희경 문학도시 편집장

부산시립미술관의 25년을 돌아보는

과 ^{The Past} 거는 ^{to Have} 줄 ^{a Plot} 거리를
 자 ^{Reveals} 신이 ^{Itself} 갖고 있음을
 드러낸다 ^{to Have}

2023. 9. 26. ~ 12. 17.
부산시립미술관 3층

2024년 리노베이션에 앞서 부산시립미술관 25년의 역사를 기억하기 위한 마지막 기획전시가 열리고 있다. '과거는 자신이 줄거리를 갖고 있음을 드러낸다'(에드먼드 웰스의 저서 『판란드 역으로, 에 수록된 루이스 매넨드의 서문에서 전시제목 인용)는 개관 이래 부산시립미술관이 지향한 방향성과 역대 전시를 보여준다.

부산시립미술관은 1980년대 경제성장, 1990년 문화부 신설 등 국가에서 도시로 문화 부흥의 단위가 변화하는 시대적 배경 속에서 탄생했다. 1992년 건립 계획 수립, 1994년 착공, 1998년 2월 준공, 그리고 바로 다음 달인 3월 개관했

다. 이번 전시는 지역과 세계를 동시에 관장하는 공시적 미술관으로의 요청을 받으며 오늘에 이른 부산시립미술관의 역사를 3개 섹션으로 나눠 구성했다.

첫 번째 섹션 '국가에서 도시로 지방 미술관 개관의 시대'에서는 국제화, 지방분권화와 같은 시대적 전환과 함께 전개된 미술관 건립 과정을 돌아보고 국제영상문화중심지로 거듭나려는 부산시 도시정책 속 지역 미술관으로서의 방향성을 짚어본다. 개관 당시 미술관 최초의 뉴미디어 소장품으로 백남준의 작품 3점을 수집하며 미술관의 정체성을 적



극 표현하고자 했다. 두 번째 섹션 '지역 미술 돌보기'에서는 지역 미술의 고유한 정체성이 무엇인지를 묻고 답하며 부산미술의 정체성을 형성하고 역사를 살펴온 지역 미술관의 역할에 관해 확인할 수 있다. 부산미술 1세대 작가들의 작품을 조사·연구하고 소장품으로 등록했으며 '부산의 작고작가'전 등의 정례전을 개최해 부산 작가 조사와 연구에 힘을 실어 왔다. 마지막 섹션 '변화하는 도시, 미술관의 순응과 대응'에서는 미술관이 자리한 센텀지구의 개발과 변화, 이우환 공간을 거점으로 한 세계 유명작가 전시 유치 등을 다루며, 제도공간이자 문화공간인 미술관이 도시의 변화를 어떻게 바라보고 대응해 왔는지를 살펴본다.



2

전시장에는 88올림픽 기념 판화부터 부산시립미술관의 정체성을 만들어 온 소장품까지 영상, 소리, 사진, 그림 등의 작품이 다수 전시되고 있다. 백남준의 1995년 작인 「소통/운송」, 박은진의 1999년 작 「98가상 스크린(키스)」, 임응구의 1930년 작 「장미」, 박경인의 1990년 작 「희망도」, 안세권의 2008년 작 「부산 파노라마I」, 크리스티앙 볼탕스키의 2000년 작 「코트」 등이다.



3

미술관은 단순한 물리적 공간이 아니라 도시와 시민의 모습과 삶을 예술이라는 창을 통해 담아내는 공간이다. 이번 전시를 통해 부산시립미술관은 그간의 '줄거리'를 정리했다. 리노베이션 재개관 이후, 보다 풍성한 이야기를 안고 돌아오길 바란다.

문의_051)740-2690 / 편집실

1 박경인_희망도, 1990, 캔버스에 유채, 116×273cm, 부산시립미술관 소장 2 크리스티앙 볼탕스키_The Coat, 2000, 코트, 전구, 100×200cm, 부산시립미술관 소장 3 백남준_소통/운송, 1995, 마차, 마네킹, TV 모니터, H205×160×657cm, 부산시립미술관 소장 4 박은진_98가상 스크린(키스), 1999, 캔버스에 아크릴, 181×150cm, 부산시립미술관 소장



4

다양한 세상의 순간을 담아내는 제40회 부산일보 사진동우회 회원전

2023. 11. 17. ~ 20. 부산예술회관 1층 카페



부산일보사진동우회(회장 김정아)가 40번째 회원전을 부산예술회관에서 개최했다. 첫날 오후 5시에 열린 오픈식에는 동우회 회원을 비롯한 예술, 사진계 인사 70여 명이 모여 전시 개최를 축하했다.

1981년 창립한 부산일보사진동우회는 부산일보사가 주

최하는 부일사진대전과 부일국제사진전에서 특선 이상 입상한 작가들의 모임으로 42년의 역사를 갖고 있다. 현재는 51명의 회원이 부산 외 전국에서 창작활동을 펼치고 있다.

1층 카페 공간에 전시된 50여 점의 작품은 저마다 다른 세상의 순간을 담아냈다. 광산 노동자와 아이의 미소가 교차하는 순간이나 유쾌한 문구가 눈에 띄는 벽면처럼 언뜻 평



2



3



4



5

범해 보이는 일상의 한 장면들부터, 해가 뜨고 지는 자연의 섭리와 대자연 속 동물들, 그림 같은 이국의 경관 등 사진가들의 시선은 머물지 않는 곳이 없었다. 다양한 사진 기법의 사용과 드론을 활용해 인간 시계(視界)의 한계를 벗어난 사진도 돋보였다.

김정이 회장은 “올 한 해 여러 곳에서 열정을 불태우신 회원님들의 작품을 선보인 자리”에 찾은 이들에게 감사 인사를 전하며 활발한 활동을 해 나갈 것을 약속했다.

/ 편집실

- 1 유재용_새벽을 연다 2
- 2 최길임_휴식
- 3 강영대_에어쇼
- 4 김정이_마무리
- 5 이상일_먹고·놀자

제32회 부산 대학무용 커뮤니티 예술축제

금정문화회관(금빛누리홀)에서 '제32회 부산 대학무용 커뮤니티 예술축제'(Busan College Dance Community Art Festival 이하 BCDAF)가 10월 27일부터 29일까지 열렸다. 부산, 대학, 무용이라는 단어가 지역소멸의 현실화, 학령인구 감소에 따른 대학의 구조조정, 인문·예술 분야 폐교라는 것이 함께 연상되는 녹록지 않은 상황에서 열린 예술축제이다. 부산은 통계청 2022년 인구주택 총조사에서 인구 330만 붕괴로 지역소멸 대응이 현실화 되고 있는 곳이고 대학은 대학구조조정 사업인 대학특성화 사업(University for Creative Korea)¹⁾, 프라임 사업(Program for Industrial needs-Matched Education)²⁾, 대학기본역량진단 사업³⁾으로 통폐합되거나 폐교되었다. 정부가 막대한 국가 재정을 투입해 대학에 다양한 정책을 실행했지만 감사원 결과 2014년부터 2018년까지 5년간 2조8892억 원을 쏟아 부은 대학 특성화 사업이 재정 투입에 비해 사업성과를 내지 못했다.⁴⁾ 이러한 대학구조조정 사업 과정에서 부산에는 무용학과 4년제는 한 곳만 남았다. 지역 소멸에 대비해 지방대와 지방자치단체 간 연대를 통한 지역균형 발전이 새로운 화두로 제시되는 상황이지만 실효성은 미지수다. 정부가 추

진한 지방대와 지방자치단체 간 연대나 지역균형 발전에 대한 대학의 정책이 지역 수요를 감안하지 않은 특성화 학과 선정으로 지역 일자리와 연계성이 결여되었고, 미래기술을 접목할 인문·예술 분야의 콘텐츠를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간과하고 있기에 대학혁신지원사업⁵⁾ 내 2023년 지방대학 활성화 사업도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최근 부산시가 '2023 대학예술축제주간'⁶⁾을 운영해 대학 연합축제와 비슷한 성격의 대학예술축제를 부활하려는 것이나 2023년의 지방대학 활성화 사업 기본 계획에서 대학-지자체 파트너십 강화로 상생 발전과 동반성장을 추진하는 것이 진행되고 있다. 기초예술 부흥 분위기를 조성하는 상황에서 부산 대학무용 커뮤니티 예술축제가 시의 지원사업 성과 확인용이나 도구가 아닌 상생의 긍정적인 사례가 되기를 바란다. 극장 2층에서 열린 오프닝 리셉션은 축제를 응원하고 축하하는 시간으로 지역사회의 소통과 예술을 보다 폭넓게 전파하고 예술 분야에 대한 정치, 문화 활동을 촉진하고자 하는 주최측⁷⁾ 행사로 짐작된다.

1) 대학이 지역사회의 수요에 기반을 둔 비교우위 분야를 특성화함으로써 대학의 창의적 인재 육성 기능을 강화하고 지역과 동반 성장해 나갈 수 있도록 지원하는 2014년부터 시행되고 2018년 종료된 교육부의 대학재정지원사업 중 하나.
2) 프라임 사업 또는 산업연계교육활성화선도대학 사업은 인문, 예체능계의 정원을 줄이고, 이공계 정원 확대와 학내 구조조정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3) 박근혜정부에서 이뤄진 대학구조개혁평가의 2주기 평가를 대학기본역량진단이라는 이름으로 바꿔서 대한민국 교육부와 한국교육개발원 고등교육연구본부 대학역량진단센터에서 시행, 문재인 정부의 대학구조조정 정책으로 5단계로 평가 대학을 구분하여 미흡한 학교의 예산 삭감, 등록금 자원 제한 등을 논의
4) <https://m.dhnews.co.kr/news/view/179524469133732> '빚돈' 쓴 대학특성화사업 2022. 5. 3

제32회 BCDCAF는 부산에서 유일한 4년제 대학 무용학과인 부산대와 미래융합학과 실용무용트랙(4년제) 신라대 그리고 아동예술무용과(3년제)로 부산여대가 참여했다. 필자는 90학번으로 새내기였던 1990년 당시 제1회 대학무용제 때 무용학과가 6개인 것에 비하면 올해 참여하는 3개 대학의 행보가 앞으로도 쉽지 않음을 알 수 있다. 부산지역 대부분의 무용학과가 폐과된 상황에서 '대학무용제'가 살아남은 것은 그나마 다행이고 근근이 버티는 중이라는 표현이 맞다.⁵⁾

올해 BCDCAF에 참가한 총 15개 작품은 오디션을 거쳐 선발된 학생 작품과 스페셜리스트 교수 작품으로 한 무대에서 공연되었으며 근근이 버틴다는 말이 무색하게 대중적인 것과 작가주의적인 작품이 골고루 춤춰졌다. 우리가 어떤 일을 능수능란하게 할 때 “춤추는 것 같다”라는 말을

한다. 지역사회에서 커뮤니티가 함께 춤을 춘다는 것은 어울림 그 자체로 상호작용하고 관계를 맺어 나가는 것이다. BCDCAF가 안무가 개인적인 시각과 예술적 표현을 존중받는 것 그 이외에 다양한 사회적 이슈나 국제사회의 지속가능발전목표(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SDGs)⁹⁾에도 관심을 열어 지역 산업 수요 등과 연계해 그 수요에 맞는 인재 양성에 깊이 있게 관심을 가지고 지역 사회와 다양한 방법으로 만나 함께 춤출 수 있는 커뮤니티 플랫폼이 되기를 기대한다.

글_함수경 잉스문화예술교육연구소



5) https://uispc.org/community/notice.php?mode=view&no=114&page_num=10&key=&keyfield=subject

6) <https://m.news.nate.com/view/20231118n02643?mid=m03&list=recent&cpd> 부산시, '대학예술축제주간' 운영 기초예술 부흥 2023.11.18

7) 부산대학무용연합회

8) <https://www.busan.com/view/bstoday/view.php?code=2023102416175252693> 부산 춤의 현재와 미래 '대학무용 축제' 부산일보 2023.10.24

9) 지속가능발전목표(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SDGs)는 2016년부터 2030년까지 새로 시행되는 유엔과 국제사회의 최대 공동목표이다. 세계가 직면한 빈곤, 불평등, 기후위기, 폭력 등과 관련한 문제는 특정 집단 및 국가만의 노력으로 해결되지 않기 때문에 모든 국가와 이해 당사자 그룹의 참여로 연대가 필수적이다. 전세계가 함께 목표를 정하고 지속가능발전을 실현하기 위해 유엔과 국제사회가 목표를 정했다.

고정화 피아노 독주회 아버지의 예술혼을 이어 음악의 따스함을 전하다

고태국 음악비 건립 15주년 기념 '고정화 피아노 독주회'가 지난 11월 7일 저녁 7시 30분 영화의전당 하늘연극장에서 있었다.

고태국 선생은 부산의 1세대 음악가로 경북 고령에서 태어나 일본에서 중등교육을 받고 현재 동경음악학교의 전신인 동양음악학교 본과를 졸업했다. 1944년부터 대구사범학교에 재직했으며, 1946년 경남중학교 강당에서 가진 독창회를 계기로 부산과 인연을 맺었다. 1947년부터 동래중학교, 금성고등학교, 동래여자고등학교 교사를 거쳐 1955년 국립 부산사범대학 음악과장으로 부임하여 부산 최초의 음악 교수가 되었다. 고정화 선생은 고태국 선생의 딸로 부산교육대학교 교수를 역임하고 제14대, 15대 부산 음악협회장을 지내고 현재는 한국피아노학회 상임고문과 부산 피아노연주가클럽 명예회장을 맡고 있다.

고태국 선생의 음악비는 지난 2009년 초음등 어린이대공원 학생교육회관 앞에 건립되어 현재도 그 모습을 유지하고 있다. 그동안 매년 11월이면 고태국 선생의 제자와 가족들, 원로 음악인들이 음악비 앞에서 추모식을 가져왔으며 2018년 고태국 음악비 건립 10주년 기념 음악회를 가졌었다. 이번 고정화 선생의 독주회는 어느 해보다 더 특별한 아버지에 대한 그리움과 사랑을 음악으로 헌정하는 시간이 되어 피아니스트들은 물론 원로 음악인들을 비롯한 전 세대 음악가들의 관심을 모았다.

79세의 피아니스트가 들려주는 「슈만-리스트의 헌정 R.Schumann/F.Liszt. Widmung」과 창작 위촉곡인 김보현의 「그림자」(조현)로 연주가 시작되었다. 김보현의 「그림자」는 이번 공연을 위해 고태국 선생의 발자취를 더듬어 작곡된 추모곡으



로 부모와 자식의 연(緣)은 그 경계가 끊어진 듯하면서도 이어져 모호하게 구분 지을 수 없는 어려움을 그림자에 빚대어 무채색의 묵직하면서 상상력을 동원한 형상들을 퍼즐처럼 이어진 음악으로 표현했다. 두 현정곡은 심오하고 차분한 가운데 깊은 울림이 무대와 객석을 감동으로 메웠다.

고태국 선생의 외손녀인 바이올리니스트 오난숙의 특별연주가 이어졌다. 그는 미국 존스홉킨스대학과 피바디음악대학 대학원을 졸업하고 뉴욕 카네기홀과 러시아 상트페테르부르크 국립 카펠라 홀 등 해외에서 화려한 연주경력을 지녔다. 이날은 차이콥스키의 서정적인 바이올린 곡 「멜로디 Op.42」를 따뜻하고 부드럽게 연주한 후 낭만주의 바이올린의 대가 파브로 사라사테의 「서주와 타란텔라 Introduction and Tarantella Op.43」을 열정적으로 연주해 큰 갈채를 받았다.

다시 고정화 선생의 무대로 슈베르트 「즉흥곡 Impromptus D.899 Op.90」 중 두 곡 〈No.2 Allegro in Eb Major〉와 〈No.3 Andante in Gb Major〉를 들려주었다. 슈베르트의 이 두 곡을 연주함은 생전에 아버지 고태국 선생이 「겨울 나그네」와 「아름다운 물방앗간 아가씨」 전곡을 부를 정도로 좋아하는 작곡가의 작품이기에 연주 목록에 담았다. 화려함과 격정을 한없이 뽐어낸 즉흥곡 2번을 잔물결이 흔들리듯 리드미컬하게 연주함에 이어 풍부한 선율선이 드러나는 3번 즉흥곡을 가사 없이 노래하듯 자유롭고 아름다운 멜로디로 노래 불러 주었다.

마지막 대미를 장식할 쇼팽의 「발라드 1번 Ballade No.1 Op.23 in G minor」과 「3번 Ballade No.3 Op.47 in Ab Major」을 남겨 두고 필자는 물론 객석에서의 설렘이 느껴졌다. 쇼팽 발라드 1번은 피아니스틱한 면이 강한 레퍼토리로 쇼팽의 작품 중 가장 드라마틱하면서 무용적인 요소가 강해 난이도가 높고 깊은 에너지를 요하는 작품이다. 하지만 생전에 고태국 선생께서 피아노 곡 중에서도 너무나 아름다운 곡이라고 말씀하셨던 게 깊이 마음에 남아 고정화 선생이 연주회에서 처음 선보이게 되었다. 선생은 발라드 1번에서 영웅적이고도 비극적 선율 속에 담긴 드라마틱함을 남김없이 드러내었고 발라드 3번에서는 경쾌한 우아함을 드러내는 대비를 보여 주었다.

두 곡의 발라드가 연주되는 동안 머릿속을 스치는 한 가지 생각은 아버지의 예술혼을 이은 깊은 감성과 그리움이 고정화 선생으로 하여금 쉽지 않지만 강한 도전의 원동력을 갖게 했다는 것이다. 누구나 나이가 들고 백발이 된다 해도 부모는 기대고 싶은 울타리이고 의지하고픈 등대 같은 존재다. 고정화 선생의 독주회는 뼈와 살을 나눠 주고 재능으로 인생을 이끌어 주신 아버지께 대한 감사와 사랑이 산수(艸叢)를 바라보는 노장의 피아니스트가 열정을 품어내고 날 선 기량을 가진 젊은 연주자들에게서 볼 수 없는 음악의 따스함과 고매함을 느끼게 하였다.

글. 김윤선 음악평론가

아코디언을 연주하고 있는 생전의 고태국 선생 모습



제25회 부산독립영화제 스케치

2023. 11. 16. ~ 20. 영화의전당 외



- 1 <배우님은 무슨 역할을 하고 싶으세요?> 스틸컷
- 2 <빠> 스틸컷
- 3 <김밥이(에요)> 스틸컷

부산에는 오직 부산이 만들어 내는 영화만을 상영하는 영화제가 있다. <메이드 in 부산>이라는 이름으로 시작하여 부산지역 독립영화인들의 산실이자 지지와 응원의 장으로 기능하고 있는 부산독립영화제가 어느덧 25주년을 맞이하였다. 11월 16일부터 20일까지 진행된 제25회 부산독립영화제의 이모저모를 살펴보고자 한다.

이번 부산독립영화제에는 25주년에 걸맞게 다양한 프로그램들이 준비되었다. 먼저 영화제를 지행하고 있는 프로그램들을 소개해 본다. 부산독립영화제의 근간인 '메이드 in 부산' 섹션은 말 그대로 부산을 주소지로 둔 감독이나 제작사의 작품만을 대상으로 하는 경쟁 섹션이다. 그다음 부산 영화의 현재와 과거를 조망하는 '스펙트럼 부산'이 있다. 다른 지역의 작품들을 초청하는 '로컬 투 로컬', 감독 1명의 세

계를 집중 조망하는 '딥 포커스', 독립영화의 지형을 탐험하는 '포럼-인디크라시' 등의 프로그램이 어김없이 제25회 부산독립영화제에서 진행되었다.

앞서 썼듯, 올해는 25회이기에 특별 프로그램들이 많이 있었다. 지역에서 영화나 영화제를 만드는 이들의 고민을 나누는 특별 대담 및 특별포럼 행사, 시민들이 지역 영화배급사와 함께 영화배급 업무를 체험하고 이를 발표하는 자리인 '내일의 극장에서' 등 다양한 영역에서의 행사도 있었다. 하지만 무엇보다 부산독립영화제와 발맞추어 발간되는, 부산 영화를 응원하고 지지해 주는 버팀목인 비평 잡지 『인디크리틱』의 20주년 기념행사는 자세히 언급하고 싶다. 2004년부터 시작된 『인디크리틱』은 오직 부산 영화를 대상으로 부산지역 평론가들이 쓴 비평 잡지로, 부산독립영화제와 함께

부산지역의 영화문화를 만들어내고 지속하는데 큰 힘이 되었다. 『인디크리틱』의 역사를 함께 나누고 미래를 이야기하는 자리는 그 자체로 소중한 현장이었다.

영화제에 대한 글이니 영화에 대한 글을 빼먹을 순 없었다. 이번 영화제에 눈에 띄는 몇몇 작품들을 소개하고자 한다. 경쟁 섹션에만 16편(단편 14편, 장편 2편)과 과거와 현재를 아우르면 총 46편의 부산 영화들 중에 단연 돋보이는 감독이 있다. 이번 영화제에서 무려 3편이나 출품한 박천현 감독이 그렇다. 지난 호(『예술부산』 2023년 10월호)에서 인터시티 영화제를 소개하면서 짧게 나온 <메이 앤 준>을 비롯해서 <바이킹> <배우님은 무슨 역할을 하고 싶으세요?> 등 2023년 한 해에만 3편을 찍으며 폭발적인 활동력을 보여주는 박천현 감독의 작품은 유려한 촬영과 함께 영화와 현실의 경계를 넘나드는 특유의 영화관이 특징이다. 개막작으로도 선정된 <배우님은 무슨 역할을 하고 싶으세요?> 역시 마찬가지로 배우들이 각자의 역할을 연기하면서 배역과 실제 자신의 경계를 뒤섞는 모습을 보인다. 그로 인해 발생하는 독특한 리듬은 박천현 감독의 영화가 가지고 있는 큰 힘이다.

인디 정신에 가장 부합하는 제작 방식을 지닌 이하람 감독의 작품도 주목할 만하다. 그는 영화와는 전혀 무관한 삶을 살다가 작년에 불현듯 <기행>이라는 작품을 들고 등장했다. 첫 영화부터 장편을 제작하여 단번에 부산국제영화제까지 선정되어 영화 활동을 이어 나가고 있는 이하람 감독은, 배우를 제외한 모든 부분을 혼자 하는 것으로 잘 알려져 있다. 이번 영화제에서는 신작 <흙으로 돌아가리라>를 선보였는데, 여전히 고수하고 있는 1인 제작 방식과 특유의 몽환적인 분위기를 확인할 수 있었다.

이번 영화제에서 반드시 언급하고 싶은 작품과 감독이 있다. 부산에서 왕성한 활동을 하다 갑작스러운 건강 악화로 투병 생활을 하다 돌아온 신나리 감독이다. 투병 직전 완성



한 영화 <뽀>는 이미 작년 부산독립영화제에서 상영이 되었지만 올해 특별 상영으로 신나리 감독과 '함께' 영화제를 다시 찾았다. 일본 역사학자 차타니 슈로쿠와 재일교포 2세 사업가 하정웅으로 살펴보는 일본 강제 징용의 역사와 그들을 향한 애도와 추모의 인사는 역사를 대하는 개인의 태도를 담담히 보여주는 영화다. 그동안 역사의 피해자라고 일컬어졌지만 이름조차 호명되지 않았던 이들의 이름을 불러주는 것. 이 사소하고 소박한 행위가 사실 가장 핵심적인 행위임을, 영화는 잊지 않는다. 고령임에도 여전히 활동을 멈추지 않는 두 사람처럼, 신나리 감독 또한 쾌차하여 다시 활발히 활동하는 날을 고대해 본다.

이렇듯 제25회 부산독립영화제는 부산 영화의 과거와 현재, 미래가 공존하는 축제였다. '영화의 도시, 부산'하면 대부분 부산국제영화제를 떠올리겠지만, 부산독립영화제도 마찬가지로 오랫동안 지역을 지키며 부산 독립영화 문화를 만들어왔다는 사실을 잊지 않았으면 좋겠다. '영화의 위기'라고 말하는 시대를 맞아, 여러분들의 관심과 성원이 더욱 필요한 요즘이다.

글_김민우 영화평론가

사제동행 師弟同行 프로젝트VI '춤-바라보다'

2023. 12. 14. 오후 7시 30분 부산시민회관 대극장

부산여자대학교 BWC댄스컴퍼니 사제동행 師弟同行 프로젝트 VI '춤-바라보다' 공연이 올해도 변함없이 시민들과 만난다.

BWC 댄스컴퍼니는 부산여자대학교 아동예술무용과 교수들과 졸업생 그리고 재학생들로 구성된 춤 진동단체이다. 한국춤과 외국춤 그리고 스트릿댄스에 이르기까지 장르별 세분화가 되어있어 각각의 전문성을 가지고 활동하며, 때로는 융·복합된 공연으로 통섭을 이루고 춤의 트렌드를 리드하기도 한다. 올해는 '춤-바라보다'를 콘셉트로 스승과 제자, 선배와 후배가 '춤'이라는 같은 목표를 바라보고 서로가 서로를 격려하며 이끌어 새로운 춤 언어를 만들어 가는 과정을 엮어내고자 한다.

6회째를 맞은 올해는 전통춤의 창조적 계승과 장르 간 융복합, 컨템포러리 댄스 및 다양한 춤언어 개발을 실천한다. 한국춤으로 구성한 1부는 부채춤을 각색한 <부채-光(光)>과 한국창작춤인 <生死(생과 사)> 그리고 <너슬-風(風)>을 선보인다. 외국춤 및 실용무용으로 프로그램을 구성한 2부는 현대무용 <They Live>와 스트릿댄스 작품 <흔적> 그리고

<Mirror>, 벨리댄스 작품 <Legend of pop>, 플라멩코 춤이 공연될 예정이다.

부산여자대학교 무용전공 교수인 김신영(BWC댄스컴퍼니 대표), 서덕구(2017 부산원아시아페스티벌 워너원 댄서 안무 및 총감독), 하주은(현대무용단 '자유' 단원), 김지현(몽키즈 댄스스튜디오 대표역임), 신유정(한국 워드벨리댄스 협회장), 김유진(Slag d Street vol2. 2위 수상), 이소영(베트남 Venus WAACK Runner Up), 박수화(렐퍼 Jessi-Gum 안무 작업) 등의 교수가 안무와 출연을 맡았다. 또, 객원출연에 현대무용단 [자유] 단원이자 강유진 [워드무용단] 부단장, 퓨전플라멩고 [옴팡]을 비롯한 김해성무용단 및 재학생 50여 명이 함께 공연을 펼친다.

연출 및 예술감독을 맡은 김해성 학과장은 '춤을 사랑하는 부산 시민 모두를 이번 공연에 초대한다'면서 '예술을 통한 희망의 메시지를 제공받고, 스승과 제자가 한마음으로 연구해 나아가는 사제동행의 뜻깊은 공연에 동참하여 모두가 행복하게 2023년을 마무리하길 바란다'며 많은 관심과 성원을 당부했다.

문의_051)850-3261 / 편집실





한국인보다 더 한국을 사랑한 리처드 워트콤 장군 조형물 건립

6·25전쟁 당시 미 육군 제2군수기지사령관을 지낸 리처드 워트콤(1894-1982) 장군의 조형물이 남구 평화공원에 조성되고 11월 11일 제막식을 가졌다. 한국인보다 더 한국을 사랑한, '전쟁고아의 아버지'로 불리는 그를 기리기 위해 시민들이 힘을 모은 결과다.

워트콤 장군은 유엔 회원국 장병 등 2,300여 명이 묻힌 유엔기념공원의 유일한 장성으로 이는 “나 죽으면 한국에 묻어다오”라고 밝힌 유언을 따른 것이다. 1953년 한국에 부임한 그는 피란민들이 모여 살던 영주동 일대에 초대형 화재가 번져 판잣집 등 도시가 불바다가 됐을 때 직권으로 군수물자를 풀어 천막촌을 짓고 입을 것, 먹을 것을 이재민에게 나눠줬다. 이후 군법회의에 회부됐지만 “전쟁은 총과 칼로만 하는 것이 아니다. 그 나라 국민을 위하는 것이 진정한 승리”라고 말한 것은 유명하다.

조형물 조성은 2022년 11월 11일 워트콤 장군이 국민훈장 무궁화장 추서받은 것을 계기로 ‘워트콤 장군 조형물 건립을 위한 시민위원회’가 발족하며 시작됐다. 동상 건립 목표액 3억 원을 시민 모금만으로 8개월 만에 조기 달성해 의미가 깊다. 조형물은 장군과 전쟁고아 5명을 형상화한 청동상과 장군의 업적을 소개하는 글과 성금을 낸 시민 18,359명의 이름이 새겨진 배경석으로 구성됐다.

메리놀병원 건립으로 의료시설을, 부산대 캠퍼스 건립으로 교육환경 조성에 팔을 걷어붙였고 전후 부모 잃은 아이들을 돌본 장군의 조형물은, 전쟁이 끝나지 않은 이 시대에 깊은 울림을 준다.

문의_051)901-1451 / 편집실



차간호의 사람들

항상 그렇듯 동이 뜨기 전

그물을 잔뜩 실은 마차를 끌고 호수 달려가는

말들의 거친 숨소리와 발굽 소리가 들리면서 촬영은 시작되고

저녁노을이 호수의 얼음 위로 깔릴 때쯤 하루의 촬영은 끝이 난다.

얼음 호수 위에서 혹한의 추위와 싸우면서 살아가는

차간호 사람들의 삶을 카메라에 담기 위해

그 넓은 호수 위를 온종일 돌아다닐 때는

온도계에 찍힌 영하 30도 이하 날씨들은 그저 숫자일 뿐이었다.

차간호 촬영을 여러 차례 다녀왔지만,

못 다 찍은 사진에 대한 아쉬움과

코로나 시기 만나지 못했던 그들에 대한 그리움이 남는다.

그 아쉬움과 그리움을 채우려

나는 또 차간호를 찾아가려 한다.

글 사진_나금주 부산사진작가협회 회원







* 차간호는 중국 지린성에 위치한 호수다. 영하 40도를 오르내리는 혹한 속에서 2,000년 전통방식의 고기잡이로 널리 알려진 곳이다.

부산, 에세이로 피다 커피 이야기를 듣다





싸구려 커피를 마신다
미지근해 적잖이 속이 쓰려온다
녹녹한 비닐 장판에
발바닥이 짝 달라붙었다 떨어진다
이제는 아무렇지 않아

- 장기하의 노래 〈싸구려 커피〉 일부

암울한 청년 세대를 능청스럽게 흥얼대는 장기하의 냉소적인 목소리를 듣는다. 나도 종이컵에 믹스커피를 한 잔 타서 후후 불며 같이 마신다. 물론 나는 신중현의 “커피 한 잔을 시켜 놓고 그 대 올 때를 기다려 봐도 웬일인지 오지를 않네 내 속을 태우는구려~”라는 노래를 듣고 자란 세대이지만, 개성과 가수 장기하의 랩인지 록인지 이야기인지 모를 익살스러운 가사와 달짝지근한 ‘싸구려 커피’와의 조합은 언제나 찰떡궁합이다.

오늘도 아침밥 대신 커피로 하루를 열었으니 자정까지 두어 잔을 더 마실 게 틀림없다. 비단 나만 그럴까. 요즈음은 밥심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커피심으로 견딘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가 되었다. 심지어 커피를 섭취하는 횟수가 배추김치나 쌀밥보다 많다고 하는 이들도 늘고 있다. 예전에는 “식사하셨어요?”라는 인사말을 주고받았다면, 지금은 “언제 커피나 한잔합시다”라는 대화가 일상화되었다. 나 또한 이다음에 죽으면 제사상에 어동육서로 줄지은 음식 대신 좋아하는 커피 한 잔과 장미꽃 한 다발만 올려 달라고 미리 딸에게 알려두었으니 커피의 위력은 사후까지 발휘될 태세이다.

내친김에 미루었던 ‘국제커피박물관’을 가보기로 한다. 가는 길 내내 골목이나 도로 곳곳에 다방, 커피숍, 카페, 커피하우스 등 커피 전문점 간판이 술하게 내걸렸다. 가히 커피숍 전성시대이다. 현대인은 커피 소비로도 자신을 나타내는 것이다. 어디서 커피를 마시는지, 어떤 커피를 애호하는지, 누구와 함께 마시는지... 커피가 개인의 정체성을 확인하는 수단이 되는 것이다. 그러나 무엇보다 커피는 분위기다. 밖에서 보더라도 감성 넘치는 카페에 더 오래 눈길이 간다. 도착지인 커피박물관도 폐역이 된 부산진역을 탈바꿈시켰으니 의미로운 장소가 되겠다.

이십 년 전만 하더라도 기차가 오가던 곳이니 저 멀리서부터 기적 소리라도 울려 퍼지는 듯하다. 전시된 이천여 점의 커피 기구에 짧은 탄성이 저절로 나온다. 커피에 조예가 깊은 한 시민이 전 세계를 돌아다니며 수집한 커피 기구들을 기증하였다고 하는데 대단한 안목이다. 커피의 향미에 따라 적절히 섞어서 새로운 커피로 재창조하는 블렌딩과 생두에 열을 가하는 로스팅을 거쳐 분쇄된 커피를 물과 함께 끓이는 달임식, 여과 장치에 넣고 거르는 여과식, 뜨거운 물에 담가

우리는 우림식, 압력을 가하는 가압식 등의 추출 방식을 시대별로 잘 전시하였다.

커피 추출 기구들도 터키쉬, 보일링, 비긴, 사이펀, 네오폴리탄, 퍼컬레이터 등 생경한 것이 많다. 모양들도 램프를 닮은 것, 오르골 모양, 양동이를 닮은 기구, 일본에서 만들었다는 기차 형태 등 다양한데, 에티오피아에서 가져온 절구통 분쇄기 앞에 발길이 오래 멈추었다. 내가 마신 잇을 수 없는 커피가 생각났기 때문이다.

콩팥 이식 수술을 한 그녀의 집은 단출했다. 가족 모두 떨어져 혼자 지낸 지도 오래되었지만, 당뇨환자라는 상황이 주변을 더욱 간소하게 만들었다. 그 외로운 사람에게 찾아갔으니 얼마나 반가웠을까. 대뜸 커피를 좋아하느냐고 물었다. 선물 받은 원두 콩이 있다고 하였다. 아무렴, 한터위를 식혀줄 아이스크림 한 잔이면 된다고 무심코 말한 것이 화근이었다. 식이요법을 하는 그녀의 집에 커피머신이 있을 리가 만무했다. 그녀가 선택한 방법은 마늘 짙는 절구통이었다. 나는 아연하였으나 그날 열서너 평의 작은 아파트를 가득 메운 헤이즐넛 향기는 어느 과일 향과 꽃 향보다도 향긋했다. 십여 분간 절구통에 짙은 커피 가루를 체에 걸러 얼음을 띄워 낸 냉커피 한 잔, 어찌 그 맛을 짧은 혀의 감각으로만 평가할 수 있으랴.

아프리카 에티오피아의 고원인 카파 지방에서 처음으로 커피를 발견했다는 설화가 전해진다. 이천 년도 훨씬 전에 염소를 치는 칼디라는 목동 소년이 있었다. 염소들이 평소와는 다르게 춤을 추듯이 활기차게 논다는 것을 느끼게 되었는데 자세히 보니 나지막한 나무의 붉은 열매를 염소들이 부지런히 따먹는 것이었다. 소년은 자신도 그 열매를 따 먹어 보았더니 맛도 달콤한 것이 잠시 후에는 정신도 맑아지는 것이었다. 이후 이 나무 열매가 피로를 풀고 심신에 활력을 되살아나게 한다는 사실을 알아내고 급격히 퍼져나가게 되었다는 이야기다.

칼디 이야기가 사실이든 아니든 커피 열매를 발견한 자에게 현대인이 경의를 올리는 것은 당연한 일. 돈이 없어도 커피는 사 마시게 된다는 젊은이들과, 일터와 가정이라는 복잡한 일상으로부터 해방되어 나만의 공간을 찾아 앉을 수 있는 곳도 모두 커피가 있어 가능한 일이다. 절차가 복잡한 차와 정신을 혼미하게 하는 술은 일과 병행하기 힘들지만, 커피는 일할 때도 잘 어울리는 음료이며 술과 달리 정신을 깨어있게 만든다. 심지어 '워킹 커피'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걸어 다니면서도 마실 수 있다. 그들은 왜 그렇게 커피에 열광하는가. 커피를 마실 때를 생각해보라. 신분이 나 지위나 나 자신까지도 잇을 수 있을 만큼 여유를 가지게 해주는 것이 커피이다. 그러니 커피를 두고 프랑크 작가 탈레랑이 "악마와 같이 검고, 지옥 같이 뜨겁고, 천사와 같이 순수하고, 키스처럼 달콤하다"고 한 말에도 수궁이 간다.

잘 알다시피 한국의 커피 역사도 백 년이 지났다. 미국으로 유학을 다녀온 유길준의 저서인 『서유견문록』(1885)에 우리나라 최초의 커피에 관한 이야기가 있다. 그는 이 책에서 "우리가 송농을



마시듯이 서양인들은 커피를 마신다”라고 소개하였다. 물론 그 이전에 조선 사절단으로 북경에 간 연암 박지원 일행이 커피를 경험했고, 이후 조선에서 커피가 유행했음을 커피마니아로 유명한 고종황제 일화로 전해지고 있다.

고종은 을미사변 후 아관파천을 하여 러시아 공사관에 일 년간 머물면서 커피 맛에 익숙하게 되었다고 한다. 당시 커피 시중을 든 사람이 독일계 러시아인 여성 손탁이었다. 그녀는 나중에 우리나라 최초의 커피 전문점인 ‘손탁호텔’을 운영했고, 고종은 덕수궁으로 돌아와서도 커피를 즐겼는데, 서양에서 온 탕국이라 하여 ‘양탕(洋湯국)’이라 불렀다. 물론 이 때문에 역관이 고종을 암살하려고 커피에 독약을 탄 커피 독살 사건도 발생했다. 다행히 고종이 평소 마시던 커피와 향이 다를름을 눈치채고 위기에서 벗어났다는 기록이 남아있다.

근대에 들어서는 유행의 선두주자였던 모던걸과 모던보이가 경성의 소비문화를 주도하였다. 매일신보 1911년 6월 7일자 신문광고인 ‘종로 어물전 7방, 부인다육 박정에 고백’만 보더라도 “한번 구경하시오. 본 다육에서 동서양 각종 과자와 모과수와 전복과 소라와 아이스크림과 사이다 각종 차도 구비하옵고 청소도 정결하오니 여러 신사와 부인은 찾아오시면 편리토록 수응하겠사오니 한번 시험하심을 천만 바라나이다”라고 했으니 바야흐로 커피의 시대는 급물살을 타게 된다. 변화가마다 제비, 봉선화, 낙랑, 마돈나, 모나리자 같은 다방의 수요가 급증하여 오늘날 스타벅스, 할리스커피, 카페베네, 이디야, 투썸플레이스 등 수없이 많은 커피 전문점을 이어오게 되었다.

이런저런 생각을 하는 동안 전시된 에스프레소 커피 기구 앞에 섰다. 요즘은 내가 가장 즐겨 마시는 커피다. 저 작은 잔의 커피맛을 제대로 알게 된 것은 지난 여름 스페인 여행이 없었다면 불가능했을 것이다. 지중해가 보이는 네르하해변의 작열하는 태양 아래에서 마신 에스프레소 룡고 한 잔, 가히 커피의 심장이라고 부를 만했다. 이제 커피 공부를 제대로 했으니 달짝지근하며 쓰고도 아린 에스프레소 맛을 찾아 맞은편 커피 전문점으로 발길을 돌릴 시간이다.

글사진_김정화 수필가

한국 발레는 이미 세계적인 수준에 다다랐다. 국제 콩쿠르에서 다수의 수상자를 배출했으며 세계 유수의 발레단에서 주역으로 활동하는 무용수도 많다. 그러나 시선을 국내로 돌려보면 한국 발레계의 현실은 그리 녹록지 않다. 매년 수많은 발레 전공자들이 배출되지만 그들을 위해 준비된 무대는 빈약하기만 하다. 더욱이 고정 급여를 받고 활동하는 무용수는 극히 일부일 뿐이다. 지역 발레계는 더 열악하다. 우리 삶에 꼭 필요한 예술이지만, 예술가들의 삶은 지난하기만 하다. 지역에서 30여 년간 발레단을 운영하고 있는 [부산시티발레단] 박현주 대표와 단원들의 이야기를 통해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발레를 하고 있는, 해야 하는 그들의 이야기를 옮겨 본다. (편집자 주)

공연은 발레단의 존재 이유이며 관객과의 약속

1990년 대학 졸업 후 무용공연 발표를 하면서 무용단 활동을 시작했습니다. 대학 다닐 때도 작품 만드는 걸 좋아했기에 동문발레단에서 안무는 지속적으로 하고 있었습니다. 해외 나갈 일이 있을 때는 다양한 음반을 많이 구입합니다. 음악은 무용에 있어 작품의 질감, 이미지, 에너지 등을 구현하는 중요한 요소이기도 하지만, 무대에서 무용수들의 우아한 몸짓과 멋진 음악을 들려주고 싶은 저의 바람이 이뤄질 때면 스스로가 행복해지기도 해서입니다. 공연이 끝나고 삶의 희로애락이 담긴 몸짓과 음악의 절묘한 만남으로 완성한 멋진 무대였다는 관객들의 평이 이어질 때면 감사한 마음이 들기도 합니다.

[부산시티발레단]은 1996년 제1회 박현주발레공연을 무대에 올리면서 [박현주발레단]으로 본격적인 출발을 알렸습니다. 창작작품으로 부산뿐만 아니라 울산, 마산에서도 공연을 이어갔습니다. 조금이라도 젊을 때 창작활동을 하고 나이가 들면 클래식을 해야겠다고 생각하고 있었기에 지

난 30여 년간 아쉬움 없이 창작에 매진했고, <깊시의 여행> <스카이> <동행> <하얀종소리> <블랙&화이트> <여명> <추억속으로> 등등 다른 단체에 비해 부산시티발레단이 보유한 창작작품은 많은 편입니다.

1999년에는 [박현주 Wing Dance Company]로 단체명을 변경했습니다. 기억을 돌이켜보면 [박현주 Wing Dance Company] 때 가장 활발하게 창작활동을 했던 거 같습니다. 2015년에는 한-러교류전을 계기로 [박현주 Busan City Ballet Company]로 단체명을 변경하고, 지금은 제 이름을 빼고 [Busan City Ballet Company(부산시티발레단)]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코로나 이전 [부산시티발레단]은 가까운 경남을 포함해, 해외공연 및 부산무용협회 공연 등에 빠짐없이 참가하는 등 1년에 10~12회가량 공연을 했습니다.

지역에서 활동하는 발레단 대표로서 적지 않은 활동에도 불구하고 발레단 운영은 늘 힘들기만 합니다. '지역문화예술에 대한 지원'과 '창작기반 조성'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부산



문화재단에서조차 지원금 받기가 요원하기만 합니다. 지원금 선정에서 탈락하는 단체 입장에서는 심의위원들이 자기 식구들 챙기기에만 급급한 게 아닌가 여겨질 때가 많습니다. 공연 수준이나 대관 여부도 확인되지 않은 상태에서 몇 해 동안 같은 단체가 선정될 때는 사실 의문이 들기도 합니다. 그나마 적은 예산이라도 지원을 받게 되면 조금이나마 마음이 가벼워지지만 그러지 못한 경우가 대부분이라 그럴 때는 회의감에 빠질 때도 있습니다.

공연은 발레단의 단순한 예술활동이 아니고 공연을 기다리는 관객과의 약속이기도 합니다. 약속을 지키기 위해 저는 자부담으로 공연 비용을 충당합니다. 작품을 무대에 올리는 사람들은 다 같은 마음이겠으나 공연은 하면 할수록 더 잘하고 싶고 더 좋은 작품을 만들어 관객과 소통하고 싶어집니다.

발레단을 운영하면서 저는 요즘 말로 '멘붕'을 경험하기도 했습니다. 미리 선정된 단체가 있음에도 아닌 척하며 들러리로 부산시티발레단을 무대에 세운 행사도 있었고, 또 구두 계약을 하고 오디션을 여는 등 공연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부산팀이라서 안된다며 공연 취소 통보를 받기도 했습니

다. 지역 예술가에 대한 부산 공연장의 홀대라는 생각입니다. 그나마 특별히 홍보하지 않아도 부산시티발레단의 공연을 보러와 주는 고정 관객들이 있어 위안이 됩니다.

요 몇 해는 클래식 공연을 했는데, 2023년 <돈키호테> 공연 때는 첫날 공연을 본 관객이 다음날 친구들과 재관람을 오기도 했습니다. 관객들의 호응에 힘입어 어려운 환경에서도 매년 공연을 준비할 수 있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박현주 부산시티발레단에서 [부산시티발레단]으로 단체명을 바꾼 것은 나름의 의도가 있습니다. 언제가 될지는 모르지만 제자나 혹은 후배가 이어가기를 바라는 마음에서입니다. '박수칠 때' 현장을 떠난다는 게 말처럼 쉽지 않음을 많이 봐왔기에 모범이 되고자 합니다. 부산을 한국의 제2의 도시라고는 하지만 시립무용단을 제외하고 부산에는 현대무용단이나 발레단 하나 갖춰져 있지 않습니다. 부산에 오페라발레단 창단 소식이 전해지는 이즈음 기득권을 내려놓고 서로 격려하고 아끼는 마음가짐으로 부산이 공연하기 좋은 도시가 되길 바라봅니다.

글 박현주 부산시티발레단 대표

지역 발레단의 활발한 활동을 기대하며

대학생 때부터 [부산시티발레단]에 입단하여 다양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클래식 작품은 물론 다른 장르와 결합한 창작작품에 참여하면서 발레가 이렇게 다양한 형태로 창작이 가능하다는 것을 배웠고 그만큼 발레의 매력에 더욱 푹 빠지게 되었습니다.

박헌주 단장님이 안무한 좋은 작품들이 너무 많아서 하나만 꼽기 힘들 정도인데 저에게 있어 최고의 작품은 2023년 무대에 올린 <돈키호테>입니다. 이 작품은 부산시티발레단만의 스타일로 재해석한 전막 발레 작품으로 신나는 음악과 함께 남녀노소 재미있게 즐길 수 있는 작품입니다. 이 작품에서 저는 키트리 아버지 '로렌조' 역할을 맡았습니다. 그 흔한 무용수가 아니라 남자 배역이라니 솔직히 처음에는 어색해서 잘 해낼 자신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여러 번 연습을 거치면서 주인공, 무용수들, 그리고 배역들과 호흡을 맞춰나가는 과정이 너무나도 즐겁고 흥미로웠으며 여태껏 하지 못했던 새로운 경험을 할 수 있었습니다. 오히려 잘해서 '나는 어떤 역할도 소화해 낼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싶었습니다. 비록 무용수로 선 것은 아니지만 그건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무대에 설 때는 어떤 배역이든, 어떤 춤을 추든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새로운 경험은 제게 많은 깨달음을 주었고 후에 사진과 영상을 확인할 때는 유쾌하고 즐겁게 만든 공연을 관객들에게 보여줄 수 있어 행복했습니다.

사실 오랫동안 춤을 추고 싶어서 발레를 시작했는데 하루가 다르게 변하는 체력과 잦은 부상, 공연에만 충실할 수 없는 현실적인 이유들로 시간이 지나면서 자연스럽게 무대에서는 일이 점점 줄어들었습니다. 부산시티발레단 단원으로 활동하며 정말 많은 공연을 했지만 공연횟수가 줄어드는 것이 실감납니다. 모든 무용이 마찬가지겠지만 발레리나로 활동할 수 있는 춤의 수명은 더 짧게 느껴집니다.

무대에 설 수 있는 기회가 확대되어 지역 무용수로서 더욱 활발히 활동하고 싶습니다. 급여나 복지와 관련된 기본적인 대우도 받고 싶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아 늘 아쉽습니다. 예술인에게 혜택을 주는 지원사업도 도전했지만 새로운 팀에게 지원해 주기보다 이전에 수혜 경험이 있는 팀 위주로 돌아가는 것 같아 그마저도 쉽지 않습니다. 지역의 무용수와 우리 단체를 포함한 발레 단체들이 부산에서 더욱 다양한 활동을 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길 바랍니다.

발레리나로 활동하면서 녹록지 않은 현실에 막연하게 '그냥 포기할까?' 생각했던 순간도 많았습니다. 정말 단순하게도 결론은, 할 이유도 없지만 그렇다고 안 할 이유도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만약 지금 포기한다면 진정 내가 간절히 원할 때는 하고 싶어도 하지 못하는 순간이 온다는 것을 너무 잘 알고 있기에 나중에 후회하기보다 지금 더 노력해야겠다고 다시 한번 다짐했습니다. 무용 인구는 계속 줄어들고 있는 안타까운 현실이지만 반대로 생각하면 한 분야에서 포기하지 않고 열심히 활동했을 때, 저도 무용계를 이끌어 갈 충분한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무대에 설 수 있음에, 그리고 부산시티발레단의 공연을 찾아 먼 길 와주시는 관객분들에게 늘 감사한 마음으로 오래오래 활동하고 싶습니다.

글_김장미 부산시티발레단 단원



부산시티발레단에서 발레리나의 꿈을 키우다

[부산시티발레단]에서 오랫동안 활동하며 무수히 많은 공연에 참여했습니다. 부산, 경남뿐만 아니라 지역 곳곳에서 1년에 적게는 4~5회, 많게는 12회 정도 공연을 했습니다. 대학마다 무용과가 폐과되면서 안타깝게도 부산에는 무용(발레) 인구가 계속 감소 추세이고, 발레 공연은 무대가 많지 않기에 저는 부산시티발레단 공연에는 거의 빠짐없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했던 작품 중 최고의 작품은 〈And so we meet again〉입니다. 이 작품은 부산시티발레단 박현주 예술감독님의 2015년 작품으로 화가 이중섭과 그의 가족의 삶을 발레로 표현하여 재구성한 작품입니다. 이 작품은 춤을 추는 와중에도 감정이 벅차오를 정도로 감정이입이 되었습니다. 객석에서도 공연을 보며 눈물을 흘리는 분들이 있었습니다. 음악이나 춤, 내용이 알차기에 관객들도 제 감정들을 공유하며 느낄 수 있지 않았을까 생각했습니다.

발레리나로 활동을 지속하기 위해서는 자기 관리가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학원이나 학교에 출강도 하면서 무용에 적합한 몸을 만들기 위해 섬세한 연습과 식단 관리도 필요합니다. 몸 관리와 더불어 부상이나 체력 관리도 각자 알아서 해야 합니다. 늘 조심하지만 연습을 하다가 발목을 삐끗하게 되면 순간 발레를 못하게 되는 건 아닌지 두려운 생각이 들곤 합니다. 발레에서 발목은 진짜 목숨과도 같기 때문입니다. 발끝으로 서는 발레는 발목이 버티지 못하면 그것으로 수명을 다했다 여겨져서입니다.

그러나 무엇보다 발레공연을 하고 싶어도 기회가 많지 않다는 것은 늘 아쉬움으로 남습니다. 발레는 의상부터 무대 미술까지 예산을 많이 필요로 합니다. 그러다 보니 지역에서

발레는 보기 힘든 공연이 되었습니다. 그나마 부산시티발레단에서 발레리나로서의 꿈을 계속해서 키워가고 있어 다행이라 생각합니다.

많은 어려움이 있지만 그럼에도 발레는 계속해서 활동하고 싶을 만큼 매력 있는 춤입니다. 무대에서 멋진 동작을 보여주고 싶어 연습을 해도 생각처럼 쉽게 안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고 꾸준히 연습하면서 완성도 있게 동작을 해낼 때면 그 성취감은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힘이 들 때도 있고 쉬고 싶을 때도 많고 동작이 잘 안돼서 속상하기도 하지만 연습실 가면 즐겁고 기분이 좋아집니다. 연습이 힘들어서 더 이상 못하겠다 싶다가도 발레공연을 보고 있으면 다시 무대 서고 싶다는 생각이 간절해집니다. 큰 공연이든 작은 공연이든 지역에서 쉽게 만나기 힘든 발레공연을 보여줄 수 있어 무엇보다 기쁩니다.

앞으로도 부산시티발레단에서 예술감독님과 단원들과 함께 지역 발레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글_박지은 부산시티발레단 단원



부산미술대전 통합대상

화가

이금선



- 한국펜화협회전(2020-2022)
- 포항불빛대전 우수상(2023)
- 경주신라미술대전 특별상(2023)
- 경주환경미술대전 입선(2022)
- 포항불빛대전 특선(2022)

*“흐르는 물은 썩지 않고, 늘 사용하는 문의 지도리는 줄이
먹지 않는데, 이는 움직이기 때문이다.”*

중국 진나라의 재상 여불위가 주도하여 편집한 백과사전 『여씨춘추呂氏春秋』의 「진수 盡數」편에 나오는 구절이다. 끊임없이 움직이지 않으면 오히려 본인이 가지고 있는 고유의 성질을 잃기 쉽다. 배움을 계속 해야 자신이 나아가고자 한 방향이 흔들리지 않고 올곧을 수 있다. 비전공자이지만 그림에 대한 열망으로 꾸준히 그리는 행위를 해온 이금선 화가를 만났을 때 이 구절이 떠올랐다. 끊임없이 그림에 대한 배움을 게을리하지 않았던 그는 최근에 결실을 보았다. 전국 규모의 제49회 부산미술대전에서 펜화 「만선의 하모니」로 통합대상의 기쁨을 맛보았다.

다소 상기된 표정으로 인터뷰에 응했던 이금선 화가의 모

습이 생생하다. 대상이라는 단어는 자꾸만 들어도 낯설기만 한 큰상이라고. 보아도 믿어지지 않는 감격이었다. 가슴 가득히 들어온 부산 바다를 나타내고 싶은 생각이 ‘멸치털이’로 이어졌다. 비전공자로서 30여 년간 습작에만 머물며 제 자리걸음에 허우적거렸지만 그림에 대한 열정이 그림 세계를 떠나지 않고 언저리일지라도 머물 수 있게 해주었다. 멸치털이는 처음 마주할 때부터 숨이 멎도록 강렬한 인상을 주었다고 한다. 작업 내내 행복감과 벅찬 감동으로 펜선을 겹칠 수 있었고, 오랫동안 흘린 땀의 결과가 주어졌다. 이 과분한 상은 부산의 힘이 오롯이 담긴 부산의 바다로 힘차게 헤엄치라는 의미로 다가왔다.

그림 그리는 시간이 그저 좋아 밤샘도 많이 했다. 아침에 다시 살펴보면 마음에 들지 않아 지우기를 반복했다. 실력은 늘지 않아도 그 시간이 소중한데. 그때만 하더라도 그림

에 대한 철학이나 목적이 없었으니 깊이 파고 들지 못하고 말 그대로 취미 생활로 이어 나갔다. 상상하여 그린 그림은 그야말로 멋진 작품인데 실제로 나오는 채색은 열심히 하라는 자극만 줄 뿐이었다. 우물을 파도 한 우물만 파라는 속담이 있지 않은가. 소중한 그림 조각들을 늘려가다 보니 이 화가의 그림에 반응을 해주는 사람들이 생기기 시작했다.

그림 공부를 같이하는 지인이 펜화 작업하는 걸 우연히 접했다. 사실적인 걸 그리는 건 취향이 아니었지만 금세 이 펜화라는 장르에 매료되었다. 펜화는 펜선에 의해서 명도를 만들어 내는 라인 아트로 여러 장르를 접했지만, 펜으로 그리는 그 과정은 자신의 정신을 온전히 몰두할 수 있는 수양과 같았다. 시간이 얼마나 흘러가는지도 모를 집중력을 발휘했다. 그는 자신이 이렇게나 집중할 수 있다는 것에 놀라워하며 펜화 작업에 더욱 빠지게 되었다고.

화면을 꼭 채울 소재를 찾기 위해 전국 방방곡곡을 돌아다녔다. 그때마다 기꺼이 동참해 준 남편에게 고마움을 느낀다. 오랜 시간 마음 깊숙이 꿈틀거렸던 창작욕이 떨치탈이 장면을 맞닥뜨리는 순간 바다에 물결이 치듯 마음이 일렁거렸다. 다른 생각이 들어설 공간이 없었다. 오직 한가지 생각만이 가슴속을 휘어잡았다. 작업하는 광경은 매우 고단한 노동이지만 풍어에 수반되어 행해지는 모습이 마치 아름다운 곡조에 맞춰 춤을 추는 듯했다. 그런 삶의 현상이 녹아들도록 표현하고 싶다는, 아니 표현해야 한다는 사명감이 들었다. 머릿속 스케치에 모노톤 그림이 강렬하게 앉았다. 박자에 맞추어 일하는 그분들의 모습을 완성하기까지 6개월이 넘게 걸렸지만, 수만 번의 선을 겹치고 올리고 하는 순간은 수행을 마치고 나오는 개운함과도 같았다.



벼가 누렇게 익으며 고개를 숙이듯 더 겸손히 수행하는 마음으로 작업을 하고자 한다. 그림을 그리는 이 행위는 어쩌면 나만의 철학을 쌓아가는 일이기도 하다고 그는 말했다. 앞으로의 행보를 묻는 말에 변함없이 깨끗하게 열심히 그리고 싶은 마음이 먼저 들어선다는 열의가 가득한 답변이 돌아왔다. 이번 미술대전 통합대상을 계기로 지역의 특색이 도드라지는 그림을 지속해서 시도해 보고자 하는 생각도 있다고 했다.

화가의 자택에서 발견한 현재 작업하고 있는 그림은 화면 안에 여러 나무로 불규칙적으로 뻗어있는 넝쿨이었다. 저 나무에서 이 나무로 복잡하게 연결된 넝쿨을 뚫어져라 쳐다보니 끝이 보이지 않게 영겨있는 가지들은 각자만의 길을 또렷이 가지고 있었다. 본인이 그려나가는 그림처럼 이 화가는 분명 자신만의 경험으로 닦아진 자신만의 길을 걸어가고 있을 것이라는 확신이 든다.

글_이지윤

자연의 진리를 작품에 담는 목공예가 오구환

- 개인전 14회(서울, 부산, 중국, 일본),
국내외 단체전 다수
- 대한민국미술대전 우수상(1987),
봉생문화상(2013) 수상 외
- 중국 칭화대학 미술학원 교환·객좌
교수, 동아대학교 예술대학장·
문화예술대학원장 역임 외
- 현) 동아대학교 미술학과 명예교수



대로에서 안쪽으로 조금 들어가면 조용한 주택가가 나타난다. 한 골목 들어갔을 뿐인데 분위기는 완연히 다르다. 일반주택을 개조한 작업실은 작가의 작품처럼 다정하고, 향긋한 커피와 치즈 쿠키는 쏟아지는 햇볕만큼이나 따스했다.

오구환 작가는 계절마다 꽃이 가득하고 자연이 친구였던 거창과 부산에서 어린 날을 보냈다. 학창 시절부터 그림 그리기, 만들기 등 뛰어난 재능으로 주위의 인정을 받았다. 대학교 때 경쟁이 치열한 『전국 대학생 미술 공모전』에서 문교부 장관상인 ‘최고상’을 받은 인연이 목공예의 길로 가는 결정적 계기가 되었다.

작가는 항상 길 위에 있다. 작품은 작가의 외침을 통해 밀 그림도 없이 엄청난 힘으로 그려진다. 정체성을 살리되 안주하지 않으며, 새로움을 구축하여 전통과 현대라는 대립하는 감성을 작품에 담았다. 고착화된 어떤 생각과 인식의 틀을 깨고 확장되는 경험에 예술의 의미가 있다고 생각했다. 작

가는 조용하지만 내실 있게, 자연주의적이며 서정적인 예술 세계에 자신만의 심상 세계를 구축해 나갔다. 평생 겸손하게 자연의 진리를 담으려 노력했던 진정성을 들여다보는 시간이었다. 흔히 “현대미술은 어렵다”고 말하는데, 이 말에는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보아야 하는 곤란함이 묻어있다. 그 대신 동시대 미술을 ‘살아 있는 생명체’로 받아들이면 생생한 이야기가 가득하다.

그의 작업은 재료 혹은 공예의 범주를 벗어나 현대미술의 새로운 흐름을 담아낸다. 전문적 지식과 기술의 재료는 현대미술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다. 자연에서 시작된 형태를 단순화시키고 사물을 재현하는 게 아니라 본인의 주관으로 재구성한다. 하늘과 땅, 자연과 인간, 양성 간의 관계는 윤회와 같이 순환적인 우주의 섭리다. 작업실에는 느티나무, 포구나무(뽕나무), 참나무, 플라타너스(Platanus) 등 원목을 조각해 옷칠로 마감한 콘솔, 함, 테이블이 전시되어 있다. 걸로 보기에 여러 재질의 나무를 가져와 조각조각 사용한 듯하

지만 실제로는 하나의 나무로 작품이 완성됐다. 작업물에는 꽃, 씨앗, 열매, 나무, 구름, 달, 바람, 산, 강, 해 등 자연 형태들이 보인다. 이 꽃은 어디에서 어떤 바람과 햇빛을 받으며 자라났는지, 산책하다 주운 나뭇잎과 열매, 도토리 껍질, 구름과 달빛까지 작품의 주인공이자 영감을 주는 뮤즈다.

생명체의 존엄성이 녹아든 나무 작업에는 회화성을 담았다. 시각적인 표현 영역을 넓힌 그만의 독창적인 방법은 화면에 평면만이 아닌 저부조(低浮雕)의 느낌을 준다. 빛나는 사각의 프레임 안에 겹겹이 칠해진 추상적 이미지의 형태는 밝고 선명한 색깔을 드러낸다. 그것은 지난 시간의 흔적과 그 시간을 살다 간 이들의 기억, 그리고 오늘을 사는 사람들에게 관한 이야기다. 작가는 기교를 부리고 싶은 마음을 접어두고, 많은 표현을 덜고 또 덜어낸 끝에 선 하나를 남겨 작품을 짓는다. 작품에는 「또 다른 시간, 2020」, 「시간과 공간II, 2020」, 「기억과 기억, 2020」, 「하늘 아래, 2020」 그리고 부산시립미술관 소장품 「生動, 1988」이 있다.

오구환 작가의 40여 년 화력(畵歷)에서 올해 정년이 되기까지 매진해 온 교육자의 길은 빼놓을 수 없다. 그리고 그것은 내면의 인자한 성품과 진정성 있는 예술세계에 기인한 것이었다. 그는 데일 카네기(Dale Carnegie, 1888-1955, 미국)의 『인간관계론』으로 제자들에게 희망과 본질에 충실하고 장기적인 관점에서 노력하라고 강조했다. 2013년 예술대학장 재임 때는 최초로 중국 칭화(淸華)대학 미술학원 학생과의 ‘한·중 학생작품교류전’을 개최하고, 2014년 석당미술관장 재임 때는 부산미술협회 ‘오늘의 작가상’ 역대 수상 작가의 기획초대전을 처음 개최하는 등 학생과 지역 미술을 위한 노력도 잊지 않았다.

작가는 끊임없이 선택하는 사람이다. 머릿속에 그려지거나 가슴에 담긴 ‘그 무엇’의 완벽한 구현을 위해 여러 번 수정하고 선택한다. 그것은 이제까지 세상 밖으로 나와본 적이 한 번도 없기 때문이다. 최소한 예술은 결과물보다 완성되기까지의 과정에 더욱 눈과 귀를 집중한다. 현대 예술에서 공



지난해 10월
_목 옷칠, 41×49cm



생동_옷 은분 건칠기법, 27×75×21(4.3kg), 1988, 부산시립미술관 소장

예와 디자인, 순수미술의 경계가 사라진 지 오래지만, 그래도 공예 하면 떠오르는 키워드는 재료와 기술일 것이다. 공예도 충분히 깊어질 수 있고, 전통 방식을 유지하되 조형적 부분에서 현대적으로 접근하면 된다고 본다. 금속·도자·목·칠·섬유·유리 등 재료적으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융합 혹은 통섭적사고(統攝的思考)의 패러다임(Paradigm) 전환이 필요할지 모른다. 디자인과 미술이 만나고, 전통과 현재의 미학이 공존하는 공시성의 사유를 풀어보는 것이다.

아름다움을 발견하고야 마는 인간이라는 존재가 새삼 대단하다. 그의 작업 과정에서 아름다움을 규정하는 것 자체가 인간만이 할 수 있는 고유한 영역이고, 어려운 일이라는 걸 느낀다. 작가의 ‘실외 작업장’으로 천천히 잔디를 밟으며 걷는다. 조그마한 창문이 보이고 이 공간은 작아서 오히려 더 아름답다. ‘문’은 시작이자 끝이다. 모두를 아늑하게 품은 ‘푸른 창’이 있는 이곳에서 또 어떤 경지(境地)에 오른 작품이 탄생하게 될지 무척 기다려진다. 끝으로, 전신실과 작업실을 찾는 일은 늘 여유와 인연이 함께하는 일이다. ‘목공예가 오구환’의 마음에 드는 작품을 만난 날은 여기에 ‘그리운 기억’까지 담이었다. 모든 게 완벽한 날, 가을벌까지 참 좋다.

글_진수아 부산미술 편집위원

폴뿌리
문화 교류의
밑거름,
국제사진교류전

사진작가
이상대

- 부산사진작가협회 자문위원, 청사회 고문
- 부산사진대전 초대작가, 운영 심사위원 역임
- 부산초대사진가회 회장,
- 부산국제사진교류협회 회장 역임
- AFCAC 3인 초대전(프랑스 파리문화원)
- 제21회 부산사진문화상 수상(2020)

사람의 생각을 표현하는 방법은 다양하다. 글, 그림, 음악, 연극 등이 그렇듯이 사진도 하나의 언어예술이다. 똑같은 장소, 똑같은 시간, 똑같은 피사체로 사진을 찍어도 찍는 사람에 따라 결과물은 제각각이다. 저마다 시선이 다르기 때문이다. 사진이 주는 재미가 아닐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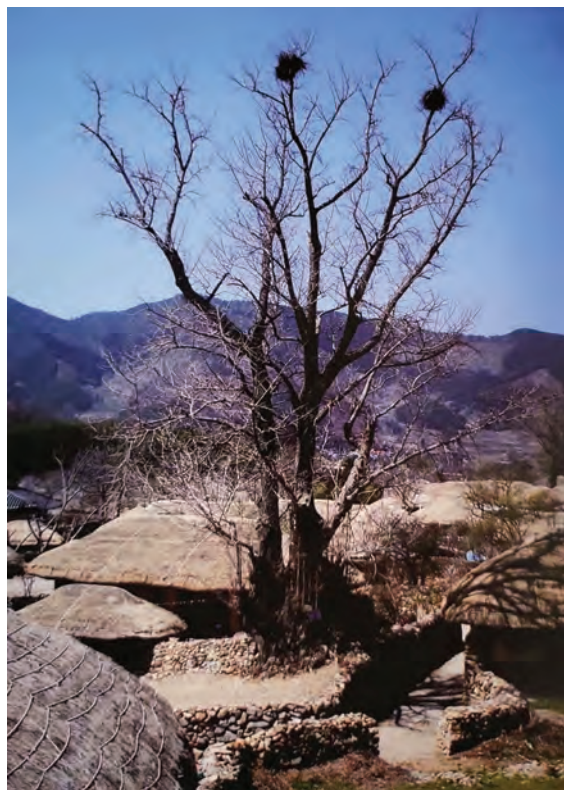
우리가 어렸을 때 사진관은 특별한 장소였다. 역사를 기록하는 곳이라고도 생각했다. 예나 지금이나 특별한 날을 기념하기에 사진만 한 것은 없다. 사진사 아저씨의 손짓에 따라 자리가 정해지고 주문에 따라 억지 미소가 번질 즈음, 찰칵 소리와 함께 터지던 불빛은 아직도 잊히지 않는다. 액자에 담긴 사진이 도착하면 집안 가장 좋은 위치에 가보처럼 자리를 틀었다. 결혼식이나 학교 졸업앨범을 만들기 위해 출장 나온 사진사 아저씨는 또 얼마나 멋있어 보이던가.

스마트폰의 일상화로 사진에도 많은 변화가 생겼다. 흑백에서 컬러로, 컬러에서 디지털로! 사진술의 발달은 사진예술 활동에 어떤 변화를 일으키고 있을까? 사진예술에 무지한 필자가 원로 사진작가 이상대 선생님을 만나기로 한 날이다. 긴장되었던 기다림은 베이지색 집업 점퍼 차림의 편안함과 평화로운 삶의 연륜 앞에서 자취를 감추었다.

사진에 관심을 갖게 된 건 언제부터였을까? 사진작가로서의 입문에 특별한 누군가의 영향도 있었으리라 생각된다.

1969년 부산은행에 입사를 했는데 사진부가 있더군요. 행우회 사진부장이었던 정정희 씨와 같은 계에 근무하게 되면서, 후배로서 일을 도우다가 은행사우회에 가입하게 되었지요. 당시 미스부산을 회원으로 영입해 부산은행에서 촬영대회도 몇 차례 열기도 했어요. 그러면서 범어사에서도 촬영대회를 열었는데 부산은행 직원을 상대로 한 대회였지요.

그러면서 자연스레 사진을 접하게 되었답니다. 1973년에 대리 승격하면서 저축부에서 일을 했는데요, 부서에서는 예금뿐만 아니라 홍보활동도 병행하고 있었어요. 은행 달



순천낙안읍성_제4회(중)청도-(한)부산 국제사진교류전 출품작(2011)

력도 제작을 해야 했지요. 처음에는 청초 이석우 씨에게 그림을 부탁했는데 은행장이 느닷없이 최민식 작가의 사진으로 달력을 만들라고 하더군요. 그때 최민식 사진작가를 만났습니다.

최민식 작가는, 평생 흑백사진만 찍었는데 컬러가 되겠나 걱정을 많이 했었지요. 컬러는 슬라이드 촬영에 더 예민하거든요. 그때까지만 해도 개인적으로 사진을 한 적은 없었는데 최민식 작가와 함께 달력 사진을 찍으러 다닌 거였지요. 은행 비품으로 구입한 카메라로 전국으로 같이 촬영을 다니며 달력을 만들게 되었어요. 그러면서 사진을 접하게 되었고, 3년 동안 함께 부산은행 달력 작품을 만들면서 친하게 지냈답니다. 최민식 작가는 청사회 회원으로 활동하고 있었어요.

당시 정정희 씨도 청사회 회원으로 가입을 권유해 저도 회



AFCAC 3인 초대전 출품작



작업_에인사진전(2017)

원이 되었습니다. 가입을 하자마자 회원전에 출품할 작품을 부리나케 준비하여 5점을 전시했지요. 개인마다 테마를 가지고 전시를 하게 되었고, 저는 <구름>이라는 제목으로 첫 참여를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사진이 처음에는 많이 어려웠지요. 그 이후 청사회 활동을 계속하다가 나이가 많아 정정희 씨와 함께 2년 전에 탈회를 했어요. 지금은 부산국제사진교류협회 회장을 역임하고 고문으로 추대되어 활동하고 있습니다. 국제교류전은 격년제로 한 해는 일본(쓰시마)에서, 한 해는 한국(부산)에서 전시를 공동 주최하고 있습니다.

모든 예술은 저마다의 매력과 특성을 지니고 있다. 그렇다면 사진의 매력은 무엇일까? 50여 년 사진과 함께하며 사진을 통해 소통하고자 하는 것을 알고 싶다.

사진은 빛을 활용한 예술입니다. 작품을 하다 보면 빛에 대해 예민한 감성을 가지게 되지요. 그동안 등산, 캠핑, 낚시 등 여러 가지 활동을 많이 해봤지만 비용면에서 사진이 제일 저렴하더군요.(호호) 일단 카메라만 구비해 놓으면 그 외 특별하게 돈 들어갈 일이 없거든요. 필름 카메라를 사용할 때 다소 필름 값이 들어가긴 했지만, 자가 현상이라 그리 부담스럽지 않았어요. 날개가 아닌 롤필름을 사용하게 되니 크게 비용이 들진 없었습니다.

요즘은 디지털카메라의 편리함 때문인지 대학교수들도 퇴직 후에 사진 활동을 많이들 합니다. 원하는 분들은 회원으로 영입해 사진 공부를 하고 있어요. 비용도 적게 들고 체력 향상에도 매우 좋습니다. 출사로 논두렁도 걷고 등산도 하다 보니 건강에도 도움이 많이 됩니다. 지금까지 건강을 유지하게 해준 것은 사진 덕분입니다.

사진 서클활동을 하다 보면 한 달 동안의 작품을 현상해서 동료 회원들한테 심사를 받기도 합니다. 금-

은 동 6점을 뽑는데 거기서 금상을 받는 다든지 하면 희열을 느끼고 그 작품을 대회에 출품을 할 수도 있어요. 사진대전 같은 큰 행사에서 출품해 수상도 하게 되고요. 그때 간간이 부산의 유명한 작가들을 초대해 심사에 대한 평가 작품에 대한 평가를 받아요. 그러면서 작품활동에 대한 지침과 도움을 많이 받지요. 특히 최민식 작가께서는 리얼 사진을 많이 강조했답니다.

사력(寫歷) 50년이면 그동안 전시도 많이 하셨을 터, 특별히 기억에 남는 전시나 사진에 관한 에피소드가 없을 리 없다. 작가님께서 특별하게 관심을 갖는 분야도 알고 싶었다.

개인전은 한 번도 하지 않았어요. 하지만 특별히 기억에 남는 전시회가 있습니다. 부산은행 출신 박재근 씨의 딸이 프랑스에 살고 있는데요, 사위가 미술하는 사람이었어요. 그 덕분에 프랑스 파리문화원에서 사진전을 해줄 수 있느냐는 청에 의해 정정희 씨랑 함께 3명이 전시를 하게 되었지요. 세 사람이 다른 테마로 전시를 했는데 저는 한국의 춤(동래야류, 안동 하회별신굿탈놀이, 학춤, 보성오광대)을 테마로 <한국의 미>라는 타이틀로 초대 전시회를 가졌던 것이 기억에 남아요.

나는 해양 분야 사진을 많이 합니다. 대학을 수산대학교 어로학과를 나와 선장 코스를 밟다가 가정사로 부산상대 무역학과로 편입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그런지 해양에 대한 미련이 남아 있어요. 그래서 그런지 해양과 어촌 촬영을 많이 한답니다. 최민식 작가처럼 인물사진을 하려고 했으나 쉽지 않더군요. 인물사진은 쉬운 것 같으면서도 어렵거든요.

폰카메라가 일상화 되었다. 작가님께서 어떤 카메라를 주로 쓰시는지, 사용하고 계신 카메라의 장점이 있다면 무엇인지 알고 싶었다. 또한, 사진 세계에서 놓칠 수 없는 것은 무엇인지도 궁금하다.

초창기에는 여성스럽지만 가볍고 작은 아사히 팬택스를 고집했어요. 기종 변경을 별로 안 하는 편인데, 아사히 팬택

스를 쓰다가 정식 사진작가가 된 후 소니 알파7마크3(SONY A7M3)로 바뀌서 현재까지 쓰고 있습니다. 기종을 자주 바꾸면 비용도 많이 들고 그래서 잘 바꾸지 않는 편이지요. 휴대폰 사진이 잘 나오고 편리해서 좋은 한데, 확대했을 때 작가들이 작품화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어요.

사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역시 정확하게 초점을 맞추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광선 조건 이런 것을 잘 고려해야 하지요. 구도도 잘 맞춰야 하기에 미술하고 비슷하다고 할 수 있어요. 사진을 찍으려면 좋은 작품을 위해 미술 공부도 많이 해야 합니다.

원로 사진작가로서 지금은 어떻게 지내시는지, 앞으로의 계획은 어떤지 여쭙었다.

11월 2일부터 지금까지 정준호갤러리에서 제25회 한국·미국·일본 국제교류사진전이 열리고 있어요. 처음엔 일본하고만 교류를 했었는데, 지금은 미국 LA와도 함께 교류전을 열고 있답니다. LA에는 교포들도 많고 LA주재 중앙일보에서 역할을 많이 하고 있어요. 미의회 의장과 올림픽시티의 경찰서장도 가입되어 있고 미국인들도 많이 가입하고 있어요.

앞으로도 계속 사진 활동을 해나갈 것입니다. 지금 회장을 맡고 있는 자문위원회를 잘 활성화해서 사진협회의 사진 발전에 어떻게 기여할 수 있을까 심각하게 고민하고 있답니다.

이상대 사진작가는 긴 세월 사진과 함께 하면서도 개인전을 열지 않았다. 서클전 위주로 참여하며, 원로 사진작가로서 사진협회의 발전과 기여에 대해 고민한다. 그 모습이 조급하지 않으면서 가을 들녘처럼 풍요로우서 좋다.

삶은 기록이다. 사진은 삶을 기록하고 보존한다. 저마다의 성향과 특징, 성격을 품은 사진이라는 보물창고가, 원로 사진작가 이상대 선생님의 걸음에서 더욱 빛나기를 염원한다.

글 사진·노옥분 시인

무려 바람 고개

주 순보

반보기 산을 향해
 아픈 백발음을 부지런히
 옮겨 놓는다
 하늘에 닿아
 소동이 일까 하듯
 그리움을 포개어서
 거칠산과 묘새에
 진입하듯 한낱
 세월 쫓러 등산객들
 환호성에도
 어머니는 아직
 오시지 않았사나

작가노트 | 반보기 산은 시집간 딸을 만나기 위해 중간지점에서 서로 열싸안고 만난다는 산이다.

16년 전 외로웠던 투병 시절, 이미 타계하신 어머니를 그리워하며 쓴 시.

글_주순보 부산문인협회 연수이사, 거제문화예술제 추진위원장

RE: VIEW

- 미술** 한 포기 들꽃에서 만나는 우주, 그리고 자연과 인간의 영원한 관계
유진재 <영원한 관계> _ 김종기
- 문학** 수필의 백미, 그 현란한 맛의 향연
문경희의 『하얀, 빈티지』 _ 고경서(경숙)
- 문학** 지난 모든 것들이 아름답고 고마워!
선용 제25 동심시집 『아니랄까 봐』 _ 박일

한 포기 들풀에서 만나는 우주, 그리고 자연과 인간의 영원한 관계

유진재 <영원한 관계>

갤러리 조이, 2023. 9. 15. ~ 10. 28.

글_김종기 미술비평가민주공원 관장

유진재는 자신의 작품활동 가운데 거의 전 기간에 걸쳐 ‘영원한 관계(Everlasting relation)’라는 제목으로 전시를 하고 있다. 그가 포착하는 영원한 관계는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 그는 이렇게 말한다. “나의 작업은 ‘영원한 관계’를 테마로 하고 있다. 명제의 영원한 관계는 캔버스와 물감, 여러 재료들과 나 자신이 어우러져 풀어가야 하는 작업에 대한 관계일지도 모르겠다. 또한, 인간과 자연의 관계 속에서 인간이 생성해 내는 모든 것들에 대한 작용과 반작용의 관계일 것이다. (중략) 그것(인간이 이루고 인간이 만든 것-필재) 또한 모두 자연 속에 있다. 짧은 인간의 삶 또한 시간의 순환 속에 있으며 영원한 자연의 일부로 잠시 공존하고 있다.”(유진재, 「작가 노트」 중에서)

윌리엄 블레이크(William Blake, 1757-1827)는 <순수의 징조 Auguries of Innocence>라는 장편 시의 첫 네 구절에서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한 알의 모래에서 세계를 보고/한 떨기 들꽃에서 천국을 본다/그대의 손바닥에 무한을 쥐고/한 순간 시간에서 영원을 보라. To see a World in a Grain of Sand /And a Heaven in a Wild Flower /Hold Infinity in the palm of your hand /And Eternity in an hour”

또한 블레이크의 이 시구는 “일미진중합시방—微塵中含十方, … 무량원겁즉일념—無量遠劫即一念”(한 티끌 속에 온 세상이 들어있고 … 한량없는 시간이 한 생각 찰나이니)이라는 의상의 화엄일승법계도(법성계 法性關)의 구절을 떠올리게 한다.

유진재는 자신의 들풀 그림을 통해 이러한 오묘한 진리에 가 닿고자 하는 의도를 숨기지 않는다. 그는 들꽃도 아닌 들풀을 그림의 주인공으로 내세운다. 들풀은 이 우주에서 가장 미미한 존재자일 뿐이다. 그러나 그는 아무것도 아닌, 이 가장 미미한 들풀을 자연과 문명의 영원한 순환, 영겁의 시간이라는 장대한 서사의 주인공으로 내세운다. 유진재의 그림에서 들풀은 모두 전경에 배치되어 있다. 그리고 중경과 원경에는 나무와 숲, 구름과 산, 또는 바다 같은 자연이 있고(그림 1), 해운대의 마천루 빌딩 숲, 광안대교, 배와 같은 인간 문명의 상징들이 있다(그림 2). 이 모든 자연과 문명에서 가장 미미한 것에 불과한 들풀이 이들을 배경으로 삼는다.



그림1
Everlasting Relationship 210513
_259.1×162.1cm

유진재는 캔버스에 아크릴릭 필러를 사용하여 실제 나뭇잎을 붙인다. 그런 다음 나뭇잎이 말라 굳어지기 전에 떼어 내고 표면에 나뭇잎 형상의 자국을 음각으로 새긴다. 그리고 주걱이나 나이프로 조개 가루, 염색한 금강사 돌가루 등을 중성 본드(타바)에 섞어 양각의 나뭇잎을 그린다. 그러고 나서 또한 마찬가지로 방법으로 그 사이사이에 흙씨 등의 포자를 그려 넣는다. 이렇게 하여 그의 그림에는 강한 질감(Texture)의 마티에르가 드러난다. 이렇게 하여 작가는 캔버스에 박제된 듯 음각으로 새긴 나뭇잎과 양각으로 돌출된 나뭇잎, 그리고 흩날리는 포자를 통해 과거, 현재, 미래를 나타내고자 한다. 자세히 보지 않으면 보이지 않는 캔버스 화면의 작은 차이를 통해 작가는 무한의 시간을 표현하고자 한다. 숨어 있는 듯 화면의 여러 구석에는 존재했다가 사라진 들풀이나 나뭇잎의 흔적이 음각으로 새겨져 있고, 그리고 여러 곳에서 양각으로 돌출된 들풀과 나뭇잎이 그 흔적 사이로 고개를 내밀고 있다. 그리고 민들레 흙씨 같은 포자가 이곳저곳으로 자유롭게 떠다니고 있다. 과거는 흔적으로만 남고 사라졌지만 다시 현재의 모습으로 강하게 되살아나고 있다. 그러나 이마저도 다시 사라질 운명이라는 듯 흙씨와 포자는 그 사이를 유명하면서 현재 속에서 미래를 보여준다.(그림 1)

유진재의 그림은 직접적으로 어떤 이념을 내세우지 않는

다. 그는 말한다. “내 그림을 보고, 좋은 영향, 선한 느낌을 가지면 좋겠다. 그러나 그것 자체가 목적이지는 않다.” 그의 그림은 어떤 직접적인 사회적 메시지를 담고 있지 않다. 마티스는 다음과 같이 말한 바 있다. “내가 꿈꾸는 것은 문제를 일으키거나 우울한 주제가 없는 균형, 순수, 평온함의 예술, 즉 모든 정신 노동자를 위한, 문필가뿐 아니라 사업가 모두를 위한 예술이다. 예를 들어 육체적 피로를 풀어주는 좋은 안락의자처럼 마음을 달래고 진정시키는 효과가 있는 예술이다.”(앙리 마티스, 『화가의 노트』, 1908)

마티스가 이러한 자신의 의도를 관철시키기 위해 취한 방식은 묘사되는 대상의 색과 형태를 자신의 주관적 방식으로 극단적으로 변형시키는 것이었다. 그리하여 이렇게 왜곡된 색과 형태를 통해 그의 그림은 세상의 어느 것보다도 닳지 않는 것이 되었다. 그렇지만 마티스의 급진적 색의 사용과 형태 왜곡은 그의 그림을 처음 대한 당시의 대중과 비평가들에게는 수용되기 어려운 것이었다. 그러나 클라이브 벨(Clive Bell)이나 로저 프라이(Roger Fry) 같은 초기 모더니즘 비평가들은 그림의 평가에서 눈으로 경험할 수 있는 미적 반응을 중요시하였다. 그들에게 미술평가의 선결 요건은 시각적 감수성이었다. 이때 중요한 것은 내용에 근거한 작품의 주제보다는 선, 색, 색조, 양감을 중요시하는 접근법이다. 이렇게 벨과 프



그림2 Everlasting Relationship 230211_227.3×181.8cm

라이가 마네, 고갱, 세잔의 회화를 옹호하는 비평을 쓰면서 20세기 형식주의 미학이 정립되었던 것이다. 그리하여 모더니즘 미술은 그 한 방향에서 형식주의의 모더니즘으로 굳어진다. 그리고 형식주의의 모더니즘은 유미주의가 주창하는 예술의 자율성을 실현하면서 19세기 말 20세기 초 마티스와 피카소로 이어졌다. 그리하여 형식주의의 모더니즘은 클레멘트 그린버그(Clement Greenberg)의 “회화란 내용을 전염병처럼 피해야 한다”라는 주장에서 그 정점을 이루었다.

이때 예술의 자율성이라는 신념은 칸트에 그 연원이 있는 것으로서 그 출발은 영국 경험론이다. 영국 경험론의 미학은 미적 관조를 무관심적 관조라고 보았다. 이때 무관심적 Uninterested이라는 말은 “사적 이익의 동기가 없는”이라는 의미이다. 칸트는 이러한 미적 관조를 더 나아가 진리 인식과 도덕적 고양과도 무관한 것이라고 확장시킨다. 그리하여 예술은 어떤 외적 목적으로부터 독립적인 것으로서 자율성을 가지는 것이 된다. 이것이 예술의 자율성이며 이것이 형식주의의 모더니즘이 내세우는 것이다. 그런데 이러한 자율성은 어

떤 작품을 사회적 맥락에서 해석할 수 있는 실마리를 주지 않는다. 말 그대로 순수한 미적 경험은 자기 충족적이면서 무관심한 것이다.

이후 다수의 모더니즘 미술은 (역사적 아방가르드와 달리) 이와 같이 형식주의의 관점에서 이해되고 소비되어 왔다. 유진재의 작품도 이러한 맥락에서 포착할 수 있다. 그의 모든 그림은 어떤 강한 사회적 메시지를 제시하지 않는다. 그러나 이러한 탈사회적 맥락은 21세기 동시대에 와서 역설적으로 강한 사회적 메시지를 담는 바탕이 된다. 그것은 바로 유진재라는 작가의 정신 또는 의식 속에 내재된 동양적 사유방식이다. 그는

인간이 만들어 낸 문명, 또는 그 산물은 시간이 지나면서 사라질 것이지만 들풀은 또다시 피어날 것이라는 아주 소박한 동양적 세계관, 생태관을 드러낸다. 인간의 행위를 통해 탄생한 여러 문명의 결과물은 그의 그림 속에서는 단지 들풀의 배경에 지나지 않는다. 높은 빌딩, 거대한 교각, 대형 선박, 이 모든 것들은 자연의 재료로써 만들어진 것이며, 또한 시간이 지나면 자연에 묻혀버릴 것이 아닌가? 이러한 순환론적 생태적 세계관이 그의 그림의 이념적 바탕을 이루고 있다.

유진재의 그림에서 묘사되는 들풀, 나뭇잎, 나무, 산, 바다 등 자연 대상은 눈에 보이는 대상을 눈에 보이는 대로 묘사한 것이 아니다. 그의 그림에서 등장하는 대상들은 구체적 형상을 가지고 있는 것이지만 그것을 눈에 보이는 대로 묘사하여 그린 것이 아니다. 그의 그림에 보이는 구도도 눈에 보이는 풍경을 옮긴 것이 아니다. 그는 자신의 머릿속에 들어있는 들풀, 나뭇잎, 나무, 산, 바다를 어떤 감정을 드러내기 위해 재구성하고 있다. 이러한 의미에서 그의 그림은 재현

적인 것인 동시에 재현적인 것이 아니다.

나아가 그의 그림 속에서 등장하는 문명의 산물들, 빌딩이나 교각, 대형 선박 등은 전경에 등장하는 들꽃의 배경으로 등장한다. 따라서 그의 그림에서 이들은 뒤로 갈수록 색이 옅어지고 흐려지는 색채원근법을 사용한 듯 하지만, 실상 그러한 기법 이전에 이들의 존재감 자체를 줄이기 위해 색조를 낮춘 작가의 의도에 따른 것이다. 따라서 그의 그림에서 감상자는 후경에 등장하는 대상들에서 원근감과 거리감보다는 어떻게 색조의 강도가 낮추어져 있는지를 보아야 하는 것이다.

이것이 바로 유진재가 그림에서 여백을 만들어 내는 방식이다. 이렇게 만들어진 여백 속으로 감상자를 이끈다. 이것을 서성록은 “비활성과 활성의 대비”, 촘촘한 물질의 그물에 잡혀 꼼짝 못하고 있는 바탕의 이미지, 자유롭고 활기차게 존재감을 뽐내는 표면의 이미지라는 대비라고 지적하고 있다.

그리하여 그의 그림은 마치 전경의 들꽃들이 흐릿한 후경을 배경으로 떠오르는 듯한 스푸마토 기법을 따르는 듯, 그리고 강한 윤곽선을 지운 동양화의 물골법을 따르는 듯 여러 기법을 이리저리 응용하고 있다. 그렇지만 핵심은 이들이 가진 강한 색조 자체를 덜어내는 것이었다. 이렇게 비워진 여백에 채워지는 것은 감상자의 감정이자 관념일 것이다. 그가 “내 그림을 보고 좋은 영향, 선한 느낌을 가지면 좋겠다. 그러나 그것 자체가 목적이지는 않다”라고 말할 때 그는 자신의 작품이 어떤 이념을 제시하는 것, 어떤 메시지를 담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말하는 것이었지만, 그 말은 자신의 작품을 감상자들이 각각의 삶의 틀에서 다양하게 수용할 수 있게 하고 싶다는 의도라 할 것이다.

유진재의 그림은 구상적이면서도 추상적이다. 어떤 경우 그의 그림은 음악의 이파리(파계), 양각의 이파리(현계), 훗날리



그림3 Everlasting Relationship 230827_72.7×50.0cm

는 포자 또는 흙씨(미레)라는 주제만을 강하게 드러내기 위해 캔버스에 강한 마티에르만 드러내면서 후경을 다 지워버린 그림이 있는가 하면(그림 3), 자연 대상이나 문명의 결과물들을 배경으로 삼아 가시적 후경이 깊은 원근감을 드러내는 그림 등으로 다양하다(그림 1, 그림 2). 전자가 철저히 형식주의의 관점에서 포착되는 것이라면, 후자의 그림들은 형식주의를 넘어서 나아간다.

유진재의 작품은 따뜻하다. 그렇기에 감상자들은 어렵지 않게 그의 그림에 감정이입할 수 있다. 그의 그림은 어떤 강한 메시지를 전달하고자 하지 않는다. 그렇지만 그의 순환적 세계관, 생태적 사고가 그의 모든 그림의 바탕에 들어 있어, 감상자는 자연과 인간의 영원한 관계에 대해 숙고할 수 있다. 오랜 시간 유진재는 ‘영원한 관계’라는 주제로 조금씩 양식의 변화를 꾀해왔다. 이제 유진재는 형식이나 내용에서 더 실험적인 양식을 취해보는 것도 가능하리라 보인다. 어떤 방향이든 나아가 부산의 중견작가 유진재가 그의 바람처럼 그의 그림을 통해 감상자들에게 지속적으로 선한 영향, 좋은 느낌을 주기를 바란다.

수필의 백미, 그 현란한 맛의 향연

문경희의 『하얀, 빈티지』

글_고경서(경숙) 시인·수필가

나는 작가의 '찐팬'이다. 빈티지한 탁자에 앉아 이 책을 읽는다. 인터넷에 정신을 빼앗길 법도 한데 놀라우리만치 몰입과 집중력으로 빠져드는 매력이 있다. 앞서 상재한 네 권의 수필집에서 과분한 감동을 받은 바 이번에도 새로운 변화를 꾀하는 철학적 사유와 지적호기심으로 독자를 감응케 한다. 인간과 세계를 탐구하는 감각적이면서 리얼리티가 살아있는 문장은 가독성과 카타르시스를 안겨준다. 따라서 심미적 가치를 지향해 수필의 질과 격을 한층 업그레이드한 작가에게 향간에 유행하는 말로써 애착과 찬사를 보낸다. 그만큼 좋은 수필집이다.

문경희 수필가의 『하얀, 빈티지』는 아르코문학창작기금 발간 지원 도서로 선정되어 이미 그 역량이 검증된 작품집이다. 수록된 작품들의 문양도 다채롭고, 인위나 꼼수가 끼어들지 않아 당당하면서도 모범적이다. 또한 탁월한 언어적 감각으로 쓰진 박진감 있는 문체는 은근히 압도하지만 균림하지 않는 겸손과 미덕을 갖는다. 오감(五感)으로 쓰고, 오미(五味)로 읽히는 점에서 작가만의 수필 세계를 노련하게 보여준다고나 할까. 이는 여타의 수필집과 차별화되는 반증이기도 하다.

작가의 수필은 스펙트럼이 넓다. 인간과 삶, 자연과 사물뿐만 아니라 추억과 가족에 등을 두루 섭렵하고 있다. 이를테면 자본의 힘과 문명의 이기가 초래하는 결핍과 불균형, 부재나 소외로 인한 갈등과 분열, 친구간의 세대차를 주관적인 해석을 통해 수필의 영역을 확장해간다. 상투적이고 보

편화된 기존의 생각을 참신한 비유와 상상력으로 낫설고 새롭게 인식한다. 그리고 이면에 숨겨진 진실을 찾아내는 통찰력으로 자아성찰에 이르기까지 재구성하는 과정이 설득력을 얻는다. 이에 따른 시선이 애매하거나 편협하지 않고 구체적이고 분명하다.

예술이 각자 내면 풍경을 글이나 말로서 표현하는 것이라고 볼 때 작가의 수필은 말과 침묵, 빛과 어둠, 이성과 감성의 접이시대에서 찾아야 할 것이다. 우선 존재의 본질과 현상을 확신에 찬 언술로 운용하는 창작방법에 충실하다. 개인이나 흔한 일상조차도 일반적인 경향에서 벗어나 참여한 자의식과 섬세한 감성, 풍부한 어휘를 구사함으로써 신변잡기를 불허한다. 주제와 관련된 다양한 텍스트들이 변용을 거치면서 독창적인 작품을 선보인다. 특히 형식적인 측면에서 작가의 의도가 두드러진다. 활달하고 빠른 리듬의 문장력은 긴장과 이완으로 흐름을 유장하게 할 뿐 아니라 독자적인 자율성이 보장된다. 이러한 전략적인 구성은 미적 율림이 커 효과를 극대화한다. 이는 작가가 쓴 수필의 위상이 자존감이다.

표제작인 「하얀, 빈티지」는 노화에서 오는 흰머리를 소재로 하고 있다. 빈티지의 사전적 의미는 포도를 수확한 해에 정평이 난 양조장에서 생산연도를 라벨에 명시하는 최고급 포도주를 말하지만 낡고 오래된 것을 의미하기도 한다. 여기선 백발로 치환해 기억을 소환하고, 해박한 지식과 상상력으로 새로운 의미를 재현한다. 검은 머리가 흰머리로 변색되



는 신체 현상을 삶과 자아의 유기적인 관계를 통해 정서를 고조시킨다. 수필집 한 권을 이 한 편의 수필이 대변한다고나 할까.

인간의 보편적 가치를 뛰어넘어 사회화의 병폐를 우회적으로 비판한 작품으로 「밥」 「카오스적 생존기」 등이 있다. 길거리에서 한 끼의 밥을 구하는 고단한 현실은 “절망과 좌절과 배고픔에서 저들을 구제하는 삶의 노릇들”이며 “밥은 곧 법이며, 참으로 조용하고 질서정연한 밥”이라는 역설은 사뭇 비장하기까지 하다. 「카오스적 생존기」는 언어의 춘추전국시대를 사는 현대인들이 겪는 소통불능의 어려움을 지적한다. 익명을 전제로 한 SNS 상에서 문법이나 어법을 무시한 신조어들의 출몰에 따른 문제점을 직시하고, 그 해결책을 모색하는 날선 비판은 작가의 내공으로 읽혀진다.

자연물이나 사물을 소재로 한 서정적인 작품들도 눈에 띈다. “늪어가는 일이란 홀로 감내하고 홀로 삭여야하는 소리가 점점 많아지는 일”이라는 「겨울소리」와 도시적 삶을 청산하고 귀촌해 대지에 씨를 파종하고 열매를 맺기까지의 결실을 인간의 유전자와 결부시켜 생명체의 근원을 포착한 「씨, 내포하다」가 그것이다. 다른 작품인

「자코메티의 계절」은 배경인 겨울 연밭을 폐사지로 전환해 내재된 욕망을 비워내고 털어냄으로써 자연과 인간이 소멸이 아닌 생성이라는 주제의를 강조한다. 자코메티의 조각 〈걷는 사람〉의 삽화는 내면을 입체적으로 끌고 가는 또 하나의 힘이기도 하다. 서사와 형식이 균형감을 잃지 않는 「안개」도 비유나 상상, 상징으로써 창의성을 발휘한다. 이렇듯 작가만의 감식안으로 탐색한 작품들은 비슷하지만 다른 글쓰기로 실험적인 수필의 지평을 열어 보인다.

파블로 피카소는 “나는 그림 안에 내가 원하는 모든 것들을 집어넣는다. 사물들에게는 미안한 일이지만, 자기들끼리 자리를 잡는 밖에 도리가 없다”고 설파한다. 피카소의 말처럼 감정이나 욕망에서 관념을 배제하고, 반성적 성찰로 조형화한 작품들도 엿보인다. 수필의 정체성과 치열한 작가 정신을 교감하는 「베르쿠치」는 매를 길들이듯 창작물이 완성되기까지 끊임없이 무두질하는 과정을 능숙한 필치로 그려낸다. 「밤, 일」 역시 성애로 감정이입함으로써 문학적 가치와 심미안을 이끌어낸다. 도발적이고 발랄한 상상은 다양한 이미지를 시각적으로 재해석해낸다. 또한 글과 행동이 이중구조가 아닌 대상과의 적절한 거리 유지가 개성적인 글쓰기임을 상기시킨다. 이러한 작가적 태도는 어떤 포즈로 수필 세계를 바라볼 것인지 독자에게 질문을 던진다.

현재의 경험과 과거의 기억을 소환한 「다마스케스의 문양」은 대장간에서 고물이 연장으로 환골탈태하는 변신에서 역동적인 순간을 예리하게 포착한다. 그리움과 회한으로 아버지를, 노년기에 든 모친의 외로움에 진정성을 담아 메시지를 전한다. 「배짱 없는 배짱이」는 작가가 자신을 굳건히 하는 요체로서 귀촌한 작가와 주변인들의 에피소드를 연민과 인간애로 이해하고 공감하다 보면 욕망과 갈등이 극복되고, 서사가 정리된다. 이는 독자의 입장에선 또 다른 즐거움이다.

이상으로 문경희 수필가의 작품 세계를 살펴보았다. 평범한 일상과 체험을 발효시켜 내밀한 사유와 뜨거운 열정으로 명품 브랜드를 구축한 한 권의 수필집. 장인이 직접 숙성한 풍미가 배어난 최상의 포도주를 음미한 기분일따가. 조탁한 언어의 맛과 향기를 눈 안에 넣고, 이리저리 굴리면서 격조 있는 작품의 신세계에 탐닉했다. “넓고 닳은 구닥다리여도 괜찮은” 작가의 말대로 감성과 지성이 가미된 순도 100프로의 수필에 취한 오늘은 “잠을 주고, 글을 사는 시간”이다.

지난 모든 것들이 아름답고 고마워!

선용 제25 동심시집 『아니랄까 봐』

글_박일 아동문학가

선용의 동심시집 『아니랄까 봐』(세종출판사, 2023. 9.)에 소개된 약력이 다. ‘일본 동경에서 태어나 1971년 『소년세계』를 통해 문단에 나왔으며, 월간 『어린이 동산』 주간, 부산MBC 『어린이문예』 주간, (중략) 작품집으로는 동심시집 『이러다가』 외 25권, 동요집 『토란잎 우산』 외 30권, 가곡집 『능소화』 외 6권, 번역집 『파랑새』 외 80여 권, 중국어교재 『표준중국어』 『생활중국어』가 있고, 일한시집 『野菊』 외 6권이 있음. 받은 상으로는 부산광역시문화상, 대한민국번역장려상, 대한민국동요대상, 한국창작가곡대상, 한국동요음악대상, 대한민국동요사랑대상, 새싹문학상, 방정환문학상, 한국문학상 외, 외국에서 받은 중국 아동문학번역교류장, 중화민국 중흥문예장, 중화민국 교무위장, 아시아 번역상 등이 있음이다.

이제 여든을 넘겼다. ‘시집을 내면서’ 술회한다. ‘생각해 보면 지난 모든 것들이/아름다운 것들뿐이었다/정말 따스함이 느껴지는/감사한 일들뿐이다’라고 했고, ‘갑자기 알게 된 병으로 당황했’다고 하면서, ‘안타까운 것은 그걸 늦게 서야 깨달았다’는 자괴감도 적었다. 이런 와중에 제26시집 『이러다가』까지 두 권을 동시에 상재하는 저력을 과시한다.

‘동심’이란 곧 어린이의 마음이다. 문학이 곧 그 사람이라고 하면 선용 선생을 두고 한 말일 게다. 흐트러짐이 없고, 곧고 바르다. 목소리를 높이지 않고, 주장이나 고집을 부리는 법이 없다. 조용하게 흐르는 물처럼 은은하고 그윽하다. 웃әм시 나게 단정하고, 베레모를 쓰고 있으면 주름살도 보이지 않는 동안이다.

끝도 보이지 않는/하얀 세상//어젯밤 꿈에서/나오지 않았는가//주위를 돌아봐도/아무도 없다//나/혼자뿐//외롭고 무서워/울고 싶지만//아무도 없애/울지 못하고//소리 없이/불러본다//엄마! - 『아침 안개』 전문

이제 외롭다는 것인가? 꿈에 나타난 하얀 세상! 나 혼자 뿐이니까 두렵다. 혼자라서 울 수도 없다. 엄마는 인고의 세월을 감내해 온 강인한 생명력의 원천이기도 하지만, 근원적 고향이다. 이럴 때 부르는 ‘엄마!’는 사무친 그리움이 아니라, 두려움에 대해 위로를 받고 싶기 때문은 아닐까?

찔레순을 좋아하던/그 아이가 생각나서/꺾으려다 그만두고/돌아온 그 날 밤에/꿈길까지 따라와서/웃어주던 별 하나 - 『찔레순』 부분

차마 찔레순도 꺾지 못한다. 어린 마음이기도 하지만, 찔레순을 좋아하던 그 아이 때문이다. 꿈에까지 그 아이가 따라와 웃어준다. 그리움이란 가장 순수해질 때 가슴 속 깊이에서 솟아나는 샘물 같은 것이어서, 그 별의 웃음이 더 아름답다.

심지어 감기까지도/아빠가 쿨룩쿨룩/엄마도 쿨룩쿨룩/동생이 쿨룩쿨룩/누나도 쿨룩쿨룩//사이 좋게/주고 받고/받고 주고/언제나 함께 나누며/같이 웃고 같이 우는 우리//한 가족/아니랄까 봐 - 『아니랄까 봐』 부분



고블마저 온 가족 행사가 된다. '달면 삼키고 쓰면 뱉는' 사회에 가족이란 공동체만큼 중요한 곳이 있겠는가. 가족은 '주고 받고/받고 주면서 함께 나누고, 함께 웃는다. 가족은 '아니랄까 봐' 모두 닮아있다. 혈연에 감사하며 자신의 존재감을 확인한다.

귀었다/떨 때마다/꽃이 활짝//다섯 잎/
예쁜/두 송이 꽃//우리 방/환한/등불이
되고//우리 집/즐거운 웃음이 되고

- 「아기 주역」 전문

특히 사랑하는 것은 아이다. 성서에도 '마음을 고쳐 어린이처럼 되지 않고서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라고 하지 않았던가. 아기는 꽃으로도 부족하여, 등불과 웃음이 된다.

'징검돌처럼 살고 싶은 것이 삶의 철학 아니었을까?

선뜻 등을 내어주어/아이들도 발 젓지
않고/오갈 수 있고//목마른 산새 잠시 앉
아/목도 축이고 깃털도 고르고//그래서

찬물에 몸을 담근 채/등을 내어주는 징검돌//또 누군가 올까 봐/
또 누군가 지나갈까 봐/그대로 물속에 엎드려 있다. - 「징검돌」 부분

아이들과 산새들이 좋아한다면, 자신은 등을 내어주는 징검돌이 되고 싶다. 징검돌은 물속에 엎드려 있어야 한다. 그동안 아이들을 위해 시를 짓고, 노래를 만들고, 후진을 양성하고, 후배를 이끌어주고, 어린이 잡지를 만들어 온 일들이 징검돌 같은 봉사활동이었다.

안 춥니. 이 한겨울에?/아니요. 조금도//마른 잎이 몇 번을 쓸어
도/쓸쓸함이/그대로인 골목 안//담벽 밑에 핀 꽃 한 송이/골목
이 환하고/추위가 물러간다//그 따뜻한 웃음의 힘/그 살가운 눈
길/그 작은 꽃 한 송이의 힘//꽃처럼 따뜻한/겨울 - 「웃고 있는 꽃」 전문

마른 잎이 쓸어낸 쓸쓸한 골목에 꽃이 피었다. '그 따뜻한 웃음의 힘/그 살가운 눈길/그 작은 꽃 한 송이의 힘'이 그득해진다. '힘이 되어 준 은인들' '여행 가듯 놀이 가듯 병원도 함께 다니고 곁에서 돌보아주는 아내'도 감사목록에 올라 있다. 그 감사가 겨울꽃으로 형상화하여 '꽃처럼 따뜻한/겨울' 세상을 그려놓은 것은 아닌가.

'동심시'라는 명칭에 애착을 보인다. 동심시는 동심의 확산을 위해 필요한 것이긴 하다. 시라는 명제를 확보하면서, 동시의 소재가 동심이기 때문에 유아적 냄새가 나는 동시보다 시의 장르 안에서 일반화시키고 싶었기 때문일 것이다.

그는 아동문학의 독보적 존재다. 세상을 밝게 하는 동심의 노래를 끝없이 부르고 있다. 끝으로 정선혜 평론가의 말을 빌린다. '밝고 긍정적인 삶을 노래해 보여준 휴머니즘의 시인, 선용 시인의 동시들은 그가 살아가면서 만나게 되는 사람들은 물론, 보잘것없는 미물인 구절초나 억새꽃에 이르기까지, 청포도 같은 극진한 사랑으로 감싸 안으려는 따뜻한 마음을 노래해 보여주고 있다.'

늦게나마 깨달은 추억과 그리움의 지나간 것에 대한 아름다움과 감사의 노래가 다가오는 것에 대한 아름다운 동심 이야기로 승화하는 계기가 되리라.

부산청년오케스트라 좌담회

2023. 11. 8. 오전 10시 30분 부산예술회관 3층 한울집

2020년 창단한 [부산청년오케스트라]이하, 청년오케스트라가 4년 차를 맞았다. 코로나 바이러스의 세계적 확산, 대학 구조조정을 통한 예체능 관련 전공 통폐합 등 '역대급 위기'라던 지역 음악계의 상황은 창단 무렵이나 지금이나 크게 다르지 않은 듯하다. 유지도 힘들다는 오케스트라를, 부산음악협회는 가장 힘든 시기에 만들었다. 그리고 꽤 성공적으로 운영해 오고 있다. 청년오케스트라 활동이 갖는 의의와 필요성, 그리고 음악계와 더불어 지속적인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논의하는 자리를 마련했다.



오수연
부산예총 회장



권성은
부산음악협회 회장



홍기정
단장



다니엘 S 김
지휘자



김푸름
단원(바이올린)



박시연
단원(오보에)



박수철
단원(플루트)



목정아
단원(바이올린)



하승연
단원(더블베이스)



청년오케스트라 창단과 활동

권성은 부산청년오케스트라는 2020년 코로나가 유행할 때 공연이 무기한 연기, 취소되는 상황에서 부산의 젊은 음악인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고자 창단했습니다. 4년째 해보니, 올해 '가곡과 아리아의 밤'에서 지휘한 박성완 교수님이 예년보다 역량이 많이 올라왔다고 말씀하시더군요.

홍기정 청년 음악인들이 해가 갈수록 적극적인 참여를 해주어서 진행이 잘 된 것 같습니다. 영상 오디션 일일이 보는 게 보통 일은 아닌데 자기소개와 연주를 보내줬고, 앞으로도 잘 진행될 거라 생각합니다.

다니엘S김 창단 첫 공연 때 지휘를 했고, 4년 뒤인 올해 <창작오케스트라의 밤>에서 지휘를 했어요. 그래서 처음과 지금이 많이 다른 걸 느낍니다. 서로 계속 교류하고 연습하고 앙상블을 하니 올해는 확실히 팀워크가 많이 느껴졌어요.

박시연 저는 2020년 창단 때, 그리고 작년과 올해 총 3번을 함께했는데 오케스트라 문화가 굉장히 좋아진 걸 느낍니다. 오보에는 오케스트라 튜닝을 맡는 악기이기도 해서 A음정으로 연주자들의 튜닝을 도우며 연주회의 시작을 알리고 있습니다.

목정아 오디션을 보고 입단하게 됐는데 연주 기회가 제공된다는 자체가 가장 좋았습니다. 인코리아 연습실 빌려서 하던 초기보다 점점 체계가 갖춰진 것 같구요. 대학교를 갓 졸

업한 단원들이 많이 오는데 그 친구들에게는 설 수 있는 가장 큰 무대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김푸름 만 39세까지의 나이 제한이 있어서 다른 오케스트라처럼 큰 선생님들이 계시지 않고 오직 청년들로만 구성된 오케스트라라는 점이 흥미롭고, 함께 해보고 싶어서 지원해 들어왔습니다. 10월 13일 <가곡과 아리아의 밤>에선 2nd 바이올린 수석을 맡았고 10월 21일 <창작오케스트라의 밤>에서는 악장을 맡아 연주했구요. 사실 이번에 왜 처음 했을까? 할 정도로 너무 좋은 기회였던 것 같습니다.

박수철 2022년 부산음협 홈페이지 공고를 보고 영상 오디션을 통해 들어왔고 수석 플루트 파트를 맡고 있습니다. 지휘자 선생님들도 편안하게 이끌어주셨고 부산에서 활동하는 청년 연주자분들과 호흡을 맞출 수 있다는 점이 좋았습니다.

하승연 처음 창단 소식 들었을 때부터 관심은 많았어요. 제가 청년이기도 하고 청년오케스트라라고 아예 한정된 단체가 없었기도 하구요. 객원으로 오다가 처음 단원이 됐는데 좀 더 '으쌰으쌰' 하는 느낌을 받았어요. 더블베이스 단원으로서 오케스트라의 제일 낮은 음처럼 든든하게 채워지는 역할을 충실히 하고자 노력했는데 올해 두 번의 연주가 정말 다 좋았습니다.

청년오케스트라의 차별점

김푸름 사실 대학 갓 졸업한 경우, 딱 20대 중후반부터 30대까지 중간 나이가 연주할 기회가 많이 없어요. 저도 청소년오케스트라도 나왔고 여러 오케스트라를 거쳤는데, 저희 때는 대학교 졸업하면 청소년오케스트라 연주를 못하게 됐어서 설 자리가 없었는데 청년오케스트라가 생긴 거죠.

권성은 기존 부산시향 그리고 청소년오케스트라가 있는데 그 중간 단계 역할을 하는 게 이 청년오케스트라입니다. 작년까지 만 35세였다가 너무 제한적이라 만 39세로 제한이 올라갔는데, 나이가 되면 자연히 나가게 되는 게 중요합니다. 오케스트라 연주자가 다 비슷한 사람들 아니냐 하는데, 청년들만 모여서 할 수 있는 단체는 유일한 겁니다.

박시연 대형 단체는 상임 연주자들을 고용하는 반면, 대부분의 중소단체 연주회는 파트별로 많은 연주자 중 시간이 되는 연주자를 섭외해 진행되며, 평균적으로 2번

이나 3번 정도 연습 시간을 가진 후 연주회가 진행됩니다. 앙상블을 만들기 다소 부족한 시간이라 연주 퀄리티에 한계가 있습니다. 하지만, 청년오케스트라의 경우 같은 멤버로 2회 공연을 하니깐 같이 호흡하고 앙상블을 이루며 음악을 만들어 갈 수 있었습니다.

홍기정 이번에 김푸름 선생님이 악장을 했습니다. 다른 민간 단체에선 중간이나 맨 뒤에서 연주할 텐데, 실제로 본인이 리더 할 수 있는 능력이 충분해도 다른 데선 할 수가 없어요. 다른 선생님들도 어리니까 관악기 경우에도 세컨드만 붙어야 하는데 여기서 퍼스트를 볼 수 있고 그게 굉장히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해요.

오수연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음악 포함한 모든 예술 분야가 치고 나갈 수 있는 환경이 되어야 하는데 위에서 놀려면 주저앉아져요. 자기만의 역할을 해보고 같은 프로들에게 인정받고, 그래야 선배들도 놀라면서 청년 연주자들이 저렇게 할 수 있구나, 생각합니다. 청년오케스트라 활동으로 연습과 경험을 쌓고 서울에 가지 않고도



SNS와 같은 새로운 방식을 통해 성공할 수도 있습니다.

애로사항과 문제점 그리고 개선 방안

오수연 연습은 한 달에 몇 번 정도 만나서 합니까?

홍기정 규칙적인 연주회가 잡혀있고 정기적으로 연습을 할 수 있으면 제일 좋지만 사실 지속성이 없습니다. 하반기에만 공연이 있으니 상반기는 그냥 지나갑니다.

권성은 연습실이 없고, 대여료도 만만치 않습니다. 무엇보다 음악협회 예산으로는 오케스트라를 할 수가 없어요. 부산예술제 예산으로 <가곡과 아리아의 밤>, 문화재단에서 받는 예산으로 <창작오케스트라의 밤> 이렇게 두 번 합니다. 둘 다 가을이라 5월에 모집 공고 내고 6월 오디션 보고, 10월 공연 있을 때 네 번 정도 연습하게 됩니다. 연주자들 스케줄이 바쁘기 때문에 잡자기 모일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반주 위주의 공연인데 청년 오케스트라 자체의 공연을 위한 무대를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박시연 연습하거나 할 때 예를 들면 부산문화회관 주차비 2천 원이라곤 하지만 여러 번 되면 그것도 무시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라구요. 또 열심히 연주하기 위해 먹는 것도 중요한데 전에 김밥 한 줄 먹고, 한 줄 더 먹으면 안되니까 제가 더 먹으면 다른 사람이 굶는 거예요. 작은 부분이지만 그런 데 힘이 빠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승연 다 함께 힘을 합치는 분위기라 김푸름 선생님과 다른 분들 도움으로 극복했지만, <창작오케스트라의 밤> 때 악보가 B4가 아니라 A4로 작게 나와서 당황한 적이 있어요.

권성은 악보비가 사실 70만 원이 들어갑니다. 예산이 부족하다 보니 그 복사비마저 아껴야 해서 그때 제가 직접 복사를 다 했는데 음악협회 복사기가 오래 되어서 성능도 안 좋습니다. 그러다 보니 A4로 악보가 나가는 일이 생겼습니다.

홍기정 예산이 많으면 밖에 의뢰하면 간단하데 권성은 회장님이 직접 하느라 고생 많이 했습니다.

박수철 저는 홍보가 조금 더 되어서 더 많은 관객들이 즐길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오수연 연습실, 청년오케스트라의 지속성을 만들어가는 것 등 모든 것이 결국엔 음악협회 예산 증액이 필요한 문제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청년오케스트라만의 특색 있는 무언가를 만들어야 하고, 앞서 얘기 나온 차별점을 부각시켜야 합니다. 그리고 홍보 문제는, 예중에서도 스팟이나 신문 광고 대신 서포터즈를 활용해 봤는데 예산이 훨씬 적게 듭니다. 무엇보다 인스타그램 같은 매체를 활용해서 예술인들 스스로 계속 올리고 홍보해야 합니다. 처음에 품앗이하듯 서로 관객으로 돕고 더 많은 사람에게 감동을 줘서 오케스트라 해야 해요.

부산오페라하우스와 부산콘서트홀에 대하여

오수연 부산오페라하우스와 콘서트홀이 만들어지고 있고 정명훈 씨가 예술감독으로 왔습니다. 이에 대한 청년 음악인들의 생각이 궁금합니다.

김푸름 저는 사실 조금 우려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부산에서 음대 졸업하고도 무대 설 자리도 없고 하니까 다들 연주를 하진 못해요. 오페라하우스 짓고 콘서트홀도 짓는다고 했을 때 이제 부산 음악인들이 활성화되겠다는 기대를 가졌는데 정명훈 선생님이 오신다고 해서, 서울에서 와서 연주를 하겠구나, 싶었어요. 부산에 있는 사람들로 구축이 좀 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권성은 두 곳 다 부산시 세금으로 운영해 갈 공간입니다. 만약 정명훈 씨가 다 만들어진 걸 갖고 와서 무대에 올리면 세금이 다른 데로 나가는 것처럼 되는데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홍기정 시에서는 세계적인 오페라하우스를 만들기 위해 명망 있는 인물이 필요하니 그 부분은 납득이 됩니다.

그래서 그러면 이름을 그렇게 두고 밑에 연주자는 95% 이상 부산 사람으로 해야 한다, 그걸 얘기했습니다.

오수연 비엔날레라던지 시립미술관, 국제무용제 등 부산의 다른 경우를 보면 60%만 해도 많은 게 될 겁니다. 그래서 협회가 필요합니다. 부산에 이런 청년 음악인들이 있다, 이들을 부산에 머물게 해야 한다는 걸 이야기해야 합니다. 그래야 소위 A급 실력의 연주자가 지역에서 배출된다는 걸 보여줘야 합니다. 청년들 또한 언제든 연주 영상을 보여줄 수 있게끔 준비해야 합니다.

다니엘S김 저는 부산시립교향악단에 입단해서 21년째 하고 있고 10여 년 전에 오창근 예술감독님 밑에서는 부산심포니오케스트라, 등등 여러 오케스트라와 공연을 경험해봤습니다. 시대가 변하면서 영상 시청 문화가 생기고 지역 음대 문제도 생겼으며 서울과의 격차는 커지고 있습니다. 2023 대학교향악축제를 한다고 신문에 나오는데 제가 알기로 학교에서 관현악이 안됩니다.

박시연 여기 나와 있는 목관악기 같은 경우 저는 다 게스트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다니엘S김 참여하는 오리지널 대학생들, 그 악기들이 학교에 없고 학생 자체가 없어요. 제가 하고 있는 시립도 대부분 서울에서 다 와 있습니다. 대학 오케스트라도 안 되는 부산과 기회가 있는 서울의 수준 차이가 굉장히 많이 벌어지고 있어요. 이런 상황에, 물론 흥행을 위해 공연의 질과 유명세 2개가 필요합니다. 그럼에도 물리적인 시간이 짧기 때문에 지금은 수준이 안되도 더 발전하고 자라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역 음악인들이 위로 올라갈 수 있는 고리가 끊기는 기분입니다. 투자해서 키우는 게 부산시의 역할입니다.

오수연 서울은 정말 치열하게 연습합니다. 부산에서도 더 치열하게 해야 서울과 경쟁이 되고 부산의 특수성도 가질 수 있습니다.

다니엘S김 그러기 위해 모티베이션, 동기와 비전이 필

요합니다. 정명훈 예술감독님 하에 새로운 오케스트라를 만들겠다고 비전을 먼저 제시해야 거기 끼기 위해 부산에서든 누구든 연습을 시작합니다. 그래서 부산시가 음악인들에게 희망, 열심히 노력해서 저기에 참여할 수 있다는 비전을 내년 초이라도 주면 좋겠습니다. 음악인으로서 바깥에서 소속될 수 있는 공신력을 가진 건 음악협회 뿐이고 따라서 협회가 중요해지는 시기가 정말 왔다고 생각합니다.

오수연 세금으로 짓는 오페라하우스, 콘서트홀이 과연 필요할까, 그건 부산 작가들이 나도 언젠가 저 무대에서서 연주할 수 있겠다는 꿈과 희망을 가질 수 있기 때문이라는 말을 음악인들에게 들었습니다. 새로운 공연장이 지역 예술인의 자부심, 희망이 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청년오케스트라의 미래

목정아 부산 청년 음악가에게 이런 좋은 기회가 꾸준히 이어지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매년 오디션보단 정단원(고정단원) 방식이 되면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청년오케스트라에 소속되어 있다, 라는 그런 자존감도 생길 수 있도록요.

권성은 그 부분에 대해서는 홍기정 단장님과 함께 의논하며 고려 중입니다. 단지 매년 공모를 내는 게 외부에서 볼 때는 가장 바람직할 수 있어 고민 중입니다.

박시연 어떤 단체에 함께하고 싶다는 동기는 단원들의 평가에서 더 생기는 것 같아요. 청년오케스트라도 사실 오늘 들어보니 저희가 알지 못했던 예산 문제가 많지만, 그런 것들이 개선되서 치우가 더 좋아지면 활성화와 홍보 등에도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김푸름 청년오케스트라 하면서 느낀 점이, 지자체나 지역구에서 이런 오케스트라를 많이 활성화시켜주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했어요. 요즘 지방에는 예중, 예고는 물론이고 음대까지 학생이 많이 없습니다. 어떻게 보면 음악



전공하는게 '먹고 살기 힘들다'는 인식이 강해서 그런 것 같아요. 제2의 도시 부산인데 시에는 시립교향악단도 있고 청소년오케스트라도 있으니 우리 청년오케스트라에 관심을 많이 가져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서울에 유명한 사람들, 다른 지역 사람들을 단원으로 데려오기보다는 부산의 전공자들로 구성된 오케스트라를 활성화 시키면 어떨까 합니다. 부산에 앙상블 단체도 정말 많아요. 오케스트라, 앙상블 단체가 활성화되서 연주 기회가 많아지면 전공자들도 연습을 안 할 수가 없고, 시작은 미비해도 퀄리티가 점차 올라갈 거예요. 그러다 보면 음악을 전공한 청년들 일자리 문제도 완화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오수연 청년들 개개인 이 음악협회라는 단체에 소속이 되어서 목소리를 크게 내고, 대변할 수 있게 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협회라는 게 존재감이 없죠. 시청 가면 회원이 몇 명인지부터 물어봅니다.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무엇을 바라기보다 먼저 나서서 해줄 것을 생각하면서 다음 후배들을 위해 책임감, 봉사 의식을 갖고 해야 합니다.

2시간가량 진행된 좌담회에서 청년층을 위한 유일무이한 오케스트라라는 [부산청년오케스트라]만의 차별점, 단원들의 유대감을 키움으로써 연주의 질을 높일 수 있기에 지속성이 필요하다는 의견, 부산오페라하우스나 부산콘서트홀을 바라보는 부산 청년 음악인들의 염려 어린 시선 등 많은 이야기가 오갔다. 예술계 역시 우리 사회의 일부이기에, 수도권 중심주의가 심화하며 심각해지고 있는 지역 청년 인재 이탈 문제에서 자유롭지 않다. 청년 인재 이탈의 이유가 결국 '설 자리'의 부족이라고 봤을 때 특정 연령대에만 활동할 수 있는 청년오케스트라의 존재 의미는 분명하다. 부산 음악계의 존속 및 발전에 필수라 할 수 있는 음악인 인재풀(Pool)의 선순환을 위한 역할도 있다. 각각 활동하게 마련인 음악인들을 모으고 대변하는 단체로서 부산음악협회에 보다 힘이 실려서 [부산청년오케스트라]의 내일이 오늘보다 빛나도록, 지속적이고 발전적인 오케스트라로 운영해 나가길 바라본다.

정리_이효민

음악으로 본 세상이야기Ⅷ

부산, 오페라를 품다

‘오페라는 언어예술, 시각예술, 음악예술이 이상적으로 혼합된 종합예술이다.’ 국어사전에서 찾은 오페라의 정의다. 결국, 언어 즉 문학과 시각, 미술을 비롯한 의상, 무대 디자인, 소품 등 다양한 도구와 음악의 만남이다. 이러한 요소가 성악의 아름다운 소리를 통하여 전달된다. 여기서 중요한 한 가지가 성악가의 역할이다. 작곡, 연출, 지휘를 비롯한 다양한 사람들이 모든 방안을 다 동원하여 만들어 낸 오페라가 성악가의 소리를 통해 최종 전달되다 보니 성악가의 중요성에 방점을 두는 것이다. 하지만, 오페라가 종합예술이라는 정의를 통해서도 알 수 있듯이 모든 장르의 예술이 모여 어느 한 곳이라도 놓칠 수 없는 분야가 오페라이다. 이러한 오페라 이야기를 지난 7회의 연재를 통하여 조금 살펴보았다. 마지막으로 부산 오페라 활성화를 위해 함께 준비하여야 할 몇 가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2022 부산오페라시즌 콘서트 오페라 <가면무도회>(금정문화회관)

대학의 중요성

부산에는 음악대학이라는 단과대학이 한 곳도 없다. 예술 대학 또는 타 전공과 함께 묶여서 단과대학으로 형성되어 있다. 음악의 전공성에 차별을 기대하기가 힘들다는 약점이 있으나, 넓게 생각하면 타 전공 분야와의 협업이 가능할 수 있다는 기대감도 갖게 된다. 오페라와 관련된 강의는 부산 대학교 예술대학 음악학과에 4학년을 대상으로 한 Opera Workshop, 경성대학교 예술종합대학 음악학부 그리고 동의대학교 예술디자인체육대학 음악학과에서 3학년을 대상으로 한 오페라 클래스 등 부산 소재 14개 4년제 대학 중 3개 대학에만 있다. 부산은 대한민국 제2의 도시이며, 320만 명이 생활하고 있다. 이러한 도시 부산에서 오페라와 관련된 강의를 진행하는 대학이 3개 대학이고, 각 대학에서는 두 학기만 강좌를 진행한다. 각 대학은 오페라라는 것이 따로 강의를 두어야만 하는 것이 아니라 음악대학 4년 동안 일어나는 다양한 수업의 결집체이기에 꼭 오페라 명칭이 들어간 관련 강좌가 중요한 게 아니라고 항변할 수 있다. 하지만, 모두가 선망하는 한국예술종합대학의 음악원을 살펴보면 1학년 때부터 오페라 클래스를 4년 동안 배우며, 4학년에는 오페라 및 가곡 코치를 두 학기에 걸쳐 수학하게 된다.

여러 분야의 전공이 모여 진행되는 오페라 작업의 특성상 다양한 분야의 전공을 이해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하다. 한 번쯤 오페라를 만들어 본 사람들은 잘 알 것이다. 오페라 작품을 만드는 것은 오페라 역사를 비롯하여 시대적 문화사와 연기 이론 및 실기, 언어의 이해 등 해결해야 할 것이 무엇보다 많은 작업이라는 것을. 무엇보다도 성악가는 매우 중요하다. 노래 한 가지만 잘해서 좋은 오페라 가수가 되는 것은 아니다. 좋은 오페라 가수를 육성하기 위해서 대학은 오페라와 관련된 보다 수준 높은 강좌를 만들어야 한다. 좋은 것은 벤치마킹(Benchmarking)할 필요가 있지 않겠는가. 오페라 강좌가 꼭 음악 관련 전공학과에서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대학 교양과정에도 개설되어 다양한 오페라를 일

반 학생들도 배우는 기회를 만들어야 한다. 오페라 제작에는 음악만 있는 것이 아니기에 디자인과, 의상과, 분장과를 비롯하여 여러 전공에 오페라 관련 강좌를 개설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이러한 점에서 부산 소재 각 대학에서는 오페라 관련 강좌를 개설하여 오페라 관련 산업을 육성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

시민을 향한 예술가들의 적극적인 오페라 구매(求愛)

예술 행위의 최종 목적은 무엇일까? 자기만족인가? 아니면 예술 행위를 통한 수익 창출인가? 혹은 시민 사회를 향한 메시지 전달인가? ... 다양한 의견들이 있을 수 있다. 관객이 없는 예술 행위는 어떨까? 예술 행위의 최종 목적이 각자의 주관에 따라 조금씩 달라질 수는 있어도 분명한 한 가지는 관객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더욱이 오페라는 접근이 쉽지 않은 장르이기에 예술가들은 관객을 향한 끊임없는 구애가 필요하다. 필자의 기억에 오페라는 너무도 재미없고 지루한 음악의 장르였다. 학창시절 강제로 끌려가는 심정으로 오페라 관람을 가면 알지도 못하는 언어에 어색하기 짝이 없는 동작, 노래도 잘 하지 못하는 성악가와 너무 시끄럽기만 한 오케스트라 반주 등 오페라를 듣는 동안 아주 고역이었던 기억이 있다. 음악선생님에 의해 강제 동원된 학생들이 차분히 앉아서 관람하기를 기대했다면 그건 음악선생님의 착각이었다. 무엇이 문제였을까? 관람할 공연의 내용을 모르고 갔기 때문이다. 어쩌면 어렵고 긴 문학을 보다 쉽게 풀어진 것이 오페라인데, 내용을 모르니 뭔들 재미있겠는가? 더군다나 알아듣지 못하는 외국어를 말이다.

예술가 각자들은 시민들을 상대로 오페라에 대한 다양한 강좌를 비롯하여 오페라 감상법을 알리는 작업을 스스로 해야 한다. 알아야 듣게 되는 것이며, 공연장을 찾게 된다. 이는 오페라를 알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예술가 스스로 자신의 팬 관리를 하는 것도 되는 것이다. 필자는 부산오페라하우스 공사 현장에서 현장 인부를 상대로 오페라 강의를 할 기회가



부산오페라하우스 공사현장 강연(2022. 6. 3.)

있었다. 공사장 인부들이 아무도 오지 않을 줄 알았는데 강의실에 들어서면서 깜짝 놀랐다. 가득 들어찬 공사장 강의실에서 오페라를 설명하고 성악가를 통해 오페라 아리아를 들려주었더니 반응은 최고였다. 이런 강연은 처음 듣는다는 것이다. 오페라하우스가 완공되면 꼭 공연을 찾겠다는 이야기를 들을 수 있었다. 모두가 찾을 수 있는 공연장을 만드는 일에 예술인들이 더욱 적극적으로 나서야 하는 이유다. 시민들이 공연장을 찾지 않는다고 불평만 할 것이 아니라, 스스로가 관객 개발에 더욱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 다양한 방법으로 오페라의 필요성을 시민들에게 알려야 한다. 오페라를 즐길 수 있는 사회 분위기와 환경을 만들려면 전문예술가 개인들이 더욱 앞장서야 함이 당연한 것이다.

오페라단의 전문성

부산에는 다양한 오페라단이 자리하고 있다.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오페라 기획사들이 있다는 것이다. 명칭은 ○○○ 오페라단이지만, 내용은 단장과 직원 서너 명이 전부다. 어떤 단체는 단장만 있기도 하다. 다른 일도 병행하면서 오페라단이라는 명칭의 단체를 소유하고 있을 뿐인 경우다. 이러한 단체들 중에는 부산시립오페라단을 만들자고 꾸준히 외쳤던 분도 있다. 문제는 자신이 속한 단체에 부산시립이라는 명칭을 부여하고 싶었다는 것이다. 부산시립극단을 살펴보자. 단장과 몇몇 직원으로 구성된 단체가 아니다. 부산시립극단 소속 배우들을 비롯하여 다양한 스태프들이 상주하며 작품을

만들고 있다. 여기에 합창과 오케스트라가 함께하는 오페라단을 너무 쉽게 생각하는 것 같아 당시에 필자와 의견대립을 벌이기도 했다. 오페라단이든, 오페라 기획사든 자신의 역할에 보다 구체적인 청사진이 있어야 한다. 서로가 화합하여 어떤 역할들을 담당할 것인지 명확하게 논의하여야 한다.

부산의 오페라 활성화를 위해 각 오페라단의 적극적인 관객 개발은 필수다. 가용할 수 있는 소속 단원들과 다양한 방법을 동원하여 먼저 오페라 활성화를 일으키는 일부터 시작해야 한다. 이 일은 돈만으로 해결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진심으로 오페라를 사랑하는 마음이 먼저다. 각 오페라단 단장과 소속 단원들은 대부분 외국 유학을 갔다 왔을 것이다. 먼저 언어에 대한 이해를 위해 이탈리아어 혹은 독일어를 일반 시민들 상대로 강의를 시작해 보라. 낮은 자세로 시민들에게 적극적으로 다가가 오페라를 이야기하는 것이 오페라 활성을 위한 첫걸음이다. 오페라에 사용된 언어를 이야기하면서 그 당시의 사회, 문화사 등을 같이 이야기하는 것은 아주 중요한 일이다. 이는 실질적인 홍보이며 맞춤형 관객 개발이다. 여기엔 봉사하는 마음과 시간이 필요하다. 필자는 20년이 넘는 세월을 매주 시민들에게 무료 강의를 하고 있다. 무료 강의가 대단한 것이 아니라 관객과 쉽고 편안하게 만나는 기회를 만드는 걸 말하는 것이다.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소개하는 것이며, 시민들이 알고 싶은 것과 원하는 것을 더불어 찾아가는 것이다. 이러한 일을 진행하면 작품 제작에도 도움이 된다. 이 시간이 쌓이면 자연스럽게 오페라는 활성화 될 것이다. 나는 유명하니, 나는 대접받는 예술가이니 등 다양한 이유로, 그냥 연주만 하면 된다는 식으로 생각해선 안 된다. 이제는 먼저 다가가야 한다. 더욱 겸손하고 적극적으로 시민들과 만나는 예술가들의 모습이 기다려진다.

관련 기관의 적극적인 행정이 필요한 시점

부산오페라하우스 건설이 이런저런 이유로 인하여 순항을 타지 못하고 있다. 그러다 보니 시민들의 관심이 점점 멀

어지는 듯해 매우 안타까운 마음이다. 하지만 달리 보면 오페라를 더욱 활성화할 수 있는 시간이 주어졌다고 볼 수 있다. 부산오페라하우스가 완공되고 다양한 공연들이 펼쳐지는데 관객이 생각보다 적다면 참 난감한 일이다. 완공 전 오페라를 조금이라도 더 알릴 수 있는 시간이 생긴 것이다. 초·중등학교부터 대학에 이르기까지 학교에 맞는 맞춤형 홍보를 진행하기 위하여 선생님과 교수를 비롯한 다양한 관계 기관과의 긴밀한 협업을 통하

여 오페라를 적극적으로 알려야 한다. 부산오페라하우스가 지어지는 것도 중요하지만, 왜 지어지는지, 시민들의 삶에 어떠한 영향력이 있는지, 시민들과 더불어 생각하고 토론하는 시간을 많이 만들어야 한다. 부산오페라하우스가 일부 예술인들을 위한 놀이터가 아닌 부산시민들 그리고 많은 사람이 함께 즐기는 예술공간임을 알려야 한다.

처음 접하는 사람들은 낯선 것에 대해 막연한 거리감이 있다. 이를 해결하는 방법은 더불어 생각하는 힘에서 나온다. 시민들과 더불어 생각하고 행동하기 위해서는 먼저 다가가는 일을 다양하게 연구해야 한다. 관련 기관과 함께 다양한 방법으로 논의하고 찾아가는 일을 게을리하지 말아야 한다. 부산의 랜드마크는 가능한 한 다양한 사람들이 찾아서 즐길 때 가능하다. 시민들의 관심과 요구가 필요한 시점이다.

부산, 오페라를 품다.

부산에 오페라를 위한 전용 공간이 만들어진다는 소식을 처음 접했을 때 필자는 참 많은 기대와 걱정이 앞섰다. 이유는 간단하다. 사람들이 제사보다 젓밥에 더 많은 관심을 가질 것을 염려해서다. 예상은 빗나가지 않았다. 이러한 난관을 부산시와 관련 부처에서 나름 슬기롭게 잘 진행하고 있다는 평가다. 어떠한 난관이 있어도 이제는 물러날 수 없으



부산오페라하우스 조감도

며, 물러설 곳도 없다. 반드시 성공시켜야 한다. 가장 큰 성공의 귀결은 시민들과 더불어 시민의 공간으로 탄생할 때 비로소 완성될 것이다. 이를 위한 더욱 적극적인 행정이 필요한 시점은 바로 지금이다. 부산오페라하우스의 외형과 더불어 내용을 더욱 착실하게 다져가는 시도와 실험을 조금 더 적극적으로 진행하여야 한다. 관객 개발의 방안으로 오페라 교육을 위해 학교와 긴밀하게 협력해야 한다. 또한, 현장의 예술인들과도 많은 소통이 있어야 한다. 이럴 때 시민과 더불어 오페라 축제의 장이 펼쳐진다.

Busan is Good. 부산이 좋다.

이는 부산이 좋은 이유를 본인과 주변이 체험하고, 부산을 생각하는 힘을 키울 때 가능하다. 막연하게 그냥 좋은 부산은 없다. 관념적으로 또는 명시적으로 좋다고 결코 좋은 것이 아니다. 몸으로 느끼고, 마음으로 공감하여야 좋은 것이다. 더불어 좋은 부산이 우리 모두의 행복을 위한 첫걸음인 것을 잊지 말아야 할 것이다. 필자는 누가 뭐라 해도 부산이 좋다. 문화의 불모지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을 보면서 문화의 노다지로 바라보고 걸어가며, 말하고 싶다. 필자는 “문화노다지 부산이 좋다”고.

글_정두환 문화유목민, 문화유목집단동행 예술감독

발레가 있는 무대VI

발레, 런웨이를 걷다



반 클리프 아펠(반 클리프 아펠 홈페이지)

MZ 세대 패션 트렌드에서는 일명 ‘발레 코어룩’이 화제다. 이는 발레와 일상의 편안함을 자연스레 담은 패션인 ‘눔코어’의 합성어로, 발레복을 일상에서도 입을 수 있게 응용한 의상을 의미한다. 발레 슈즈, 스커트, 스타킹, 워머 등 연습실에서 볼 수 있는 아이템들이 일상복과 다양하게 결합하여 옛되고 여성스러운 분위기를 연출하는 것이 아마도 이 패션의 포인트일 것이다. 발레는 오페라극장과 같은 고전적인 공연장에서 화려하게 꽃을 피웠지만, 이처럼 발레가 주는 이미지는(비록 고정적이긴 해도) 오늘날의 방식으로 톡톡 튀는 일상을 관통하기도 한다. 그러나 이러한 현상이 단지 MZ 세대의 독창적인 전유물은 아니다. 따라서 이번엔 런웨이, 즉 화려한 패션 무대에 등장한 발레의 모습과 일상으로의 확산을 들여다보고자 한다.

도시에서 발레 스텝을

여성들 사이에선 폭넓은 연령대에서 오랫동안 많은 인기를 누리고 있는 구두가 있다. 일명 발레리나 슈즈, 혹은 발레 플랫 슈즈. 신으면 마치 발레 스텝을 밟을 수도 있을 것 같은 이 가벼운 슈즈는 분홍색 발레 연습용 슈즈에서 착안된 것으로, 낮은 굽에 부드러운 가죽 재질로 되어 편안함이 최대 장점으로 꼽힌다. 해외 명품부터 국내 캐주얼 브랜드까지 유사한 제품을 쏟아내며 전 세계적으로 소비되는 이 발레 플랫은 미적인 측면과 실용성을 겸비함으로써 오늘날 하이힐의 대척점에 있는 여성 구두의 대명사가 되었다. 그렇다면 이 슈즈는 어디에서 유래되었으며 어떻게 탄생했을까. 언뜻 보면 흔한 발레 슈즈의 이미지에서 모티브를 가져온 현대의 패션 아이템 정도

로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이 슈즈의 탄생에는 좀 더 깊은 발레의 미학과 역사가 깃들어있다.

플랫 슈즈의 원조는 프랑스 발레용품 회사인 레페토 Repetto에서 찾을 수 있다. 시작은 아들을 생각하는 평범한 엄마의 마음이였다. 프랑스 현대발레의 거장 롤랑 프티 Roland Petit¹⁾의 어머니인 로즈 레페토 Rose Repetto는 1947년 파리 오페라 극장 근처 작은 공방에서 연습 때 발의 불편함을 호소하는 아들을 위해 편안한 발레 슈즈를 만들기 시작했다. 수작업으로 정교하게 생산된 레페토 발레 슈즈는 당시 파리 오페라 발레 단원들에게 ‘마법의 신발’이라 불리며 즉각적인 인기를 얻게 된다. 아들의 영향으로 프로 무용수의 ‘편안함’에 가장 중점을 두었던 초창기 레페토는 이내 프랑스 여배우 브리짓 바르도 Brigitte Bardot에 의해 세계적으로 명성을 얻는 계기를 맞는다. 1956년 영화 <그리고 신은 여자를 창조했다 Et Dieu créa la femme>의 출연을 앞두고 바르도는 로즈 레페토에게 레페토의 발레 슈즈를 닮은 우아하고 편안한 구두를 제작해달라고 요청한 것이다. 이는 전문

발레 슈즈의 상용화인 일명, ‘시티 버전’이 탄생하는 순간이었다. 로즈 레페토가 바르도를 위해 제작한 붉은 색 La Ballerin Cendrillon(신데렐라 발레 플랫)은 영화를 통해 일반인의 주목을 받으며 유행의 반열에 오르게 되었다. 스크린 속 바르도의 발레 플랫은 그의 관능적 이미지에서 더욱 자유분방하고 활기찬 도시의 여성상을 더하는 데 일조하였기에 이내 플랫 슈즈는 젊은 여성들에게 폭발적 인기를 불러 일으켰다.



레페토 플랫 슈즈(레페토 공식 온라인 스토어)

이러한 대중적 인기는 수많은 타 브랜드에서도 유사한 모양의 구두를 대량으로 생산하게 했고, 오늘날 발레 플랫은 코가 동글고 굽이 낮은 편안한 여성 구두를 지칭하는 보편적인 이름이 되었다. 발레 플랫이라고 해서 여성에게만 국한되는 것도 아니다. 최근, 패션계의 '젠더 플루이드' 현상에 힘입어 등장한 남성용 발레 플랫은 여성성의 경계를 넘나든다는 정치적 의미를 부여하지만, 그 공간에는 아들을 향한 로즈 레페토의 초심, '실용적인 편안함'이 굳게 자리하고 있다. 2013년 마침내 국립발레단이 '춤의 마술사' 롤랑 프티의 수작들을 국내 초연했을 때, 레페토가 후원사로서 극장 로비를 장식한 것은 지극히 당연한 모습이었다. 그리고 이후에도 꾸준한 후원과 사회 공헌 사업으로 발레에 대한 사랑을 전하고 있다.

발레리나 같은 보석으로

네잎 클로버 모양의 우아한 디자인으로 국내에서도 많은 사랑을 받는 주얼리 브랜드 반 클리프 앤 아펠(Van Cleef & Arpels, 이하 반클리프) 역시 지난 수년 간 국립발레단을 공식적으로 후원해왔다. 특히 조지 발란신의 <Jewels>를 초연하며 작품의 영감이 되었던 반 클리프 앤 아펠과의 인연을 소개했을 때 일반 발레 애호가들에게 브랜드 이미지는 더 각별하게 다가왔을 것이다.^(8월호 참조) 보석에 얽힌 발레의 제작 비화로 발란신과 반 클리프는 동시에 스포트라이트를 받았지만, 사실 이 브랜드는 발란신 이전부터 꾸준히 발레에 대한 사랑과 헌신을 실천하고 있었다.

<Jewels>의 구상과정에서 발란신과 친교를 맺었던 클로드 아펠의 삼촌 루이 아펠은 1920년대 열렬한 발레 애호가로 발레와 인연을 맺었으며, 조카 클로드와 함께 자신의 부티크와 인접한 오페라 가르니에 극장에서 종종 발레를 즐겼다고 알려져 있다. 1940년대 초 루이의 제안으로 탄생한 것이 바로 오늘날까지 생산되는 'Ballet

Précieux' 컬렉션이다. '고귀한 발레'라는 의미의 이 컬렉션은 각종 보석을 세공하여 발레리나의 형상을 하이퀄리티의 브로치, 목걸이, 시계 등으로 제작한 것으로, 발레에 대한 아펠 집안의 각별한 사랑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이다. 이 컬렉션이 더욱 의미 있는 이유는 단지 동시대 발레리나의 외형을 아름답게 형상화한 것이 아니라 사료 속 인물과 작품에 대한 진정한 오마주를 표현하고 있기 때문이다. 대표적인 예로 발레의 혁신을 이룬 18세기 무용수 마리 카마르고²⁾, 20세기 전설적인 발레리나 안나 파블로바³⁾ 등이 브로치로 제작되었으며, <라 실피드>, <백조의 호수>, <호두까기인형> 등 많은 고전발레의 명작들이 끊임없는 영감이 되었다. 모든 제품엔 발레에 내재한 리듬, 그리고 선과 움직임이 주는 예술성이 반영되어 아름다움 그 너머의 깊이를 더했다. 발란신과의 만남이 화제가 된 후 발레 <Jewels>가 이 컬렉션에 포함되는 것은 당연했다. <Jewels>의 주제가 된 세 보석은 각각 시계와 브로치 등으로 만들어지는 제작 과정까지 '예술적으로' 영상화되어 춤의 추상성을 시각적으로 공유했다.

앞서 소개한 플랫 슈즈와는 달리, 보석으로 세공된 반 클리프 발레 컬렉션은 오프 꾸뛰르에 자주 등장할법한 고가의 명품으로 일반인들이 일상에서 선뜻 소비하기란 쉽지 않다. 하지만 발레와 보석에서 오랜 시간과 노력이 드는 '열정, 창의성, 장인정신'이라는 접점을 찾고 발레를 통해 '영속적인 고전의 가치를 확장하는 회사의 꾸준한 노력은 일상에서 예술의 선순환 사업으로 가시화된다. 발레를 향한 변함없는 사랑을 기반으로 반 클리프는 국립발레단 뿐만 아니라 오랜 기간 동서양을 가리지 않고 세계 유수 발레단의 후원사로 적극 참여해왔다. 또한, 2022년부터는 미국에서 <Dance Reflection by Van Cleef & Arpels>이라는 새로운 예술 후원 프로그램을

주관하기도 한다. “안무 유산과 현대적 창의성을 지원하고 가능한 한 많은 사람과 예술 세계를 공유”하고자 하는 프로그램 취지에서 감지할 수 있듯, 고전에 머무르지 않고 동시대를 이어 ‘창작, 전승, 교육’의 가치를 확산시키고자 하는 경영의 미래지향적 자세가 엿보이는 행보이다.

연재의 막을 내리며

클래식 발레 대중화에 크게 이바지한 공연형식인 <해설이 있는 발레>의 주안점은 지식 확산과 관람 예절이었다. 관객은 해설을 통해 작품의 극적 구조와 하이라이트를 쉽게 파악하고, 공연 흐름에 따라 자연스레 호응하는 법을 배우며 실시간 무대 위 춤과 교감하는 즐거움을 만끽할 수 있었다. 부산의 발레 공연에서도 해설은 자주 등장하지만, 해설자의 관점에서 필자는 ‘아는 만큼 보인다’라는 말이 지닌 양면을 생각해보곤 했다. 쉬운 해설이 감상에 도움이 될 수도 있지만, 자칫 편견을 심어줄 수도 있다는 점이다. 비록 의도친 않아도 알지 못하면 볼 수 없다는 권위가 은연중 실려 관객의 ‘보는 자유’를 침해하진 않을까 고민하기도 한다. 공연 해설은 그만큼 짧고 제약도 크다. 발레는 화려한 무대 위에서도, 무대가 아닌 일상에서도 다양한 삶의 이야기를 품고 있다. 지난 6개월간 연재를 이어가며, 관객에 대한 배려나 교육 차원의 해설이 아니라, 일반 관객이 공연장으로 발걸음을 향하고 발레를 사유할 수 있는 일상이 늘어나기를 바라면서 클래식 발레 이야기를 조금이나마 풀어보았다.

몇 년 전 기억을 잠시 떠올려본다. 2019년 부산에서 처음 공연된 매튜 본의 <백조의 호수>가 보여준 높은 객석 점유율은 무척 인상적이었다. 현장에서 목격한 바로는 극장을 채운 관객은 일반 애호가들의 비중이 압도적이었기에 발레인으로서 뿌듯하면서도 한편으론 ‘16년 내한 역사상 최초의 지역 공연’이란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 수도권에 집중된 한국 공연계의 현실을 보는 듯하여 씁쓸한 마음이 들기도 했다. 이제 부산도 곧 오페라하우스와 콘서트홀 등 새로운 클래식 공연장이 개관을 앞두고 있다. 쉬운 공연보다는 양질의 공연을 통해 더 많은 사람이 발레와 폭넓게 교감하고, 클래식 예술의 묘미가 일상의 사유에 한층 녹아들기를 바라면서 <발레가 있는 무대>의 막을 내린다.

글_노영재 춤비평가(사)한국발레협회 부산경남지회 부회장

- 1) 파리오페라발레단 출신인 롤랑 프티(1924-2011)는 프랑스 대표적인 현대발레 무용수이자 안무가로, 판타지와 현실을 적절히 섞은 내러티브와 연극적 효과가 뛰어난 작품으로 호평을 받았다.
- 2) 18세기 파리오페라 수석 발레리나인 마리 카마르고는 이전 궁정 발레의 인재인 굵 높은 구두와 육중한 드레스 대신 낮은 슬리퍼와 종아리까지 드러나는 짧은 스커트를 착용함으로써 발레에 혁신을 가져왔다. 카마르고의 진취적인 시도는 정교하고 역동적인 발레 스타일로 진화하게 했으며, 이로 인한 표현의 확대는 대중적으로 큰 인기를 가져왔다.
- 3) <빈사의 백조>로 널리 알려진 20세기 발레리나의 대명사 파블로바 역시 발레사에서 혁신적 인물로 손꼽힌다. 러시아 황실 발레와 발레 뤼스 출신인 파블로바는 표현성을 강조한 움직임으로 고전적인 춤에 생명력을 불어넣었다. 또한, 남성 안무가가 주축인 발레단을 떠나 자신만의 작은 무용단을 만들어 전 세계 순회공연을 함으로써 안무가이자 발레리나의 삶을 적극적으로 개척해나갔다.

예술아카데미 발표회 '예술잇지'

12. 7.(목) 오후 7시 부산예술회관 공연장



부산예술회관이 운영하는 예술아카데미는 예술을 통한 생활의 활력과 원동력을 지역민들에게 제공하는데 기여하고 있다. 예술아카데미 수강생들이 일상 속 틈틈이 쌓아온 끼와 열정을 함께 나누고 즐기는 축제의 장 '예술잇지'가 2022년에 이어 12월 7일 열린다. 파트너 없이 라인을 만들어 추는 라인댄스, 팡팡노래교실 수강생들이 개인 또는 단체로 부르는 노래, 춤을 통해 건강한 삶을 만들어가는 웰빙댄스, 한국무용만의 진중한 춤사위를 배운 수강생들의 기초 및 심화 무대, 남녀가 함께 추는 춤으로 국제

경기 종목이기도 한 댄스스포츠, 신나는 노래에 맞춰 새로운 장구타법으로 공연하는 아랑고고장구 등이다. 배우고 익히는 것도 좋지만 실제 무대 발표 경험을 통해 수강생들의 생활과 예술이 더욱 밀접하게 연결될 것으로 기대된다. 문의 051)631-1377

2023 굿바이 송년

12. 11.(월) / 14.(목) 오후 7시 부산예술회관 공연장



부산예술회관 기획 '2023 굿바이 송년'이 올해는 이를 공연으로 12월의 멋진 마무리를 선사한다. 먼저 11일에는 [와락심포니]가 시나위 '太平'을 태평소와 타악기의 울림을 중심으로 표현하고, 제25회 새물결총작가전에서 최우수작품상을 받았던 [아트프로젝트 올리는] 따뜻한 우리네 추억을 춤으로 표현한다. [부산국악협회가야금연주단]은 「인연」, 「부산갈매기」, 「돌아와요 부산항에」를 애절한 음색의 가야금 그리고 양금의 조화로 연주하고, [미어 브라스 앙상블]은 경쾌한 재즈 음악을 풍성한 브라스로 선보인다. [반체로 댄스스포츠]는 차차차-룸바-파소도블레-왈츠 등 프로페셔널한 댄스스포츠 무대를, 크로스오버 월드뮤직 프로젝트 앙상블 [동백유랑단]은 직접 작곡한 곡과 그들만의 색으로 편곡한 곡 등을 특색있는 앙상블로 들려준다. 14일에는 부산연극협회에서 「드리머」, 「The Life I Never Led」, 「Listen」, 「Mamma Mia」 등의 뮤지컬 넘버를 <굿바이2023 뮤지컬 갈라쇼>로 선보인다. 아름답고 섬세한 라인에서 나오는 몸의 언어를 전달하는 [부산아이디 발레단], 한국적이면서 현대적인 신명이 느껴지는 경교와 버꾸북 6인무를 젊은 춤꾼들이 펼치는 [한국춤프로젝트 가마], <Ending Credit>을 통해 화려한 무대 뒤 예술가들의 노고와 공허를 현대무용으로 표현하는 [팟 댄스 프로젝트]의 무대도 이어진다. [NS밴드]는 색소폰-일렉기타-키보드-퍼커션-보컬로 구성된 만큼 크리스마스

캐롤 메들리를 포함한 다양한 무대를 보여준다. 옛 감성을 불러일으키는 '레트로' 콘셉트로 진행되는 만큼, 관객 이벤트도 레트로 형식으로 색다를 재미를 선물할 예정이다. 문의 051)631-1377

황수로 고문, 은관 문화훈장 수훈



부산꽃작가협회 황수로 고문이 10월 27일 모두예술극장에서 개최한 2023 문화예술발전유공 시상식에서 은관 문화훈장을 수훈했다. 황수로 고문은 국가무형문화재 제124호 궁중채화장으로 지난 60여 년간 『조선왕조실록』에 기록으로만 현존하던 조선왕조 의례의 궁중채화를 연구하고 복원하는 데 기여했다. 조선시대는 궁중에 행사가 있을 때 생화를 꺾어서 사용하지 않고 왕조의 영원불멸을 상징하여 시들지 않는 꽃을 만들어 사용했다. 궁중채화는 비단이나 모시천에 자연 염색을 한 후 만든 꽃을 이룬다. 비단을 사용해 꽃을 만드는 방식은 세계적으로도 흔한 것은 아니며 특히 조화를 밀랍을 녹여 내 구성을 높이는 것은 우리나라가 유일하다. 황수로 고문은 2019년 세계에서 유일한 한국궁중꽃박물관도 설립했다. 이 박물관은 궁중채화를 복원 전승하고 계승하기 위해 황수로 고문이 사비 150억 원 등 200억 원을 들여 건립했다. 이화여대를 졸업한 그는 우연한 기회에 조화를 만들기 시작했고 동아대 대학원 과정을 밟으며 고려사 번역에 참여한 것도 계기가 되었다. APEC 정상회에서는 조선왕조 궁중채화 특별전을 개최했으며, UN본부 한국전통공예특별전, 2009년 국립중앙박물관 초대전 등 국내외의 다수의 전시를 통해 한국 궁중예술의 전승 발전과 한국문화예술 발전에 기여했다. 또한 『한국 꽃예술 문화사』 『아름다운 한국채화』 『아름다운 궁중채화:황수로 한국채화이야기』 등의 저서를 펴냈다.

부산예술회관 서포터즈 예담 수료식

11. 23.(목) 오후 6시 30분 부산예술회관 한울집



부산예술회관에서 진행된 전시, 공연, 행사 등 각종 문화 예술 사업을 위해 홍보 및 대외 활동을 한 서포터즈 '예담'(예술을 담다) 1기 수료식이 11월 23일 열렸다. 서포터즈 제도는 시민 등 예술 향유 대상자가 직접 그들의 언어로 예술문화 홍보에 참여하는 방식으로, 적은 예산(활동지원금)으로 최대의 효과를 거둘 수 있어 대세가 된 마케팅 방법이다. 지난 4월 24일부터 5월 21일까지 모집을 통해 선발된 12명의 인원은 5월 24일 오리엔테이션을 거쳐 6월부터 11월까지 6개월간 활동했다. 부산지역 대학생으로 구성된 이들은 월 2건 콘텐츠 제작 및 홍보단원 활동(유튜브, 블로그, 인스타그램 등), 부산예술회관 전체 행사 홍보, 부산예술회관 전체 행사 현장 방문 및 리뷰 작성, 부산예술회관 상주단체 극단 [누리예] 홍보 활동 등을 했다. 수료식은 활동 결산, 수료증 전달, 우수활동자 시상 등의 순서로 진행됐다.

수료식이 끝난 뒤 서포터즈의 취지를 살려 상주단체 연극 <표본실의 청개구리> 관람 후 해산했다.

2023부산국악축제

12. 1.(금) 오후 7시 / 2.(토) 오후 5시 부산시민회관 대극장



부산시 동래구 복천동 송공단에는 의녀 금섬을 기리는 '금섬 순난 비'가 있다. 함흥 출신으로 송상현 부사를 따라 부산으로 왔던 기생 금섬은 왜군이 동래성을 공격했을 때 피난을 갈 수 있는 상황이었지만 왜적과 맞섰다. 성이 함락되었을 때 지붕으로 올라가 기와를 던지며 맞서 싸우다 장렬히 전사했다. 그의 의로움과 송고한 정신은 동래 총렬사 의열각에 모셔져 오늘날까지 전해진다. 부산국악협회(회장 김인숙)는 2023부산국악축제를 통해 행복한 일상을 접고 나라를 지키는 일에 앞장섰던 금섬의 이야기를 창극으로 구성해 보여준다. 이 작품에는 금섬과 애향, 그리고 의열각에 함께 배향된 무명의 두 여인이 주요 등장인물이다. 김지원 국극분과위원장이 송상현 역, 허애명이 정발장군 역, 김신영 부회장이 금섬 역, 신소연이 애향

역으로 무대에 오른다. 외에 조정례, 김명숙, 배현숙 등 회원들이 함께한다. 남자 역할을 연기하는 여성 배우의 뛰어난 연기가 관극의 핵심이기도 한 여성국극은 한때 어떤 장르와도 비견될 수 없는 전성기를 구가했다. 부산국악협회는 전통의 맥을 잇는다는 취지로 매년 여성창극을 부산시민들에게 선사하고 있다.

문의 051)644-5211

새물결춤작가전

12. 28.(목) 오후 7시 부산예술회관 공연장



부산의 차세대 젊은 춤꾼 발굴을 위해 부산무용협회(회장 김강용)가 개최하는 '새물결춤작가전'에 올해는 4개 팀이 참가해 선의의 경쟁을 펼친다. [Project]는 허지혜의 안무로 작품 <만흥>을 선보인다. 자연스러운 춤, 함께하면 더 즐거운 춤을 추는 것이 단체의 목표인 만큼 이번 작품도 개개인의 박자와 흥에 포인트를 두고 관객들도 어렵지 않도록 직관적인 움직임 바탕으로 완성한 작품이다. [물음표무용단]은 전성민이 안무한 <마력(馬力)>을 무대에 올린다. '말의 힘'이라는 동음이의어에 빗대 어떠한 힘보다 강력한 마력이 '말장난'에 그치는 것은 아닌지 묻는다. [Hu Dance Project]는 임지우가 안무한 <2=4>로, 인간이 이성을 잃었을 때 발현하는 본능적이고 충동적인 모습과 쾌락에 충실한 모습에 대해 이야기한다. [이태상 프로젝트]는 이원재가 안무한 <텔레스크린>으로 개인의 신념이나 확신으로 형성되는 주관적인 믿음에 초점을 맞춘다. 조지 오웰의 소설 『1984』에서 따온 '텔레스크린'은 당에 대한 믿음과 충성을 강요당하는 사회에서 소리를 줄일 수는 있어도 완전히 끌 수 없는 텔레스크린처럼 믿음을 강요당하는 상황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행동할 것인가를 묻는다. 11월 25일 안무자 워크숍을 먼저 개최하고 12월 28일 오후 7시, 부산예술회관 공연장에서 작품을 만날 수 있게 된다.

문의 051)632-5116



**동아대학교 교육대학원
문화예술교육 전공 신입생 모집**

12. 8.(금) ~ 14.(목)
오후 3시까지

동아대학교 교육대학원이 문화예술교육 전공 2024학년도 전기 신입생을 모집한다. 해당 전공은 21세기 국제화 흐름을 주도하는 문화예술분야에서 선도적인 활동을 하는 인재를 배출하기 위해 개개인의 사회, 역사, 문화적 경험을 이론적으로 구체화하고 실무적 범위에서 전문화한다. 교과목은 실용회화, 소재와기법, 아트상품제작, 미술재료학, 미술아카데미경영, 현장실습, 문화콘텐츠 개발, 문화행정기획, 현대미술과인문학 등이다. 교수진은 김승호 홍순환 신상용 유형욱으로 구성되어 있다. 입학원서접수는 12월 8일부터 14일 오후 5시까지, 구비서류제출은 12월 15일 오후 3시까지, 전공구술조사는 내년 1월 4일 오후 6시다.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 또는 전화 문의 요망.

문의 051)200-1791



**영혼의
영금술사**

~ 12. 2.(토)
이월갤러리

1963년 11월, 문화적 기반이 열악한 부산에서 친취적이고, 실험적 정신을 앞세운 현대미술 단체가 설립되었다. 설립한지 60년이 훌쩍 넘은 전통 있는 단체 미술동인 혁에서 새로운 전시를 연다. 미술동인 혁은 그동안 작가적 역량을 넓은 공간에서 마음껏 표출하자는 신념으로 대작 위주로 전시를 열었지만, 작년부터 미술동인 혁의 멤버가 된 이월갤러리 대표의 초대로 이번 전시는 10호 미만의 20여 점 작품으로 대중과 소통하게 됐다. 하훈수 회장은 "이번 소품전을 통해 앞으로 더 다양한 작품을 선보이며 대중에게 친밀하게 다가가는 한 걸음이 되길 바란다"는 소감을 전했다. 60년 동안 한 해도 거르지 않고 꾸준히 전시를 선보인 미술동인 혁의 우직함이 묻어나는 전시를 찾아 가보는 건 어떨까.

문의 010-8539-5175



**음악풍경 창립 10주년 기념
고요한 밤 거룩한 밤**

12. 9.(토) 오후 4시
부산예술회관 공연장

전문예술단체 음악풍경(대표 김창욱)이 창립 10주년을 맞아 제53회 짜장콘서트를 '특집 크리스마스 콘서트: 고요한 밤 거룩한 밤'으로 꾸민다. 갈수록 양극화되어 척박한 시대에 크리스마스 음악으로 고단한 우리 이웃들의 삶에 위로와 격려를 보내고자 한다. 이번 콘서트에는 부산에서 비약적인 활약을 펼치고 있는 성악가들이 출연해 캐럴송과 세계 명가곡을 선사한다. 테너 양승엽은 아당의 「외 거룩한 밤, 세자르 프랑크의 「생명의 양식」을 박성백은 아담스의 「거룩한 성, 토스티의 「최후의 노래」를 들려준다. 소프라노 신하람은 벨리니의 「방황하는 은빛 달이여」, 헨델의 아리아 「울게 하소서」를 노래한다. 아울러 정혜리와 박성백이 「그대는 나의 모든 것」을 듀오로 연주하고, 창작곡 「겨울에」를 신하람이 세계 초연한다. 마지막 다 함께 노래는 「고요한 밤 거룩한 밤」이다. 문의 051)987-5005



연극 아빠

12. 8.(금) ~ 12. 10.(일)
금 오후 8시 / 토, 일 오후 4시
소극장 6번출구

작년 제4회 아름다운 연극상을 수상했던 허석민 연출가가 연극 아빠로 돌아왔다. 작년에 이어 두 번째로 올리는 이번 공연은 부산연극계에서 오랫동안 묵직하게 활동하고 있는 배우 박찬영이 아빠 역을 맡았다. 엄마 역에 최현정 배우가, 경진 역에는 이경진 배우가, 지혜 역에는 박지혜 배우가, 멀티 역에는 노동훈 배우가 맡아 열연을 펼칠 것으로 기대한다. 연극계의 선배이자, 동료인 아빠는 딸 경진에게 버팀목 같은 존재이자, 친구 같은 존재이다. 그런 아빠에게 예고치 못한 병이 찾아오면서 경진의 가족은 위기를 맞이하게 된다. 경진은 이 위기를 모면하고 다시 단란하고 화목한 가족의 모습을 지킬 수 있을까. 연말에 마음이 따스해질 한 편의 연극을 감상해보길 권한다.

문의 010-7546-4674



신홍직 초대전 '색의 교향악'

~ 12. 10.(일)
갤러리조이

들라크루아는 “색은 눈으로 보는 음악이며 그 조화는 음악 이상으로 감동을 자아낼 수 있다”고 하였다. 색은 감각적 이해를 돕는 회화의 본질 중 하나이다. 눈의 즐거움은 감동을 동반하며, 빛과 색이 빚어내는 감동은 우리의 마음 한구석 깊숙한 감수성을 뒤흔들어 놓는다. 신홍직 작가가 표현하는 자연은 고정된 것이 아닌 지극히 유동적이고 변화무쌍하며 빛의 변화에 따라 다각도의 양상을 보이며 다이내믹하다. 자연의 동적인 변화를 포착하여 그것을 표현함에 있어 정화된 감정을 투입해 자신의 모든 능력을 발휘해 색의 힘으로 무한한 가능성을 창작한다. 그의 눈에서 바라본 자연과 세상은 추상적인 아름다운 장면을 연상케 하며, 전시명처럼 색의 교향악을 상상하게끔 만든다.

문의 051)746-5030



이바디예술단과 함께하는 소리의 향기 - 二打

12. 14.(목) 오후 7시
부산시민회관 소극장

지역민들과 국악을 가까이 접하고 함께 어깨춤을 들썩이며 놀아보자는 취지로 부산에서 꾸준히 국악 공연을 올리고 있는 이바디예술단이 새로운 공연으로 찾아온다. 진주·삼천포의 풍물 가락을 중심으로 경상도 일대의 가락을 집대성한 영남사물놀이로 흥을 돋운다. 농촌에서 농부들이 두레를 짜서 일을 할 때 주로 연행했던 음악인 농악의 판놀음도 볼 수 있으며 집단으로 일손을 꾸려 일을 하면서 노래하는 논일소리와 밭일소리인 대동놀이를 감상하며 농민들의 삶의 단면을 상상해볼 수 있다. 그 외에도 선반설장구, 풍물과 난타, 민요와 같은 신명나는 프로그램으로 전통 음악을 통한 화합의 장을 이루고 공연명처럼 소리의 향기가 느껴지는 무대가 펼쳐진다.

문의 010-5194-618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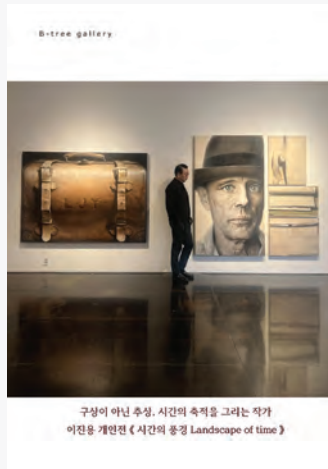


부산, 자라나는 나무展

~ 12. 15.(금)
중구문화원 북병산작은미술관

중구문화원(원장 임무성)이 2023년 작은미술관 조성 및 활성화 지원 사업 3번째 기획전 '부산, 자라나는 나무'를 북병산작은미술관에서 개최한다. 참여 작가는 강이수, 곽순곤, 하석원, 문병탁, 박성주, 허경준, 최영환, 이경, 유진재, 왕덕경 10인으로 지역의 중견과 신진 작가를 아우른다. 현대인이 살아가는 도심 공간을 상징하는 스테인레스 스틸을 주재료로 파도에 출렁이는 바다를 향해하는 모습을 표현한 허경준 작가, 인간과 자연의 관계성에 주목해 유기적인 형성을 탐구한 결과물을 작품으로 표현하는 유진재 작가 등 입체와 평면 작품을 실내외에 총 60여 점 전시한다. 전시 관계자는 "중구라는 지역적 한계를 넘어 부산시 전체의 문화-예술 발전에 관한 질문을 던지는 계기를 마련해 나갈 것"이라며 관심을 당부했다.

문의 051)442-2550



이진용 개인전 '시간의 풍경 Landscape of time'

~ 12. 16.(토)
비트리갤러리 부산점

이진용 작가는 시간을 담고 있는 사물의 표정과 풍경을 표현한다. 시간을 쌓듯 세필의 작은 붓 터치로 묵묵히 캔버스에 획을 올리는 작가의 작업은 고도의 집중과 노력이 필요하다. 하루의 절반 이상을 수행하듯 작업하는 작가는 "시간을 그리고 만드는 작업이 곧 작품으로 탄생한다"고 말한다. 작가가 그려내고 있는 사물은 오랜 시간과 다양한 이야기 소재를 담고 있으며, 세월의 흔적이 묻어 있는 사물의 시간을 화면에 작가만의 화풍으로 재현한다. 이번 전시는 그가 작가로 활동한 지 올해로 40년이 되는 해로 작가에게는 큰 의미가 있는 전시다. 부산점에는 사물의 '부분'을 심도있게 보여주며 작품의 깊이 있는 중량감과 그간 끝없이 노력해온 수행의 과정을 관람객에게 보다 직접적으로 경험할 수 있는 기회를 선사한다.

문의 051)622-024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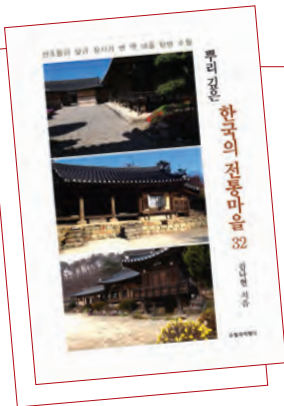


측정 불가 지역

~ 12. 30.(일)
제이무브먼트갤러리

불확실성의 시대라 불리는 오늘날, 동시대 작가들이 예측할 수 없는 세계를 사유하는 몇 가지 방법들을 짚어본다. 강수빈, 이정동 두 작가가 감각하는 세상은 인식되거나 측정이 가능한 모습으로 나타나지 않는다. 그들의 작업에서, 불분명한 현실은 끝없이 간접적인 방식으로 더듬어지거나, 인식할 수 없게 일그러져 꺾적만을 남긴 채 해체된다. 강수빈 작가는 항상 똑같은 원을 그리려는 시도를 하며 자신의 오류와 관측을 의심한다. 이는 그가 존재하는 현실을 지각하고 인식하는 방법에 의문을 품는 행위도 포함된다. 이정동 작가의 드로잉과 설치 작업에서 '선'은 아직 발견되지 않은, 어떤 혼란스러운 가능태가 된다. 하나의 점에서 시작되는 선은 예측 불가능하게 뻗어간다.

문의 051)622-915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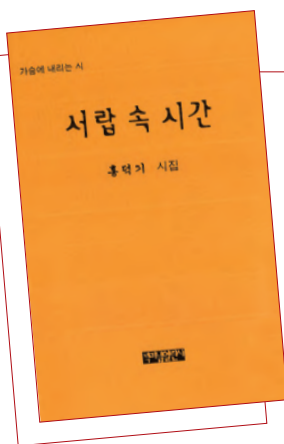
뿌리깊은 한국의 전통마을32 김나현 / 수필과비평사

‘한옥이 품은 은근함, 고향처럼 안전한 온돌방, 나뭇결이 닳고 색이 바랜 마루, 어머니가 연상되는 장독대...’(『경주 양동마을, 중』) 고택만의 아늑함을 찾아 발품을 판 곳이 무려 32곳이다. 이연적 선생의 종가 무침당, 조선시대부터 있어 온 무섬마을의 해우당과 만족재, 군위군에서 가장 오래된 집이라는 명예를 가진 부림 홍씨 문중 주택인 남천고택 등이다. 단순한 여행서 이상의 글과 사진은 고택만 품은 게 아니다. ‘마을을 두루 걷고 주변 돌레길도 걸어보기를, 담장 너머 기와지붕 용마루 능선과 추녀, 처마를 눈에 담으며 도란도란 여행해 보기를, 그러자면 이 마을에서는 시간 개념을 내려놓을 일’(『군위 한밤마을, 중』)이라며 고택을 품은 마을의 정경도 느껴보길 권한다. 작가의 발품에서 한국의 씨족문화를 일깨운 다양한 성씨와 본도 엿보게 된다.



사랑샘 안영희 / 소금북

어른과 어린이가 함께 읽는 동시조는 무엇보다 어린이의 솔직한 마음과 생활체험, 상상력, 천진난만한 정서가 잘 드러나야 한다. 어른이 쓰더라도 어린이와 눈높이를 같이 해야 하고, 어린이는 자신의 체험과 생각을 솔직하게 표현해야 한다. 어린이다운 관찰력과 독특한 시각이 잘 드러난 동시조는 읽는 어른들도 고개를 끄덕이게 한다. 1995년 『시조문학』으로 천료하고 그간 『어떤 풍경』 『엽서』 『못다한 이야기』 등의 시조집을 펴낸 안영희 시인이 이번에 동시집을 발간했다. ‘태평양 너른 바다/누비던 참치 넣고//엄마가 김치찌개/맛있게 끓인 저녁//식구들 둘러앉아서//태평양을 먹는다’(『태평양을 먹다』 전문)나 ‘그립다 한마디를/바다에 던졌는데//파도가 뱅글 받아/흰 거품 속에 넣고//너 있는 그 먼 곳으로//달려가고 있구나’(『그리움, 전문』) 등등 쉽게 공감할 수 있는 일상의 소재를 참신하게 다루며 생각의 폭을 확장시켜 준다.



서랍 속 시간 홍덕기 / 책퍼냄열린시

‘처서 지난 광안리 백사장/발바닥이 미지근하다/수영복과 함께 즐겼던 커다란 도너츠/모래톱 벤채 잠에 빠지고/종이컵 쪼는 비둘기/미화원은 구겨진 더위를 쓸어 담는다’(『뷰파인더에 걸린 새벽, 중』) 홍덕기는 35년이 넘는 사력을 가진 사진작가다. 빛과 함께해야 할 길이 아직 남아 있지만, 순간 포착에 기인한 사진으로 못다한 이야기들이 문학이라는 다른 옷을 입고 숨겨둔 나를 풀고 동공에 불 밝히는 밤’을 보낸 첫 결과물이다. ‘화창한 봄날 꽃길도 있지만/피하기 어려운 벼랑도 있다/벼랑을 뛰어 넘는 도전/먼길 돌아오는 무거운 발걸음/대양에 꿈을 푼다’(『벼랑 끝 연어, 중』) 강영환 시인은 ‘궁극이 없는 예술에 새로이 도전해 봄으로써 자신의 예술적 경지를 한층 더 높일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할 수 있다’는 말로 그의 도전을 응원했다. 작가는 2021년 『부산시단』으로 등단했다.

MECENAT & SUBSCRIPTION

부산의 예술문화를 사랑하는 당신을 메세나로 모십니다.



메세나 광장 MECENAT

『예술부산』은 메세나가 되어주신 분들의 아낌없는 성원에 힘입어 그동안 기반을 닦았습니다. 『예술부산』과 함께 부산의 예술 문화 발전에 앞장서는 동반자가 되어주실 메세나를 찾습니다.

정기구독 SUBSCRIPTION

월간 『예술부산』은 부산 시민과 예술문화인에게 보다 가깝게 다가가고자 합니다. 서면 영광도서에서 해당 호를 구매할 수 있고(정가 5,000원) 1년 정기구독을 신청하면 50% 할인된 금액으로 받아볼 수 있습니다.

메세나 광장

방성빈 BNK부산은행 은행장
손병두 한국거래소 이사장

- 『예술부산』을 후원하는 광고주가 되시면
- 첫째** 소득세법 시행령 제80조 1항 5조 및 법인세법 시행령 제24조 1항 5조에 의거하여 세제혜택을 드리며,
- 둘째** 사단법인 부산예술문화단체총연합회에서 주최하는 모든 문화행사에 우선적으로 초대하고,
- 셋째** 월간으로 발간되는 『예술부산』을 보내드립니다.

『예술부산』 정기구독 신청

전화 051)612-1372
팩스 051)631-1378 또는
이메일 artbusan1997@naver.com을 이용하여
구독신청을 하시고 1년간 구독회비 30,000원을
입금하시면 해당 호부터 보내드립니다.

부산은행 101-2024-8255-00
예금주 (사)부산예술문화단체총연합회

부산예술회관은

공연장, 전시실, 회의실, 연습실을 실비로 대여하고 있습니다.

부산예술회관은

다양한 문화예술인들이 순수한 열정과 참여로
대중과 소통하고 교류하며 만나는 곳입니다.
문화적 향유를 제공하는 복합문화공간으로서
공연, 전시, 문화예술 전반을 아우르는 무한한 창작공간이 되도록
다양한 즐거움과 행복 문화를 제공합니다.

부산예술회관 대관시설 면적

공연장	597.56㎡ (240석)		
회의실	87.62㎡	3층 전시장	122.57㎡
4층 전시장	116.32㎡	4층 연습실	102.12㎡
2층 연습실	94.05㎡	1층 연습실	52.62㎡
지하주차장	약 60대 주차 가능		

부산예술회관 홈페이지

www.bsart.or.kr

대표전화 051) 631-1377

대관문의 051) 612-1376



DECEMBER



공연장 / 전시장 / 회의실 / 예술아카데미 / 야외광장

SUNDAY	MONDAY	TUESDAY	WEDNESDAY	THURSDAY	FRIDAY	SATURDAY
					1 문화가있는날_주식회사홀라웨이브, 디스트릭트7전, 051)631-1377	2 문화가있는날_주식회사홀라웨이브, 디스트릭트7전, 051)631-1377 부산예술회관 문화예술교육사 현장역량 강화 사업, 12시, 051)631-1377
3 문화가있는날_주식회사홀라웨이브, 디스트릭트7전, 051)631-1377 이소윤 벨리댄스 회원발표회 오후 3시, 010-2724-8737	4 웰빙댄스 10시~11시30분(4층연습실)	5 부산사진작가협회_제42회 부산전국사진촬영대회 공모전, 051)631-4111 수채화교실 10시~12시(회의실) 댄스스포츠 및 라인댄스 10시~12시(4층연습실) 김정현의 팝팡노래교실 13시30분~15시30분(공연장)	6 부산사진작가협회_제42회 부산전국사진촬영대회 공모전, 051)631-4111 가곡교실 12시~13시50분(2층연습실) 아랑고고장구 14시~15시30분(2층연습실) 2023 남구종합사회복지관 후원자.자원봉사자 감사의 날, 오후 5시, 051)647-3665	7 부산사진작가협회_제42회 부산전국사진촬영대회 공모전, 051)631-4111 댄스스포츠 및 라인댄스 10시~12시(4층연습실) 한국무용교실 14시~17시50분(4층연습실) 부산예술회관 아카데미_예술이지, 오후 7시 051)631-1377	8 부산사진작가협회_제42회 부산전국사진촬영대회 공모전, 051)631-4111	9 전통예술단체 음악풍경, 12월 짜장콘서트:크리스마스 특집-고요한 밤 거룩한 밤, 오후 4시, 051)987-5005
10 Busan World Wind Orchestra 부산시민관악단 정기연주회, 오후 5시, 010-7661-5285	11 행복한도서관, 고려인&파독 사진전, 010-5585-0752 웰빙댄스 10시~11시30분(4층연습실) 부산예총 _2023 굿바이송년 공연 오후 7시, 051)631-1377	12 행복한도서관, 고려인&파독 사진전, 010-5585-0752 수채화교실 10시~12시(회의실) 댄스스포츠 및 라인댄스 10시~12시(4층연습실) 김정현의 팝팡노래교실 13시30분~15시30분(공연장)	13 행복한도서관, 고려인&파독 사진전, 010-5585-0752 가곡교실 12시~13시50분(2층연습실) 아랑고고장구 14시~15시30분(2층연습실)	14 행복한도서관, 고려인&파독 사진전, 010-5585-0752 댄스스포츠 및 라인댄스 10시~12시(4층연습실) 한국무용교실 14시~17시50분(4층연습실) 부산예총 _2023 굿바이송년 공연 오후 7시, 051)631-1377	15 행복한도서관, 고려인&파독 사진전, 010-5585-0752	16 행복한도서관, 고려인&파독 사진전, 010-5585-0752
17 행복한도서관, 고려인&파독 사진전, 010-5585-0752	18 웰빙댄스 10시~11시30분(4층연습실)	19 수채화교실 10시~12시(회의실) 댄스스포츠 및 라인댄스 10시~12시(4층연습실) 김정현의 팝팡노래교실 13시30분~15시30분(공연장)	20 부산발도르프학교, 발도르프 교육예술제, 오후 7시 30분, 010-3569-5444 가곡교실 12시~13시50분(2층연습실) 아랑고고장구 14시~15시30분(2층연습실)	21 부산진구립 제15회 라온소년 소녀합창단 정기연주회, 오후 7시, 051)605-4631 댄스스포츠 및 라인댄스 10시~12시(4층연습실) 한국무용교실 14시~17시50분(4층연습실)	22 부산국악협회 시조분과 공연 051)644-5211	23 제4회 라라댄스무용학원 정기공연 오후 5시, 010-5099-1598
24	25 웰빙댄스 10시~11시30분(4층연습실)	26 수채화교실 10시~12시(회의실) 댄스스포츠 및 라인댄스 10시~12시(4층연습실) 김정현의 팝팡노래교실 13시30분~15시30분(공연장)	27 부산무용협회_제27회 새물결춤작가전, 오후 7시, 051)632-5116 가곡교실 12시~13시50분(2층연습실) 아랑고고장구 14시~15시30분(2층연습실)	28 부산무용협회_제27회 새물결춤작가전, 오후 7시, 051)632-5116 댄스스포츠 및 라인댄스 10시~12시(4층연습실) 한국무용교실 14시~17시50분(4층연습실)	29	30 앞씨개또마플라멩코, 오후 3시, 010-8382-0776
31						

부산예술회관 예술아카데미

접수기간 : 분기 시작 1달전~개강일
 접수방법 : 전화, 방문 접수 (부산예술회관 302호)
 * 카카오톡 채널 접수 가능 '부산예술회관 아카데미' 검색
 계좌이체 : 부산은행 310-01-001290-2
 * 수강료 납부 후 꼭 연락 바랍니다.

4분기 (2023년 10~12월)

순번	프로그램명	모집인원	요일 및 시간 / 장소	수강료
1	김정현의 팡팡노래교실	170명	화) 13:30-15:30 <1층 공연장>	* 3개월 3만원
2	한국무용교실	20명	목) 14:00-15:50(심화반) <4층 연습실>	3개월 9만원
3		20명	목) 16:00-17:50(기초반) <4층 연습실>	3개월 9만원
4	아랑고고장구	20명	수) 14:00-15:30 <2층 연습실>	3개월 9만원
5	라인댄스(오전반)	20명	화,목) 11:00-11:50 <4층 연습실>	3개월 9만원
6	댄스 스포츠	20명	화,목) 10:00-10:50 <4층 연습실>	3개월 9만원
7	가곡교실	20명	수) 12:00-13:50 <2층 연습실>	* 3개월 15만원
8	너도나도 방송댄스	20명	월,수) 17:00-17:50 <미정>	3개월 15만원
9	통기타 반주법과 연주	20명	수) 16:00-18:00 <미정>	3개월 15만원
10	스마트폰 사진교실	10명	목) 10:00-11:50 <4층 회의실 또는 강사작업실>	* 3개월 15만원
11	웰빙댄스	20명	월) 10:00-11:30 <4층 연습실>	* 3개월 9만원
12	(신규) 수채화교실	20명	화) 10:00-11:50 <4층 회의실>	* 3개월 15만원
13	(신규) 드로잉교실	20명	화) 13:00-15:50 <4층 회의실>	* 3개월 15만원
14	(신규)흥겨운 우리가락 경기민요	10명	화) 13:00-14:50 <2층 연습실>	* 3개월 9만원

개강완료

※ 수강료 외 재료비, 반주, 교재비 별도
 ※ 일부강좌 수시접수 가능

문의 : 070-4206-9140



한국거래소
자본시장역사박물관

우리 자본시장의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

위 치 | 부산국제금융센터 (BIFC) 51층

방문 전 관람문의 (051-662-2559)

관람료는 무료이며, 토/일 · 공휴일은 휴관입니다.



변화하는 부산은행 변함없는 든든한 동반자

우리 아이들의 해맑은 미소처럼

변함없이 지켜야 할 가치가 있습니다

고객과 지역의 더 나은 미래를 위해

끊임없이 변화하고 성장하는 든든한 동반자

BNK부산은행이 되겠습니다

정가 5,000원



9 771978 974008

ISSN 1976-9741

지역과 함께하는 든든한 동반자

BNK 부산은행